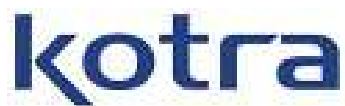


멕시코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4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5
2. 주요 산업 동향 /11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4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14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6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18
대한수입규제동향 /26
관세제도 /27
주요인증제도 /29
지적재산권 /35
통관운송 /37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42
- 외국기업 투자동향 /45
- 우리기업 투자동향 /52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53
- 진출형태별 절차 /58
- 투자입지여건 / 62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63
- 조세제도 /71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72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특성 /74
- 2. 물가정보 /77
- 3. 바이어발굴 /80
-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82
-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86
-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88
- 7. 이주정착 가이드 / 91
- 8. 출장가이드 /97

Mexico



1992 MAGELLAN Geography/Santa Barbara, CA (800) 929-4MAP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멕시코 / 메히꼬 (MEXICO) 멕시코는 영어식 발음이며 원어로는 메히꼬임
위 치	북으로는 미국과 접경(3,326km), 남으로는 과테말라 및 벨리즈 등과 접경
면 적	1,958,201 km ² (세계 12위 규모로 한반도의 약9배, 남한의 약20배 크기)
기 후	멕시코는 고지대와 저지대로 나뉨. 저지대는 고온 다습, 고지대는 온난 건조
수 도	멕시코시티(CIUDAD DE MEXICO / D.F), 면적 1,547 km ² , 해발 2,308m
인 구	총 108.7 백만 명 ('07. 7 추정치)
주요도시	GUADALAJARA (제2도시/ 6.3백만 명), MONTERREY (제3도시/ 4.2백만명)
민족(인종)	혼혈(MESTIZO) 80%, 백인 9%, 원주민(INDIJENA) 10%, 기타 1%
언 어	스페인어
종 교	카톨릭 89.7%, 신교 4.9%, 유대교 0.1%, 기타 종교 2.1% 등
건국(독립)일	1821년 9월 16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실권자)	Felipe Calderón Hinojosa 대통령 (2006. 12. 1일 취임)
입법부	양원제 (상원 128석, 하원 500석)
정 당	여당 : 국민행동당(PAN) / 야당 : 제도혁명당(PRI), 민주혁명당(PRD) 정부성향 : 친미 온건 우경

자료원: 멕시코 통계청, EIU, CIA, 2007. 12

주) 멕시코 인구센서스는 10년마다 실시되므로 민족, 종교 수치는 2000년 센서스 자료임.

나. 경제지표 (2007년 12월 기준)

GDP	US\$ 8,400억불 ('06), US\$ 8,792억불 ('07 추정)
실질경제성장률	4.8 %('06), 3.0 %('07 추정)
1인당 GDP	US\$ 7,814 ('06), US\$ 8,088 ('07 추정)
실업률	3.58 % ('06), 3.7%('07 추정)
물가상승률	4.05 % ('06), 3.8%('07 추정)
화폐단위	페소(\$)/peso
환 율	US\$ 1 = \$ 10.91 ('06), \$ 10.92 ('07 추정)
외 채	US\$ 1,647억불 ('06), US\$ 1,713억불 ('07 추정)
외환보유고	US\$ 763 억불 ('06), US\$ 853 억불 ('07추정)
산업구조	농수산업(4.8%), 광업(1.1%), 제조업(18.1%), 건설업(3.9%), 전기 및 상수도(1.6%), 상업 및 숙박요식업(19.7%), 교통통신업(12.7%), 금융 서비스업(16.4%), 공공서비스업(16.8%)
교역규모	- 2006년 수출 2,502억 불, 수입 2,561억 불, 무역적자 58억 불 - 2007년 수출 2,691억불, 수입 2,800억불, 무역적자 109억불 (추정)
교역품	- 주종 수출품목: 자동차 및 엔진, 컴퓨터, 전자제품, 석유, 의류, 농산물 - 주종 수입품목: 자동차 부품, 컴퓨터 및 전자부품

자료원: KITA, 멕시코 중앙은행, EIU, 멕시코 통계청, 2007. 12

다. 한-멕시코 관계 (2007년 12월)

체결협정	문화협정('66.4), 무역협정('66.12), 일반사증면제협정('79.4), 항공협정('89.11),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89.11), 이중과세방지협정('94.9), 범죄인 인도협정('96.11), 외교관용사증면제협정('97.6), 투자보장협정('00)
교역규모	○ 2006년 - 대 멕시코 수출: 62억 8,457 만 불 - 대 멕시코 수입: 7억 9,765 만 불 - 무역흑자: 54억 8,692 만 불 ○ 2007년 (1~10월) - 대 멕시코 수출: 61억 2,700 만 불 - 대 멕시코 수입: 8억 2,500 만 불 - 무역흑자: 53억 100 만 불
교역품	대맥 주종 수출 품목: 전자제품 및 부품, 자동차 부품 등 대맥 주종 수입 품목: 동과, 아연 등 광물, 소고기, 소금 등
투자교류	대 멕시코 진출 1,147 개사, 3.6 억불 / 대한 진출 4건 1,864만불 * 1999. 1 ~ 2007.12월 통계
교민	교민 수 10,000여명, 일반 체류자 400명 (유학생 포함) * 한인후손 5,000세대 (1905년 멕시코 이주 한인 1,033명의 후손, 멕시코 국적 소지)

자료원: KOTIS, 수출입 은행, 멕시코경제부 2007. 12

2. 정치 사회 동향

가. 정치사회 일반 동향

2006년으로 임기를 마감한 Vicente Fox 대통령 기간은 거시경제의 안정성 획득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 거시경제 안정으로 1994년 발생하였던 폐소화 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안정과 더불어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와 주식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멕시코 국가 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반면 사회적으로는 뿌리깊은 양극화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특히 2006년 대선에는 중산층을 대표하는 집권당 국민행동당(PAN)과 저소득층을 대표하는 좌파 민주혁명당(PRD)가 충돌, 선거 후에도 양측간에 진통을 겪는 등 양극화 해소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07년부터 집권을 시작한 칼데론 정권은 불안한 국가재정수입 합리화를 위해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멕시코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가 최근 채굴량 감소를 보이고 있어 국가재정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 원유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는 추가유전 탐사 및 채굴이 시급하나 멕시코석유공사(Pemex) 자체적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하고 외국기업의 에너지부문 투자는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에너지부문 개혁을 통한 원유부문 과제 해결이 시급하다.

나. 2006년 대선 실시 현황

1) 선거 개요

2006년 7월 1일 실시된 대선에서 여당인 국민행동당(PAN)의 Felife Calderón 후보가 좌파야당인 민주혁명당(PRD)의 Lopez Obrador 후보를 0.5% 포인트 차의 박빙의 투표차로 승리, 2006 ~ 2012년 간 멕시코의 대통령 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선거 이후 좌파 Lopez Obrador 후보는 선거결과에 불복, 선거부정을 주장하며 투표 함에 대한 전면 재검표를

주장하며 도로점거 등을 통해 시위를 벌였으나 선거재판소는 부분 재검표를 통해 Felife Calderón 후보를 공식 대통령 당선자로 발표하였다. 이후 Lopez Obrador 후보는 여당 후보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자신을 합법대통령으로 임명하는 등 저항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일반 대중의 호응도는 많이 떨어져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계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2) 선거 여파

이번 선거를 통해 비록 기존 여당인 국민행동당(PAN)이 승리하였으나 선거를 통해 빈부격차로 인한 멕시코의 남북 대립(북: 부유한 공업지대, 남: 가난한 농업지대)이 표면화 되었다. 신임 Felife Calderón 대통령이 원활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드러난 낮은 지지율, 과반에 못 미치는 국민행동당(PAN) 의석에 따른 의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당선초기 약한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Felipe Calderón 대통령은 상대 후보의 주요 정책이었던 복지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부 및 중부 마약 카르텔 소탕 등의 강력한 정부를 보여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 구축

1) 거시경제 안정세 획득

지난 6년 간 멕시코는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수확을 얻었다. 저 인플레이션 정책, 외채조기상환 및 외환보유고 확보 등으로 멕시코 경제는 안정화 되었다. 반면 6년 간 평균 2.29% 대의 저성장을 기록, 경제성장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2) 외국인 투자 증가, 주식시장 활황

경제 안정세 획득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07년 245억불이 예상되어,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주식시장 안정으로 2007년 12월 19일 종가기준 주가 지수는 2006년초 대비 61.5% 증가한 29,074 포인트를 기록하며 활황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7년 말 예상 외채 및 외환보유고는 각각 1,713억불, 853억 불로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라. 신정부의 세제개혁 일단락

1) 세제개혁 추진 배경

멕시코는 정부 수입(세수)의 규모가 전체 GDP 대비 10%로 OECD 국가 및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에 비해 낮은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어 현재 멕시코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 간접인프라 구축,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국가과제로 떠오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원유수출액에 대한 세수의 의존도가 커 불안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원유수입의 세수 점유율은 40%에 가까운 실정이다. 국제원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했던 '06년 멕시코 국가재정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국제유가가 낮은 시기에는 적자를 기록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멕시코 최대의 유전인 Cantarell 유전의 원유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국가재정운영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멕시코 재무부(SHCP)는 2012년까지 세수를 전체 GDP의 13%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07년 10월 세제개혁을 단행하였다.

2) 개혁안 주요 내용

동일개혁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동일세율 법인세(Contribución Empresarial a Tasa Única) 신설
 - 모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2008년 16%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는 19%의 세율 적용. 150만 불 이상의 고가주택에도 적용
- 2) 자산세 폐지 (Impuesto al Activo) 폐지
 - 1.25%로 운영되던 자산세 폐지
- 3) 생산 및 서비스에 대한 특별세(Impuesto Especial Sobre Producción y Servicios) 신설
 - 복권 등 사행성 사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20%의 세금 부과
 - 에어졸 페인트의 수입, 판매에 50%의 세금 부과
- 4) 법인소득세 (Impuesto Sobre la Renta) 변경
 - 대부금, 미래 자본증가에 대비한 출자금(aportación), 60만 페소를 초과하는 신고되지 않은 자본금 증가분에 대한 과세. 대부금, 기여금 등의 신고 최소금액을 백만 페소에서 60만 페소로 낮춤
- 5) 연방 세금체계
 - 가솔린, 디젤, 담배, 맥주에 대한 과세권을 지방 주정부에 위임.
 - 2014년 보유세 폐지, 보유세 재운영에 대한 권한을 지방 주정부에 위임.
- 6) 지하경제에 대한 세금 부과
 - 신고되지 않은 개인 구좌 중 월 현금보유규모 2만페소 이상인 구좌에 2%의 세금 부과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멕시코 SECA (전략적 경제 보완 협정) 논의 (2005.9~2007.9)

2005년 9월 노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시 양국 정상은 앞으로 양국간 교역, 투자를 더욱 확대, 촉진시키기 위해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를 체결하기로 한 바 있다. SECA는 관세 자유화 대상 상품의 범위를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낮은 단계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간 협상이 결렬된 FTA를 대신하게 되었다. 멕시코는 특수한 몇 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폐하는 PTA(특혜무역협정)를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한국은 그보다 자유화폭이 한 차원 넓은 SECA 체결을 요구,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다.

2006년 2월 7일~9일간 서울에서 1차 협상이 개시된 바 있으며,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경제협력 등 협상 분과 별로 주요 쟁점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일부 분과의 경우 통합 협정문안이 마련되었다.

2006년 4월 18일~20일간 멕시코시티에서 2차 협상이 개시되어, 상품무역, 무역구제, 원산지, 통관절차,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등 분과 별로 사전에 준비한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제3차 협상은 2006년 6월 14일~16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상품 양허안을 교환함으로써 양허 협상을 시작했으나, 범위와 상호관심품목의 반영 정도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를 보임에 따라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나. 한-멕시코 FTA 협상 개시 (2007. 9~)

답보상태이던 전략적 경제 보완협정(SECA)에서 완전한 의미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의 발전이 양국의 정치권에서 논의되었고, 그 1차 협상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되었다.

동 협상의 쟁점은 상품분야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위생 및 검역(SPS) 분야의 투명성, 지역화, 위원회 부문, 무역관련지적재산협정(TRIPS)분야의 지리적 표시(GI)의 보호범위 등이었으며 향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제2차 협상은 2008년 3월 중순 경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정책

1) 경제 안정 최우선시

멕시코는 1982년대 및 94년대 두 차례의 경제 위기 이후 경제 안정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80년대 중반부터 민영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1994년 NAFTA 발효 이후 대외무역 및 투자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물가안정은 각 정부의 최대 중점 경제정책이며, 2006년 12월 취임한 칼데론 정권 역시 물가안정을 최대의 경제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 현재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목표구간을 2~4%로 설정하고 있다. 2007년 1~3월간 물가지수가 4.21%를 기록하며 중앙은행 목표치인 2~4%대를 벗어나자 중앙은행은 이자율 0.25% 인상을 단행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2007년 예상 물가지수는 3.8%로서 중앙은행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멕시코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구 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추정)
물가상승률	%	5.2	3.3	4.05	3.8

자료원: 중앙은행, EIU, 2007.12

2) 개방적인 무역통상 정책 추진

1994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NAFTA 협정으로 멕시코 대외무역정책이 본격적인 개방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또한,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정부는 전세계 다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44개 국과 12개의 FTA를 맺고 있는 등 'FTA 허브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발효된 FTA는 2005년 4월 1일 부터 발효된 멕시코-일본 FTA다.

무역 개방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FTA 미 체결국 특히, 아시아산에 대한 각종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저가 중국산 수입 억제를 목표로 각종 수입통관 엄격화, 최저 수입가격제도, 반덤핑관세 부과 등을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2006년 9월 6,0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단행하는 등 무역개방조치를 계속하고 있어 거시적인 통상환경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말 NAFTA 체결 10주년을 맞아 주요 산업계에서는 그 동안 체결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경제부는 당분간 더 이상의 추가 FTA 협상은 없고 기존 FTA 내실화에 집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2006년 12월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이끄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페루,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과 FTA 체결 협상을 추진하는 등 개방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3) 재정적자 축소 및 외채 관리

원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의 경우, 2006년 멕시코 원유수출가는 배럴당 52 달러를 기록하는 등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 2006년에는 80억 페소(약 USD 7.3억)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7년, 멕시코 정부는 36%에 달하는 고질적인 원유수입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세제개혁을 단행하여 정부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게 되었다.

공공부채는 1994년 이래로 GDP의 40%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부채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해 외채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어 멕시코의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나. 최신경제동향 및 전망

1) 최근 경제 동향 (요약)

□ 미국 경기침체로 인한 동반 하락세

미국의 낮은 제조업 성장률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기 악화가 미국의 소비지출 둔화를 가져왔고 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멕시코 경제에 영향을 미쳐 '07년 경제 성장률은 3.0%로 예상된다.

□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으로 국가위험도 감소

칼데론 정부는 3월 공무원연금법(ISSSTE) 개정을 통해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10월 세제 개혁을 일차 완료하여 세수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는 JP Morgan, Fitch 등 주요 신용기관이 멕시코 국가위험도를 역대 최저치로 조정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과다한 원유수출의존 세수구조는 정부지출 및 거시경제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빈부격차 해소와 GDP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2) 2008년 전망(요약)

□ 미국 경기하강세의 영향 계속

미국의 소비 회복이 쉽지 않아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예정으로 '08년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2.8%~3.2%로 예상된다. 다만, '07년 하반기부터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이 활발해 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세제개혁 효과 기대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및 세제개혁으로 약 170억불(GDP의 2%)의 정부 재정 확보가 가능하여 도로 및 자원 확보 관련 인프라 구축, 빈부격차 해소 및 고용증대에 정부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중장기 경제전망이 달라질 전망이다.

□ 산적한 내부과제 해결 요망

'08년부터 콩, 옥수수, 사탕수수 등 주요 농산물 NAFTA 전면개방에 따른 농가 및 관련산업 피해, 개발 자원 투입 부족에 따른 원유 시추량 감소, 세제개혁에 따른 일시적 실업을 증가는 시장경제에 직접적 효과는 물론, '09년 중순에 있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할 경우에만 현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향후 경제 개혁 기초를 뒷받침할 정치적 원동력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3) 경제 지표 별 현황

경제 성장

구 분	단 위	2004	2005	2006	2007(추정)
경제성장률	%	4.2	3.0	4.8	3.0
GDP	U\$억	6,300	7,687	8,400	8,792

자료원: EIU, 멕시코중앙은행, 2007.12

미국경기 하강과 더불어 수출의 80%이상을 미국에 집중하고 있는 멕시코 경기 또한 하강국면에 진입, 상반기 2.7%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연 평균 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경제성장률은 2.8%로서 미국의 실물 경기 하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 주도 인프라건설에 따른 경기가 진작될 경우 3.2%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INPC)

구 분	단 위	2004	2005	2006	2007(추정)
물가상승률	%	5.2	3.3	4.05	3.8

자료원: 멕시코중앙은행, EIU, 2007.12

정부의 '07년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3.0%이나, '07년 연간인플레이션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원인은 年初의 식품 가격 및 유가 급등, 서비스요금 인상, 10월 세제개혁에 따른 가솔린 및 디젤 세금 인상에 기인한다.

2008년은 지속되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자 물가(5.0%) 상승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농산물 NAFTA 전면개방에 따른 식료품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여 3.6%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예상된다.

임금인상 및 실업률

구 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추정)
임금인상률*	%	-0.55	0.4	0.4	0.4
실업률*	%	3.92	3.58	3.58	3.7

자료원: 중앙은행, 노동부, EIU, 2007.12

주1: 임금 인상률은 향후 12개월의 인플레이션 예상치 및 해당 기간의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수치임

주2: 실업률은 완전실업률 기준임

2007년 예상 실업률은 3.7%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은 상반기 중 세제개혁에 대한 대기업의 부담으로 인해 일시적 실업률 증가, NAFTA 농산물 전면 개방에 따른 농업 및 식품 가공업계의 실업, 그리고 미국의 불법 노동제재에 따른 실업자 증가가 예상되나 공공건설부문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어 연평균 실업률은 3.8%로 전망된다.

금리

구 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추정)
금리*	%	6.84	9.19	7.19	7.2

자료원: 중앙은행, EIU, 2007.12

주: 금리는 재무부 채권 - TREASURY BILL 28일물 기준 연 평균치임

중앙은행은 연초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4월 금리를 0.25% 인상한 이후로 7% 중반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에는 미국의 경기 부양 금리정책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과 동시에 국내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수지 부문

구 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추정)
교역	수출	U\$억	1,886	2,137	2,502	2,691
규모	수입	U\$억	1,971	2,213	2,561	3,044
무역(상품)수지		U\$억	-85	-76	-58	-221
경상 수지		U\$억	-66	-49	-18	-165

자료원: 중앙은행, EIU, World Bank, 2007.12

□ 무역 수지

2007년 멕시코의 예상 무역규모는 사상 최대인 5,867억불로서 GDP의 66.7% 수준에 달하고 있다. 수출은 7.6% 늘어난 2,691억불로서 미국의 수입 수요 감소, 원유수출 증가율(1%) 둔화 등으로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수입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2,800억불이 예상되며 약 109억불의 무역적자가 예상된다.

2008년은 미국의 소비둔화 지속에 따른 수출감소 및 활발한 내수 경기에 따른 수입증가로 221억불의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 경상수지

2007년 경상수지는 46억불의 적자가 예상된다. 무역수지 적자와 더불어 무역외 수지 적자(-184억불 예상)때문이다. 이전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거주국민 송금액(+247억불 예상)은 올해 들어 최근 수년간 지속되었던 증가세를 멈추었는데 미국의 불법이민 집중 단속으로 인한 이민자 감소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경상수지는 수출 대비 수입 증가 및 미국의 폐쇄적인 이민정책에 따른 이전수지 증가 둔화로 165억불의 적자가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

구 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추정)
외국인 투자	직접투자	U\$억	223	197	190	245
	간접투자	U\$억	26	66	64	47
	총액	U\$억	250	264	255	292

자료원: 경제부, Banamex, OECD, 무역관 종합, 2007.12

주: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신고액 기준임

2007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액 기준으로 29% 증가된 245억불이 예상된다. 직접투자 분야는 제조업(51%)과, 금융업(25%)이 주를 이루며, 미국(50%), 네델란드(13%), 스페인(10%), 프랑스(9%)순으로 투자가 예상된다.

2008년은 주요 투자자인 미국의 소극적 행보와 국내 투자환경 개선효과가 상쇄되어 완만한 성장(7.8%)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 및 외채

구 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추정)
외환 보유고	U\$억	615	687	763	853
총 외채	U\$억	1,704	1,672	1,647	1,713

자료원: 중앙은행, EIU, 무역관 종합, 2007.12

외환보유고는 2007년 853억불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외채 또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외환보유고와 외채 예상액은 각 895억불, 1,743억불로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실물경제의 급격한 하락시 무역적자 확대 및 투자유입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율

구 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추정)
연평균 환율	페소/U\$1	11.28	10.90	10.91	1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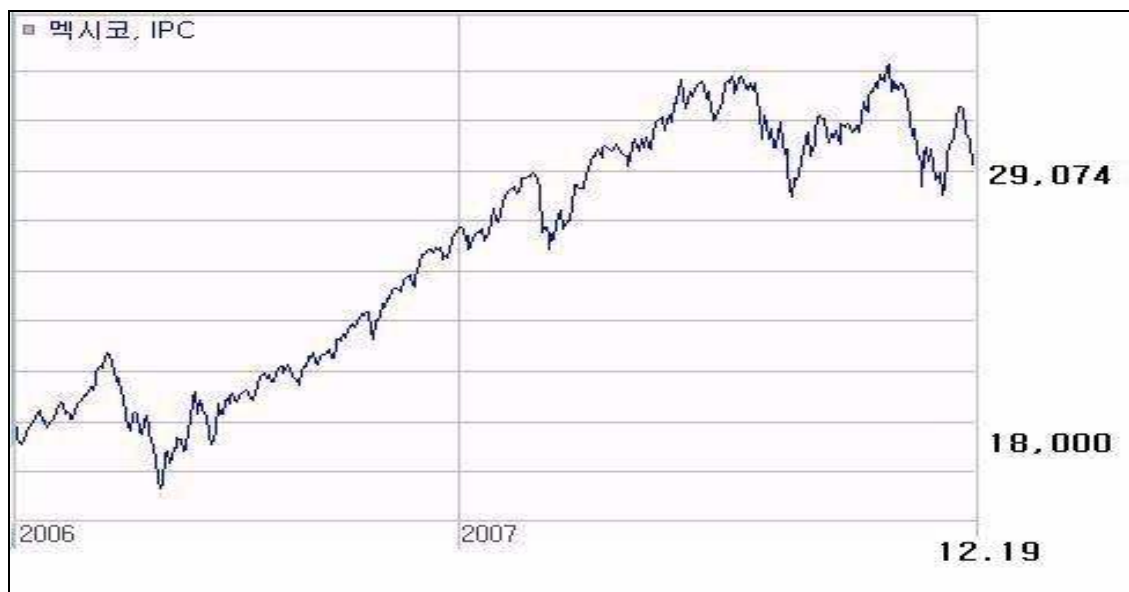
자료원: 중앙은행, EIU, 무역관 종합, 2007.12

2007년 예상 연평균 환율은 달러 당 10.92 페소로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페소화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국제적인 금융시장 악화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의 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에도 외환보유고 및 지속적 외국자본투자를 바탕으로 한 환율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전세계적 달러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와 연동하는 멕시코 경제의 특성상 對 달러 페소화 가치는 현상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08년 증시의 조정내지 하락장이 지속될 경우 외국자본의 투자회수에 따른 급격한 페소화 가치 하락 가능성도 있다.

주가

(‘06~’07년 간 주가지수 (IPC) 변동 추이)



자료원: 멕시코 주식시장 (Bolsa Mexicana de Valores), 키움증권, 2007.12

2006년 벽두를 18,000포인트로 시작한 멕시코 주가지수(IPC)는 2007년 12월 19일 종가 기준 29,074포인트를 기록하여 2년간 61.5%이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3/4분기 1,785억달러)가 심화되고 서브프라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변동 폭이 커지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주가지수는 해외변수로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중국발 공급인플레이션에 대한 주요 국가 및 기관 투자자의 대응, 국내변수로서 실물경기의 회복 및 유동자금의 주식시장 투입여부에 따라 비교적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수혜주는 세계적 철강 경기에 힘입은 철강주, NAFTA 농산물 개방 관련주, 인프라 구축관련 건설주(시멘트 등 자재 포함) 및 M&A관련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산업 부문별 성장

멕시코 산업 부문별 성장 추이

(단위: %)

구 분		2005 (성장률)	2006 (성장률)	2007(1~9월)	
				성장률	비중
전 체		2.8	4.8	3.0	100
농림어업		-1.5	4.8	3.0	4.8
산 업		1.7	5.0	1.1	24.6
	- 제조업	1.2	4.7	0.7	17.8
	- 광 업	1.2	2.2	0.4	1.2
	- 건 설	3.3	6.9	1.9	1.9
	- 전력, 가스, 수도	1.4	5.0	3.5	1.7
서비스업		4.0	4.9	4.0	66.4
	- 소매, 식당, 호텔	3.1	3.7	2.3	19.5
	- 교통, 물류, 통신	7.1	9.1	8.1	13.4
	- 금 융	5.8	5.4	4.9	16.8
	- 공공서비스	1.8	2.8	2.0	16.7

자료원: 멕시코통계청(INEGI), 중앙은행, 2007. 12

주) 2007년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007년 1~9월 분야별 성장률을 보면 농림어업 부문 3.0%, 산업부문 1.1%, 서비스업부문 4.0% 등 전체적으로 저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산업분야는 미국 수입수요 감소에 큰 영향을 받으며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비중이 가장 높은 서비스분야의 성장률은 4.0%로서 교통, 물류, 통신(8.1%)부문이 성장을 견인하였다.

2008년은 NAFTA 전면 개방에 따른 농업분야의 비중 축소, 정부가 주도하는 교통인프라 관련 건설 및 이에 따른 교통, 물류, 통신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 산업의 성장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제조업

멕시코 제조업은 1994년 NAFTA 발효 이후 대미수출용 마킬라도라(maquiladora, 수출임 가공) 활동을 통해 급격하게 성장해왔으며, 초기에 주로 미국과의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마킬라도라 지대가 형성되었으나,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전자산업은 Guadalajara, 자동차 부품은 Saltillo-Monterrey, TV생산은 Tijuana-Mexicali, 섬유는 Puebla, Tlaxcala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중 생산, 수출, 투자, 고용 면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주요한 산업으로서 전체 GDP의 2.6%, 제조업 생산의 14%, 외국인 투자(FDI)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멕시코시티 중심 및 미국과의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멕시코의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은 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섬유, 의류, 컴퓨터 및 전자제품 등에서 대미 수입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한 낮은 물류비용 및 납기 준수 등에서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이런 지리적인 이점이 경쟁국보다 높은 노동비용을 상쇄하고 있다.

멕시코 제조업은 미국의 경기변화 및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2001-2003년의 미국 경기 침체 시 동반 경기 하락을 경험한 이래 2003년 말부터 2006년 까지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2007년 상반기에는 다시 하락세를 기록, 하반기에는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다.

다. 건설

건설업은 전체 GDP의 4%, 고용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까지 최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5년 2.9%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2006년 주택건설 붐이 일고 공공인프라 건설이 확충되면서 6.9%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07년에는 2%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부문은 35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산업이며, 비공식 부문은 물론 다른 분야로의 파급효과도 커 멕시코 실업문제 해소에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 분야이다.

2007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교통통신부(SCT)의 연방 고속도로 보수공사 등 신규 사회 인프라 공사가 발표되었으나 계획에 비해 실제 공사는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2008년 상반기부터 대규모 정부 공사 입찰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광업

멕시코는 세계적인 원유 및 은, 천정석 등 각종 광물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며, 1990년대 초부터 민영화 및 외국인투자 개방을 통해 다수 외국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나, 원유 부문은 아직 민영화되지 않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2년까지 국제광물가격이 낮아 멕시코광산업 또한 주춤하였으나 2002년 말부터 구리, 은, 아연, 철 등 주요 광물의 국제가격이 급등하면서 멕시코 광업 또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멕시코 광업분야 투자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원유 및 광물자원 보유 및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멕시코는 세계 10위권내에 드는 원유 생산국이며, 전체 원유 수출량의 80%가량이 미국에 수출되고 있다. 에너지 부에 따르면, 멕시코의 원유 매장량은 141억 배럴이며, 멕시코 안에서 석유탐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2,500개의 유정을 탐사했으며, 그 중 362개가 개발 가능 한 곳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5년을 기점으로 멕시코 원유생산량은 최대유전인 Cantarell의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규유전 채취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나 현재 멕시코석유공사(Pemex)는 사업여력이 없어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이다.

마. 기타

멕시코는 NAFTA 출범 이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대형 유통 마트 위주로 소매시장이 변화해 왔으며, 멕시코 유통시장은 Walmart 대 국내기업(Comercial Mexicana, Gigante, Soriana, Chedraui 등)의 양대 구조로 편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멕시코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식민지 및 원주민 문화유적을 보유한 국가로서 중남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이며, 2006년에 연간 2,135만 명의 관광객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관광객의 80%이상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교통, 물류, 통신 서비스업 분야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동통신과 유선 통신의 이용 증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멕시코 FTA 체결 현황

멕시코는 1994년 NAFTA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방정책에 돌입, 2007년 현재 12개 FTA 협정을 통해 42개국과 조약을 맺고 있다. 최근에는 외교마찰로 인해 '06년 11월 베네수엘라가 G-3 협정에서 탈퇴하였다.

2003년 말 NAFTA 체결 10주년을 맞아 주요 산업계에서는 그 동안 체결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경제부는 당분간 더 이상의 추가 FTA 협상은 없고, 기존 FTA 내실화에 집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2006년 12월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이끄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 한국을 비롯한 페루, 파나마 등과의 FTA 체결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멕시코의 수출구조는 대미수출이 전체 수출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등 여전히 대미 의존도가 심해 수출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멕시코 국가별 FTA 체결 현황

협정명	대상국가	발효일
NAFTA	미국, 캐나다	1994.1.1
G3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06.11 탈퇴)	1995.1.1
멕시코-코스타리카 FTA	코스타리카	1995.1.1
멕시코-볼리비아 FTA	볼리비아	1995.1.1
멕시코-니카라과 FTA	니카라과	1998.7.1
멕시코-칠레 FTA	칠레	1999.8.1
멕시코-유럽연합 FTA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키프로스, 덴마크,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레토니아,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영국, 스웨덴	2000.7.1
멕시코-이스라엘 FTA	이스라엘	2000.7.1
TN FTA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2001.3.15(엘살바도르) 2001.6.1(온두라스)
AELC FTA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2001.7.1
멕시코-우루과이 FTA	우루과이	2004.7.15
멕시코-일본 FTA	일본	2005.4.1

자료원: 경제부, 2007.12

나. 경제보완협정 체결

멕시코는 중남미 6개국과 경제 보완협정(ACE: Acuerdos de complementación económica)를 체결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국가간 특정상품에 대한 저율관세 부과, 원산지규정, 세이프 가드 운영 등이다.

□ 멕시코 경제보완협정 체결 국가

- 브라질(1980년), 파라과이(2000년), 우루과이(2002년), 아르헨티나(1980년), 남미시장 공동체(Mercosur, 2001년), 칠레(1992년)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멕시코 교역 현황

□ 부문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단위 : US\$ 백만)

분류	연간 2006	1~10월		증가율 2006	증가율 (B/A)
		2006 (A)	2007 (B)		
전체수출	249,997	209,021	224,270	16.69	7.30
원유부문	39,022	33,501	33,841	22.36	1.01
- 원유	34,707	29,802	29,625	22.51	-0.59
- 기타	4,315	3,700	4,216	21.16	13.95
비원유부문	210,975	175,519	190,429	15.70	8.49
- 농축산물	6,853	5,572	6,074	14.05	9.01
- 광물	1,317	1,070	1,393	12.77	30.13
- 제조업	202,806	168,877	182,962	15.78	8.34
전체수입	256,130	212,380	233,591	15.47	9.99
- 소비재	36,972	30,076	34,850	17.32	15.88
- 중간재	188,634	157,454	170,866	14.96	8.52
- 자본재	30,525	24,851	27,875	16.44	12.17
무역수지	-6,133	-3,359	-9,321	-19.16	177.47
원유제외무역수지	-45,155	-36,861	-43,162	14.38	17.10

자료원: 중앙은행 (Banco de México), 2007. 12

□ 국가별 수출입 (상위 10개국)

멕시코의 수출 주요국 및 점유율 현황

(단위: 억불, %)

국 가		2005		2006		2007 (1~8월)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총 계		2,139	100	2,504	100	1,750	100
1	미 국	1,834	85.7	2,122	84.76	1,447	82.68
2	캐나다	42	2.0	51	2.07	41	2.35
3	독 일	22	1.1	29	1.19	25	1.4
4	스페인	28	1.4	32	1.31	23	1.3
5	콜롬비아	15	0.7	21	0.85	18	1.04
6	베네수엘라	12	0.6	17	0.71	14	0.8
7	브라질	8.8	0.42	11.4	0.48	13	0.73
8	네덜란드	8	0.37	13	0.53	12	0.67
9	일 본	14	0.7	16	0.64	12	0.71
10	중 국	11	0.5	16	0.68	12	0.68

자료원: World Trade Atlas, 2007. 12

○ 멕시코 국별 수출동향

- 대미 수출 점유율은 82.68%를 기록, '04년 88.5%를 차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미 수출액은 1천4억불을 상회하나 나머지 국가에 대한 수출액은 2백억 불에도 못 미치는 불균형적인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멕시코의 주요국별 수입 동향

(단위: 억불, %)

국 가		2005		2006		2007(1~8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2,214	12.22	2,562	15.71	1,820	9.7
1	미 국	1,184	6.7	1,304	10.17	911	6.07
2	중 국	176	21.8	244	38.64	187	24.53
3	일 본	130	22.4	152	17.44	105	8.63
4	한 국	65	22.6	106	64.24	75	15.61
5	독 일	86	21.0	94	8.91	69	10.87
6	캐나다	62	15.5	73	19.66	50	7.15
7	대 만	40	15.3	49	22.95	39	18.9
8	이탈리아	35	23.9	41	17.54	39	46.47
9	브라질	52	19.9	55	6.67	35	-2.75
10	말레이시아	36	6.7	44	23.06	31	10.41

자료원: World Trade Atlas, 2007. 12

주) 2007년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수치임.

멕시코의 주요국별 수입 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

국 가		2005	2006	2007(1~8월)
1	미 국	53.5	50.92	50.09
2	중 국	8.0	9.54	10.25
3	일 본	5.9	5.97	5.74
4	한 국	2.9	4.14	4.13
5	독 일	3.9	3.68	3.78
6	캐나다	2.8	2.88	2.76
7	대 만	1.8	1.94	2.12
8	이태리	1.6	1.6	2.12
9	브라질	2.4	2.17	1.94
10	말레이시아	1.6	1.75	1.72

자료원: World Trade Atlas, 2007. 12

□ 품목별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

멕시코 10대 수출품목

(단위: US\$백만)

HS 2단위	품 목	2005	2006	2007(1~8월)
	전 체	213,995	250,460	175,015
85	전기기기	51,782	61,705	43,740
87	자동차 및 부품	32,149	39,495	26,892
27	광물성연료	31,989	38,989	25,969
84	기계류	28,855	32,660	23,208
90	광학기기	7,656	8,664	5,752
94	가구류	5,694	5,893	3,817
39	플라스틱	4,567	4,987	3,524
73	철강제품	3,208	3,833	2,676
07	식용채소	3,459	3,695	2,633
72	철강	2,836	3,044	2,459

자료원: World Trade Atlas, 2007. 12

멕시코 10대 수입품목

(단위: US\$백만)

HS 2단위	품목 전체	2005 221,414	2006 256,205	2007(1~8월) 181,982
85	전기기기	47,976	56,521	37,520
84	기계류	35,932	39,884	28,600
87	자동차 및 부품	22,150	25,098	17,222
27	광물성연료	12,167	14,476	11,968
39	플라스틱	14,301	15,942	10,742
90	광학기기	6,981	9,914	8,042
72	철강	5,610	6,972	4,793
29	유기화학품	5,567	6,078	4,571
73	철강제품	5,486	6,255	4,376
48	종이류	3,950	4,513	3,087

자료원: World Trade Atlas, 2007. 12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국과의 무역통계 총괄

우리나라의 對 멕시코 수출은 2000년 37.8억불을 기록한 이후 증가하고 있다. 2001년 29%의 감소를 기록한 이후 2003년부터 對 멕시코 수출 증가세가 회복 추세를 보여왔으며 2006년에는 전년대비 65%가 증가한 62억불을 기록, 멕시코는 한국의 8대 수출 국으로 부상하였다. 對 멕시코 수입의 경우, 2004년 4.1억불에 이어 2005년에는 4.6억불로 전년대비 12.2% 증가를 기록하였다. 2006년 對 멕시코 수입은 전년대비 73.5% 증가한 7.9억불을 기록, 양국간 교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對 멕시코 무역수지는 계속 흑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2007년 10월까지 53억 불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60%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2007년 10월 현재 61억 2,700만 불의 수출을 기록, 전년 대비 16.3%라는 비교적 저조한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액정디바이스(126% 증가), 자동차부품 (204% 증가)가 눈에 띈다. 對 멕시코 수입 또한 동 기간 중 8억 2,500 만 불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3.4%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주로 미정제 동괴(8.9%), 고철 (3,343%), 기타유선전송장치(28.4%), 알루미늄스크랩(83.2%)의 수입 증가에 기인한다.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90년대 후반부터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멕시코는 1999년에 처음으로 중남미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현재 중남미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양국간 교역 추이

(단위: US\$백만, %)

연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1	2,149	-10.1	267	-29.4	1,882
2002	2,231	3.8	295	10.8	1,935
2003	2,455	10.09	334	13.0	2,121
2004	2,994	22.0	411	23.2	2,583
2005	3,789	26.6	460	11.8	3,329
2006	6,285	65.9	798	73.5	5,486
2007(1~10월)	6,127	16.3	825	23.4	5,301

자료원: KOTIS, 2007.12

마. 한국과의 품목별 수출입 동향

對 멕시코 수출 제품 중에는 멕시코에 투자 진출한 한국 가전회사들의 전자부품 수요로 TV 부분품 등 전자부품 수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휴대폰, PDP TV 등 완제품도 우리나라의 對 멕시코 수출품목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기업에 한해 수입을 허용해 왔던 "자동차 산업 진흥 및 현대화 법령"이 2004년 1월에 폐지되면서 수입 자유화가 되었으나, 비 FTA체결국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로 사실상 직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대의 경우 다임러 크라이슬러와 제휴하여 멕시코 시장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데 2000년 11월부터 다임러 크라이슬러(Daimler Chrysler)가 GM, FORD 소형차와 경쟁을 위해 현대 자동차 Atoz를 수입하면서 소형차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되어 왔으며, 2003년 하반기부터 현대 자동차 Verna, H100 등 추가모델이 수입되면서 판매를 확대 하고 있다. 2003년 3분기부터 GM에서 한국의 MATIZ를 수입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對 멕시코 주종 수입품목을 보면 미정제동과, 아연광, 동스크랩 등 광물, 무선통신기기부품, 유선전송장치, 쇠고기 등 자원과 식품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對 멕시코 10대 수출품목

(단위: US\$ 천, %)

순위	MTI 6단위	품목명	2006		2007(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284,571	65.9	6,126,675	16.3
1	836110	액정디바이스	1,096,544	723	1,832,239	125.5
2	821170	칼라TV부품	1,509,119	57.4	1,239,461	-7.0
3	812130	코드 분할식 전화기	0	-	244,385	-
4	742000	자동차부품	99,715	72.2	239,587	203.8
5	741160	불꽃점화식 1,500cc 초과	0	-	229,666	-
6	812890	기타 무선통신기기부품	336,724	80.5	225,816	-21.6
7	613410	용융아연도강판	79,385	59.8	117,556	76.9
8	813420	데이터디스플레이장치	132,369	14.8	97,104	-16.3
9	812190	기타 무선전화기	0	-	83,683	-
10	214005	폴리스티렌	136,774	-3.6	77,894	-35.2

자료원: KOTIS, 2007.12

對멕시코 10대 수입품목

(단위: US\$천, %)

순위	MTI 6단위	품목명	2006		2007(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797,651	73.5	825,372	23.4
1	622110	미정제동과	133,443	160.2	118,714	8.9
2	116000	아연광	91,159	-	74,504	-18.3
3	619130	슬랩	0	-	44,824	-
4	811390	기타유선전송장치	39,447	35.3	43,957	28.4
5	622130	동스크랩	47,409	438.8	42,526	12.8
6	812890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42,145	81.5	36,613	2.9
7	122000	소금	34,742	6.4	29,091	0.7
8	618400	고철	1,347	1,225.30	20,315	3,343.1
9	815400	자동제어기부품	22,830	108.8	19,250	0.9
10	621120	알루미늄스크랩	11,553	372.9	16,359	83.2

자료원: KOTIS, 2007.12

3. 수입규제제도

가.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관련 품목(아래 표 참조)
- 종류: 수입허가

나. 현황

- 관련 규정
 - WTO Marrakech 협정 1, 2조 및 통상법 3항 4조, 5조(Artículos 4, 5 fracción 3 de la Ley de Comercio Exterior)

수입쿼터(Cupos) 제한

☐ 모든 국가 대상 수입쿼터 (하기 항목 지정국가 제외)	
○ 귀리 (재배용 제외)	
- HS Code: 1004 0099, 수량: 140,000,000Kg, 만료 기간: 2007. 12. 31(2008년부터 완전 개방)	
☐ 대 미국 제한수량	
○ 옥수수(재배용 제외)	
- HS Code: 1005 9003, 1005 9004	
- 수량: 3,605,524,282Kg, 만료 기간: 2007.12.31 (2008년부터 미국산 완전개방)	
○ 장난감	
- HS Code : 9501.00.01, 9501.00.03, 9501.00.99, 9502.10.01, 9502.10.02, 9502.10.99, 9503.10.01, 9503.20.01, 9503.20.02, 9503.20.03, 9503.20.99, 9503.30.01, 9503.30.99, 9503.41.01, 9503.49.01, 9503.49.02, 9503.49.99, 9503.50.01, 9503.80.99, 9503.90.01, 9503.90.02, 9503.90.04, 9503.90.05, 9503.90.06, 9503.90.10, 9503.90.99, 9504.30.99, 9504.40.01, 9504.90.01, 9504.90.02, 9504.90.04, 9504.90.06, 9504.90.99, 9505.90.99, 9506.59.99, 9506.62.01, 9504.40.01, 9504.90.01, 9504.90.02, 9504.90.04, 9504.90.06, 9504.90.99, 9505.90.99, 9506.59.99, 9506.62.01, 9506.69.99, 9506.70.01, 9506.99.06, 9506.99.99,	
- 수량: US\$ 1,615.911, 만료 기간: 2007.12.31(2008년부터 미국산 완전개방)	
-	
○ 설탕 및 당밀	
- HS Code : 1701.11.01, 1701.11.02, 1701.11.03, 1701.12.01, 1701.12.03, 1701.91.01, 1701.99.01, 1701.99.02, 1701.99.99, 1702.90.01, 1806.10.01, 2106.90.05	
- 수량: 14,516,000 Kg, 만료 기간: 2007.12.31(2008년부터 미국산 완전개방)	

자료원: 경제부

수입허가제도(import licensing) 운영 품목

품목(분야)	내 용
석유 함유 제품	국영석유공사(PEMEX)의 공식의견서 필요 LP가스의 경우 에너지부 의견서도 필요
무기류, 폭발물, 군사 차량	국방부(SEDNA) 공식의견서 필요
중고 의류	내무부(Secretaria de Gobernacion) 공식의견서 필요
재생용 중고 타이어	재생 담당 업체에 대한 상세 내역서 필요
자동차 반제품 일시 수입 시	자동차 반제품을 수입, 멕시코에서 완성 후 다시 수출할 경우, 동반 제품 수입을 위한 수입허가 필요
해외공관 직원 차량	외무부의 증빙서류 및 재무부에서 발행한 임시수입허가증 사본제출
장애회용 차량	최근 6개월 이내 공식의료기관에서 발행된 건강증명서(장애 상세 내용 포함)
방탄 차량	방탄관련 멕시코 품질협회(NORMEX) 증명서 필요
견인차	제조업회의소(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 Transformacion) 에서 발행된 동 제품의 국내생산이 없다는 증명서 필요
치즈 및 유제품	유제품산업협회나 제조업협회의 의견서 제출 필요
중고컴퓨터	초 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용으로 수입할 경우, 교육부의 허가서 필요
시가, 캐러멜, 껌	수입 첫 해는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수입 두 번째 해부터 수입내역에 대한 세관서류를 사전 제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자료원: 경제부

수입감시(import monitoring) 운영 품목

품목(분야)	내 용
석유화학제품	헌법상에 제한되어 있는 제품
모터, 차량	수입제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 요소가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 실시
총기류	헌법상에 제한되어 있는 제품
중고 기계류	중고제품이 관련 멕시코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및 최종 목적지 모니터링
중고 의류	중고제품이 관련 멕시코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및 최종 목적지 모니터링
중고 컴퓨터	중고제품이 관련 멕시코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및 최종 목적지 모니터링

자료원: 경제부

수입 금지(import prohibition) 운영 품목

품목(분야)	내용	비고
살아있는 생선	농어, 송어, 미꾸라지, 메기, 붕어, 노래미, 붕어, 연어, 초어, 민어	Hs Code 03019901에 해당되는 생선
종자와 분과 조분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	Hs Code 1208.9003, 1209.9907
마리화나	마리화나 종자 및 관련제품	Hs Code 1211.9002, 1302.1102 1302.1903, 1302.3904
화학제품		Hs Code 2903.5903, 2903.5903, 2903.5905, 2910.9001, 2925.1901, 2931.0005, 2929.1101, 3003.4001
멸종위기 동물	거북이, 거북이 알, 까구아마 자라	Hs Code 4103.2002
폭력적인 이미지의 전사지(디칼카매니어)	폭력적인 장면이 담긴 아동용 디칼카매니어	Hs Code 4908.9005, 4911.9105

자료원: 경제부

수출세(export tax) 운영 품목

품목(분야)	내용	비고
조개 및 갑각류 껍질	조개, 갑각류 껍질, 거북이 껍질 등에 50%세금 부과	Hs Code 0507.9001
고고학, 사학 수집품과 표본	공공교육부에 의해 고고학적 유물로 지정되지 않은 수집품과 표본. 50% 세금 부과	Hs Code 9705.0006
100년 이상된 골동품	50% 세금 부과	Hs Code 9706.000

자료원: 경제부

수출허가제 운영 품목

품목(분야)	내용	비고
석유관련제품	국영석유공사(PEMEX) 공식의견서 필요	LP가스의 경우 에너지부의 의견서도 필요
화폐, 금	중앙은행 공식 의견서 필요	
옥수수 가루	수출물량이 국내 옥수수가루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증빙서류 필요	
거북이 및 야생동물 가죽	수산자원부(SEMARNAT)의 공식적인 의견서 필요	
야생동식물	수산자원부의 야생동식물국의 기술적인 의견서 또는 농산부 농업개발국의 의견서 필요	

자료원: 경제부

수출금지제도 운영 품목

품목(분야)	내용	비고
살아있는 생선	농어, 송어, 미꾸라지, 메기, 노래미, 붕어, 연어, 초어, 민어 등	Hs Code 03019901에 해당되는 생선
종자와 분과 조분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	Hs Code 1208.9003, 1209.9907
마리화나	마리화나 종자 및 관련제품	Hs Code 1211.9002, 1302.1102 1302.1903, 1302.3904
화학제품		Hs Code 2903.5903, 2903.5905, 2903.5905, 2910.9001, 2925.1901, 2931.0005, 2929.1101, 3003.4001
멸종위기동물	거북이, 거북이 알, 까구아마 자라	Hs Code 4103.2002
폭력적인 이미지의 전사지(디칼커매니어)	폭력적인 장면이 담긴 아동용 디칼커매니어	Hs Code 4908.9005, 4911.9105
역사유물	공공교육부에서 고고학적 유물로 지정된 역사적인 물품	Hs Code 9705.0005

자료원: 경제부

수출 쿼터(생산량 제한 등) 운영 품목

품목(분야)	내용
정제 설탕	쿼터 2,954,000kg
비정제 설탕	쿼터 7,258,000kg

자료원: 경제부

다. 비관세 장벽**1) 표준규격제도(Norma Oficial Mexicana: NOM)**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는 7000개 이상으로 변경이 잦으며 공표기간도 충분하지 않는 등 사전 대비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수입규제 수단으로 이용된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전품목
- 종류: 기술장벽

□ 현황

- 관련 규정: 계측표준법 (Ley de Metodología y Normatización)
- 멕시코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표준규격제도(Norma Oficial Mexicana, NOM) 실시하고 있다.
 - 1994년 3월부터 대상품목을 81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확대, 2007년 12월 현재 총 7,200여개의 표준규격 제도가 운영 중이다.

□ 영향 및 문제점

- 빈번한 개정 및 충분하지 못한 준비기간
 - 관련 규정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NOM에 관한 규정 개정시, 공고 후 다음 날부터 시행 하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2) 현지 조립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의 완성차 수입제한

멕시코 현지 조립생산시설을 보유한 자동차 생산 기업만 수출실적에 비례하여 완성차 수입허가를 함으로써 현지공장이 없는 업체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기계(자동차)
- 종류: 수입허가

□ 현황

- 규정
 - 자동차산업 진흥 및 현대화 법
- 1990년 1월 1일부터 멕시코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수출실적의 일정 범위 내에서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 완성차업체의 수출실적의 일정비율(현재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완성차 대수의 10%)에 의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 멕시코 현지 생산라인이 없거나 FTA 미 체결국에 대해서는 50%의 고 관세를 부과하여 현실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하다.
 - 무관세 수입율은 멕시코 내 연구센터 건립 등 인프라 추가건설에 따라 증가 가능하다.

□ 영향 및 문제점

- 현지 공장이 없는 우리나라는 직접수출 가능성 원천봉쇄되고 있다.
 -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다임러크라이슬러를 통해 Atoz, Verna 등을, GM 대우는 GM을 통해 Matiz를 일부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중고차 수입금지

중고차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특정국가의 중고차만 허용하여 특혜 부여 성격이 짙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기계(중고자동차)
- 종류: 수입허가

☐ 현황

- 관련 규정: 세관 개혁 및 보완 법령 137조 (El Decreto por el que se reforman y adicionan diversas disposiciones de la Ley Aduanera, artículo 137)
- 중고자동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오는 2009년부터 NAFTA 협정국인 미국, 캐나다에 대해 수입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 영향 및 문제점

- 국내산 중고차 수출이 불가능하다.

4)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요구 및 한국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

신발, 섬유류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멕시코에서 작성한 특별한 양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섬유(섬유, 신발)
- 종류: 원산지표시

☐ 현황

- 관련규정: 통상법 9, 10, 11, 66조, 별첨 3(Ley de Comercio Exterior Fracción 9, 10, 11, 66, Anexo 3)
- 신발, 섬유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 외에 추가적인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및 WTO 비회원국의 신발 및 섬유류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한다.

☐ 영향 및 문제점

- 일부 섬유류와 신발류에 대해 한국산 원산지 증명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5) 근거 없는 이중 세관검사와 자국 업체가 수입검사 대행

일차 세관검사를 마쳤으나 세관 당국에 의해 부정 의혹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재검사를 시행한다. 이 때 자국 제조업체로 하여금 수입검사 대행을 허용함으로써 불투명성의 여지가 있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전체
- 종류: 통관절차

□ 현황

- 관련 규정: 세관법 2조 8항, 44조, 45조(Ley Aduanera Artículo 2, Fracción 8, Artículo 44, 45)
- 통관 과정에서 이미 세관검사를 마친 물품에 대하여 다시 세관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 멕시코에서는 보통 '부정의 의혹'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 같은 재검사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 그러나 가장 양호한 절차인 'Green'을 적용 받아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까지 재검사를 받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심지어 입항하여 철도운송, 입고까지의 과정에서 3차례나 재검사를 받는 경우 발생
- 세관 2차 검사 시 자국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수입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 영향 및 문제점

- 멕시코 제조업체들이 검사할 경우 영업비밀이 경쟁사들에게 넘어갈 위험성, 검사의 공정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6) 통관서류에 불필요한 정보 요구

통관 시 필요한 각종 서류에 불필요한 사항 기재를 요청 하여 누락 및 기재 오류 등 사소한 실수에도 통관을 보류 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전품목
- 종류: 통관절차

□ 현황

- 관련 규정: 없음
- 각종 서류에 불필요한 기재사항들이 너무 많다.
 - 모든 서류, 라벨링에 납세번호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강제하고 있다.
 - 사소한 사항이라도 누락 시 통관이 보류된다.

□ 영향 및 문제점

- 기재사항이 미비할 경우 통관지연으로 제품 납기 지연 가능성이 농후하다.

7) 자국어 사용 강제 규정

서류작성시 스페인어나 현지통용영어 사용만 강요함으로써 수출업자에게 추가 번역 비용 과 시간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 전 품목
- 종류 : 통관절차

☐ 현황

- 관련규정 명기 : 없음
- 서류작성 시 스페인어 사용을 요구한다.
 - 원칙적으로 스페인어 외에 영어도 사용 가능하나, 실제 세관에서는 스페인어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영어로 작성이 허용되더라도 반드시 현지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 영향 및 문제점

- 스페인어 및 현지 통용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자의 경우 통관서류 작성 시 추가 번역 비용이 발생한다.

8) 최저가격제도를 고정으로 설정하고 차액을 예치금으로 만듦

최저가격을 일정기간 동안 고정가격으로 설정함으로 경기 하강기에 가격을 낮출 수 없어서 시장상실 위험에 노출된다. 최저가격 이하로 통관신청시 차액을 예치금으로 요구한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건축자재, 섬유, 완구 등 수입품목 전반
- 종류: 기타

☐ 현황

- 관련규정: 통상법 2장 1, 2, 3절(Ley de Comercio Exterior Sección 1, 2, 3)
- 대부분 최저가격들이 일정 기간 고정되어 있다.
 - 경기 하강기에 멕시코 기업들은 상품가격을 인하하나, 수입품은 최저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 가격 경쟁력 저하의 위험성이 있다.
- 예치금 요구
 - 최저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통관 신고 시 통관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차액에 대한 관세 상당액을 예치금(FINANZA)으로 예치토록 하고 있다.

☐ **영향 및 문제점**

- 최저 가격제로 인한 불이익들을 피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최저가격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들만을 골라 수입하고 있다.

9) 관세율 수시변경으로 인한 가격결정의 어려움

관세율이 예고 없이 수시로 변경되어 가격 결정 정책에 혼선이 발생하여 적절한 수준의 가격을 맞추기 힘들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전품목
- 종류: 기타

☐ **현황**

- 관련 규정: 없음
- 예고 없는 관세율 수시 변경
 - 품목별 관세율 변경이 있을 경우 특별한 예고 없이 관보(Diario Oficial)에 해당사항 게재한다.
 - 문제는 관세율 변경이 관보게재 익일부터 적용된다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없다는 것이다.

☐ **영향 및 문제점**

- 판매 가격을 미리 설정하기 곤란
 - 판매가격에 관세가 포함되므로 관세를 모르는 경우 판매가격 책정이 어렵다.

10) 에어컨에 비합리적인 표준·규정 적용으로 진입 장벽이 생김

에어컨 강제인증 시 국제표준 보다 높은 에너지 효율성 요구로 멕시코만을 위한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 필요가 있음으로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전기·전자(에어컨)
- 종류: 기술장벽

☐ **현황**

- 관련 규정: 멕시코표준규격제도(NOM-011-ENER-2002)
 - 멕시코의 에어컨 강제 인증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국제 기준에 비해 너무 높게 설정: 에너지 관련 규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품의 정격 에너지 표기치의 95% 이상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나 멕시코에서는 100%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 영향 및 문제점

-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 사양에 의한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11) 의료기기 수입 허가에 과도한 시간 소모

의료기기 수출허가를 위한 심사에 긴 시간이 소요됨으로 적기에 시장 진출이 어렵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 전기·전자(의료기기)
- 종류 : 기술장벽

□ 현황

- 관련 규정: 멕시코 보건법 제 376조
 - 모든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용품(소모품 포함)이 멕시코에서 수입, 유통, 판매되기 위해서는 멕시코 보건부(Secretaría de Salud)가 발급하는 위생등록증(Registro Sanitario)을 취득해야 한다.
 - 관련규정에 의해 품목허가에 장기간(10월~1년)이 소요된다.

□ 영향 및 문제점

- 품목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시장진출시기를 놓칠 수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가. 2007년 12월 현재 1건의 반덤핑 규제가 진행중이다.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로우멜티드제외)	5503.2001 5503.2002 5503.2003 5503.2099	반덤핑	'92.3.19	'93.8.19	○ 관세율 - 삼양사 제조, 수출시 3.74% - 삼양사 제조, 대우 수출시 14.81% - 제일합섬 제조, 삼성 수출시 4.49% - 기타 32% ○ 참고: 일반관세 9%

주: 상기 품목의 반덤핑조치 기한은 2007.6.7일 까지이나 멕시코 경제부는 '07년 12우리 20일 현재 업계의 조사요구를 이유로 반덤핑관세부과를 철회하고 있지 않다.

나. 2007년 1~11월 중 신규제소 및 조사가 개시된 품목은 없다.

1) 2007년도 수입규제 동향

□ 멕시코의 통상정책 방향

- 멕시코 현 정부의 주요통상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대외무역 시장개방으로 요약된다.
 - 현재 멕시코는 43개국과 12개 FTA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 개방 정책 추진
 - 그 결과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또한 평균 관세는 2006년 관세인하 조치로 11.94%에서 9.77%로 인하되는 등 수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 또한 현 정부는 한국, 파나마, 페루와 새로운 FTA 체결을 논의하는 등 개방적 통상 정책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중국산 제품 반덤핑 관세인하 만료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멕시코 업계 초긴장 상태

-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 멕시코는 신발, 섬유, 의류, 장난감 등 중국산 제품 약 1,300여개 품목에 대해 6년 간 300~1,00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 경제부(SE)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이 2007년 12월로 종료하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가 끝날때까지 반덤핑관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우고 베레스카노(Hugo Perezcano) 경제부 국제통상관행국장은 12월 12일 일간지(La Reforma)와의 인터뷰에서 “불공정거래 신고가 있었던 기존의 17개 분야중 1개(동물약품)를 제외한 16개 분야에서 신고가 다시 접수되었다. 우리는 WTO규정을 준수하면서 16개 분야(섬유, 구두, 장난감, 화학제품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대 18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 하지만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관세 사태는 양국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으로서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5. 관세제도

가. 관세율 체계

- 멕시코 상품분류는 '88년부터 HS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상품 분류는 22개의 SECCION과 98개의 CAPITULO로 구성되며, CAPITULO는 다시 PAR-TIDA, SUBPARTIDA를 거쳐 가장 작은 단위인 12,000개의 FRACCION으로 세분된다.
- 2006년 11월 현재 멕시코의 비 FTA 체결국가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11.2%이며 FTA 체결국가 평균관세율은 1.63%이다.
-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0, 3, 5, 10, 13, 15, 18, 20, 23, 35% 10단계로 되어 있으며, 단계별 주요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 0%: 서적과 같이 교육적 목적에 사용되는 품목, 마킬라도라 및 제조업에 이용되는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및 반제품

- 3-5%: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소량만 생산되는 일부 기계류, 부품
- 10-13%: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장비 부품
- 15-20%: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부 소비재 및 부품류
- 23-35%: 가죽, 신발, 의류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품목

○ 총 수입품목의 50% 이상에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 참고로 멕시코는 HS CODE 8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HS CODE를 위해서는 멕시코 관세책자를 참고해야 한다.

나. 멕시코 관세율 사이트

○ 멕시코 경제부 사이트(SIAVI)에서 HS CODE별로 FTA 체결국 및 미체결국의 관세 확인이 가능하나 동 사이트의 경우 업데이트가 늦은 편이므로, DIA 사이트에서 비FTA국가 (한국)에 대한 최근 관세를 재확인 해볼 수 있다.

○ DIA 사이트의 경우 스페인어판은 유료임. 영어판의 경우 관세검색을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무료 정보인 관계로 FTA체결국 관세율, 반덤핑관세 등 상세내역이 제공되지 않는다.

- 경제부: http://www.economia-snci.gob.mx/sic_sistemas/siavi/entrada.php

- DIA : <http://www.diaenlinea.com.mx/>, <https://www.datacomex.com.mx/>

- 스페인어를 선택한 후에, 왼쪽 메뉴 중에 TAFITA ARANCELARIA MEXICANA EN LINEA를 선택하고, HS CODE를 넣고 검색하면 수입관세가 나오는 부분이 FTA 비체결국, 즉 한국에 해당하는 관세이다.

경제부 사이트 관세 설명 (예)

Aranceles a la importación aplicados por México a:				
	Socios comerciales (tarifa mexicana): FTA 체결국가			
TLCAN	EE.UU.	Canadá		
	Ex.	Ex.		
Triángulo del Norte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Ex.	Ex.	Ex.	
Centroamérica	Costa Rica	Nicaragua		
	Ex.	Ex.		
G – 3	Colombia	Venezuela		
	Ex.	Ex.		
América del Sur	Chile	Uruguay	Bolivia	
	Ex.	Ex.	Ex.	
Unión Europea	Unión Europea			
	Ex.			
AELC	Noruega	Suiza	Islandia	
	EXCL	EXCL	Ex.	
Israel	Israel			
	EXCL			
Japón	Japón			
	Ex.			
	Países no socios: FTA 미체결 국가			
	Arancel Nación Más Favorecida (NMF): 10 %			

주: EX: 0%, EXCL: 협정에서 제외

6. 주요인증제도

가. 멕시코 공식표준(NOM) 마크 제도 개요

1) 제도의 성격

멕시코 공식표준 (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 마크 제도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완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춰야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로써 동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멕시코의 공식 강제검사 제도이다.

2) 운영배경 및 목적

□ 운영배경

- 대내적 요인
 -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른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품질문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사용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대외적 요인
 - 경제개방 조치 이후 가열되는 국제경쟁과 기술혁신에 맞서 자국 상품의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수입품의 무분별한 자국시장 진입으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 받거나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품질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운영목적

- 소비자 보호 차원
 -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품토 조성하고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및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 검사와 제품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추구한다.
- 산업정책적 차원
 - NOM획득 품목과 비 획득 품목을 차별화함으로써 멕시코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유도함. 생산공정의 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 및 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신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3) 규제지역 (제도 적용지역)

NOM 마크 제도는 멕시코 전역에 걸쳐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수입품의 경우 NOM마크 획득 여부 심사는 관세국(DGA) 또는 일선 세관에서 담당하며 내국 생산품인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청 (PROFECO)에서 NOM 마크 획득여부를 심사한다.

4) 제도 주요내용

□ 안전검사대상 제품 및 라벨링 대상 제품 이원화 운영

멕시코는 한국처럼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전검사대상품목과 사후검사 대상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 해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 충족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즉, 내국산품의 경우 공장출고 이전,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이미 NOM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 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다.

멕시코는 동 제도를 안전검사대상 제품과 라벨링 대상 제품으로 다음과 같이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 안전검사대상 제품: 안전요건 품목 (NORMA DE SEGURIDAD)
 -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및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제품
- 라벨링 대상 제품: 라벨링 요건 품목(NORMA DE ETIQUETADO)
 - 제조 및 상업적 유통정보 등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품목
 - 안전요건 품목과 라벨링 요건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음

나. NOM마크 제도 운영기관 및 방법

1) 주관기관 및 연락처

- 주관: 경제부 표준국(DGN / DIRECCION GENERAL DE NORMAS)
 - 주소: AV. FUENTE DE TECAMACHALCO NO. 6, COL. LOMAS DE TECAMACHALCO, CP. 53950, NAUCALPAN DE JUAREZ, ESTADO DE MEXICO, MEXICO
 - TEL : (52-55) 5729-9300, FAX : 5520-9715
 - WEB : <http://www.economia.gob.mx/?P=85>
 - E-MAIL : lurquiza@economia.gob.mx
 - 담당: C. CIRO LOPEZ URQUIZA JEFE DE DEPARTAMENTO DE CONTROL DE DOCUMENTOS Y DATOS

2) 검사 및 시험기관

□ 개요

- 검사·시험 기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NOM마크 신청 시 안전검사 또는 라벨링 검사 등과 함께 NOM발급을 담당하는 인증기관(INSTITUTO DE CERTIFICACION)과 NOM신청 예비 단계로 이용하게 되는 실험소(LABORATORIO) 등으로 구별된다. 인증 기관과 실험소는 공히 경제부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았다.
- NOM발급을 담당하는 인증기관은 전자부문 표준화 인증 협회(NYCE), 전기부문 표준화 인증 협회(ANCE), 건축자재 표준화 인증기구(ONNCCE), 때깰라 규제원(CRT) 등이 있으나 ONNCCE는 비 강제검사제도인 NMX(NORMA MEXICANA) 마크제도 위주로 운영되며, CRT는 때깰라 단일품목에 한정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멕시코 시장진출 관련 주요 NOM 인증 기관은 NYCE와 ANCE 2대 기관을 꼽을 수 있다.

- 강제검사제도 예비단계로서의 실험소는 다시 시험소(LABORATORIO DE PRUEBAS)와 계측소 (LABORATORIO DE CALIBRACION)로 대별되며, 관련 업체나 협회 등이 실험소로 지정된다.

□ 주요 검사. 시험 기관명

- 전자부문 표준화. 인증 협회 (니세)
 -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ELECTRONICA, A.C.(NYCE)
 - 전자제품, 전산정보 및 통신 관련제품, 타이어 등 고무제품 등 검사 시행 및 NOM 발급을 담당한다.
- 전기부문 표준화. 인증 협회 (안세)
 - ASOCIACION NACIONAL D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DEL SECTOR ELECTICO, A.C (ANCE)
 - 전기제품, 가스 관련제품, 가정용 기기 등 분야 검사 시행 및 NOM 발급을 담당한다.

□ 연락처

- NYCE (니세 / 전자부문 표준화. 인증 협회)
 - 주소: AV. LOMAS DE SOTELCO NO. 1097, COL. LOMAS DE SOTELCO, 11200, MEXICO D.F.
 - TEL : 52(55) 5397-0777
 - FAX : 52(55) 5397-0700
 - E-MAIL : nyce@nyce.org.mx
 - WEB : <http://www.nyce.com.mx/>
 - 담당: ING. GERMAN FLORES Y GOMEZ
- ANCE (안세 / 전기부문 표준화. 인증 협회)
 - 주소: AV. LAZARO CARDENAS 869, COL.NUEVA INDUSTRIAL VALLEJO, 07700, MEXICO. D.F.
 - TEL : 52(55) 5747-4550
 - FAX : 52(55) 5747-4560
 - WEB : <http://www.ance.org.mx/ie/index.asp>
 - 담당: Ricardo A. Hernández Márquez

3) 검사 및 시험기관 이용방법

□ 국외에서 이용하는 방법

- NOM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 내 검사·시험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공식 위임장(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한다. 즉, 국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APODERA DO LEGAL)을 세워야 한다. 법정대리인으로는 동분야 전문 법률사무소(BUFETE)를 주로 이용한다.

□ 검사. 시험 소요 기간

- 안전검사 대상품목 (NORMA DE SEGURIDAD)
 - 검사 대상품목이 신제품인 경우

- DGN이나 NYCE, ANCE 공히 인증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검사 완료, 인증서가 발급된다. 단, 제출 서류에 하자(DEFICIENCIA)가 없어야 하는데, 하자 발견 시 미비점을 적시하여 반송된다.
- 검사대상품목이 중고품, 재생품(RECONSTRUIDO), 단종품(DISCONTINUADO), 스펙품(FUERA DE ESPECIFICACIONES)등인 경우
 - 공히 인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근무일 이내에 검사완료, 인증서가 발급된다.
 - 제출서류상 하자 발견 시 미비점 적시, 반송된다.
- 라벨링(상업정보) 검사품목 (NORMA DE ETIQUETADO)
 - ANCE: 검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완료된다.
 - NYCE: 검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근무일 이내 완료된다.
 - DGN: 표준국에서는 라벨링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ANCE와 NYC에서 대행 처리한다.

□ 검사. 시험 비용

- 안전검사(CERTIFICACION)의 경우
 - 검사비용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NYCE의 경우 최저 \$ 1,835 페소(U\$ 168불)에서 최고 \$ 3,560페소 (U\$ 338불)가 소요된다.
 - ANCE의 경우 품목별로 최저 \$1,948페소(U\$179불)에서 최고 \$3,898페소(U\$358불) 소요된다.
 - DGN은 평균 \$ 1,917페소(U\$ 176불)소요되나, 제품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라벨링(상업정보) 검사(VERIFICACION)의 경우
 - NYCE는 \$ 398페소 (U\$ 37불), ANCE는 \$ 615페소 (U\$ 56불)
 - \$는 멕시코 페소화 단위 표기임. 미 달러화는 U\$로 구분표시한다.
 - 환율 (2005년 평균환율): U\$ 1 = \$ 10.9
- 시험소 검사 (PRUEBA DE LABORATORIO) 비용
 - 품목별로 비용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1,000~20,000페소 범위 내에서 결정되나1,600~5,500페소가 일반적이다.

다. NOM 마크 신청절차

1) 승인신청 시 구비서류

□ 대 표준국 (DGN) 신청 시 서류

- 안전검사 신청서 (SOLICITUD DE CERTIFICACION NOM)
- 검사 서비스료 (인지대) 납부 영수증 (COMPROBANTE DE PAGO DE DERECHOS) 원본
- 연방 납세자 등록증 (CEDULA DE RFC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공인시험소(LABORATORIO ACREDITADO) 검사보고서(INFORME DE PRUEBA) 또는 의견서 (DICTAMEN)

- 각 NOM에서 규정한 품목별 기술 명세서 (DOCUMENTACION TECNICA)
 - 작동, 서비스 지침서(INSTRUCTIVO) 및 편람(MANUAL)
 - 팜플렛 또는 제품사진, 기술사양서(HOJA DE ESPECIFICACIONES TECNICAS), 설치 명세서, 품질 보증서
 - 제품 전기 도해표 (DIAGRAMA ELECTRICO) 등
- 진실서약하의 품종 선언서 (DECLARACION)
 - 신청 품목이 신제품인지, 중고품인지, 재생품 또는 단종품인지 여부 명기 및 동 내용이 진실임을 선서한 서류

□ 대 NYCE 및 ANCE 신청 시 서류

- 안전검사(CERTIFICACION) 신청 시: 안전요건 품목 (NORMA DE SEGURIDAD)의 경우
 - 안전검사 신청서 (SOLICITUD DE SERVICIOS DE CERTIFICACION)
 - 안전검사 신청 계약서 (CONTRATO DE PRESTACION DE SERVICIOS DE CERTIFICACION)
 - 연방 납세자 등록증 (CEDULA DEL RFC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공인시험소(LABORATORIO ACREDITADO) 검사보고서(INFORME DE PRUEBA) 또는 소견서 (DICTAMEN)
 - NOM신청 전에 견본품(3개)을 공인시험소에 제출하여 긍정소견서나 적격판정 검사 보고서를 사전에 득한 후 NOM신청서 등 여타서류와 함께 NOM 발급기관(ANCE, NYCE)에 제출한다.
 - 각 NOM에서 규정한 품목별 기술 명세서 (DOCUMENTACION TECNICA)
 - 작동, 서비스 지침서(INSTRUCTIVO) 및 편람(MANUAL)
 - 팜플렛 또는 제품사진, 기술사양서(HOJA DE ESPECIFICACIONES TECNICAS), 설치 명세서, 품질 보증서
 - 제품 전기 도해표 (DIAGRAMA ELECTRICO) 등
 - 진실서약하의 품종 선언서 (DECLARACION)
 - 신청품목이 신제품인지, 중고품인지, 재생품 또는 단종품인지 여부 명기 및 동 내용이 진실임을 선서한 서류
- 라벨링 검증(VERIFICACION) 신청시: 라벨링 요건 품목 (NORMA DE ETIQUETADO)의 경우
 - 라벨링(상업정보)검증 신청서(SOLICITUD DE SERVICIOS DE VERIFICACION DE INFORMACION COMERCIAL)
 - 라벨링 검증 신청 계약서 (CONTRATO DE PRESTACION DE SERVICIOS DE VERIFICACION DE ETIQUETADO)
 - 회사 정관(ACTA CONSTITUTIVA) 사본
 - 연방 납세자 등록증 (CEDULA DE RFC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안전검사나 라벨링 검사 신청 모두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CARTA PODER)추가 필요

2) 신청에서 승인획득까지의 과정

□ 평가방법 (평가유형)

- 예비평가의 경우에는 시료채취검사 형태로 이루어지며, 본 평가 시에는 서류심사 형태로 이루어진다.

- 일단 NOM을 획득한 뒤에는 사후평가를 실시하는데, 동 평가는 기존 NOM 획득제품이 NOM 을 계속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며, 공장 방문 (내국산의 경우) 내지 창고방문 또는 판매현장방문(수입품의 경우)의 형태로 이루어지되 사전통지 후 또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검사가 이루어진다.

□ 승인절차 (NOM 획득절차)

○ 예비신청

- NOM을 획득하고자 할 때 내국산의 경우에는 통산부 지정 품목별 공인시험소에 바로 시험의뢰를 하면 되지만 수입품의 경우에는 먼저 DGN 등 NOM발급기관에 견본 수입 허가신청을 내야 한다.
- 견본 수입수량은 품목별 해당 NOM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3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목적이 NOM 인증신청을 위한 시험소 검사 의뢰용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 견본수입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어떤 시험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각 기관 별 견본수입 허가신청은 다음과 같이 실시됨. 시험소는 해당 공인시험소 중 1개 처를 신청자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

기 관	제출 서류	신청수수료(품목당)	처리기간
DGN	신청회사 레터헤드지상신청서	\$ 261 페소	7근무일
NYCE	견본수입신청서, "	\$ 220 페소	24시간 이내
ANCE	견본수입신청서, "	\$ 289 페소	24시간 이내

- 동 신청서상에는 제품형태, 브랜드명, 모델명, 시리즈번호, 원산국명, 발송국명, 통관 세관명, 견본 개수, 선택 공인시험소명 등 명기할 필요가 있다.
- 승인을 득하면 견본을 들여와 기신고한 공인시험소에 시험검사를 의뢰한다.

○ 예비평가

- 표본검사를 의뢰 받은 공인시험소에서는 제품의 특성을 면밀분석 및 적부 소견서를 작성한다.
- 기준미달 불합격 시에는 의뢰자가 미비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미달내용을 적시(摘示) 한다.
- 의뢰자에게 시험분석 결과보고서 및 적부소견서를 발급한다.

○ 본신청

- 의뢰자는 DGN 또는 ANCE, NYCE 등 NOM 발급 인증기관에 출두하여 각종 NOM 승인 신청 서류 제출한다.

○ 본평가

- 인증기관은 제출된 제반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반려, 하자없을 경우 소관 부서로 이첩된다. 그리고 소관부서에서는 시험분석 결과 보고서 등 모든 서류 면밀 검토 및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 제품의 품질 및 특성뿐 아니라 생산과정, 유통 및 A/S, 창고 보관상태 등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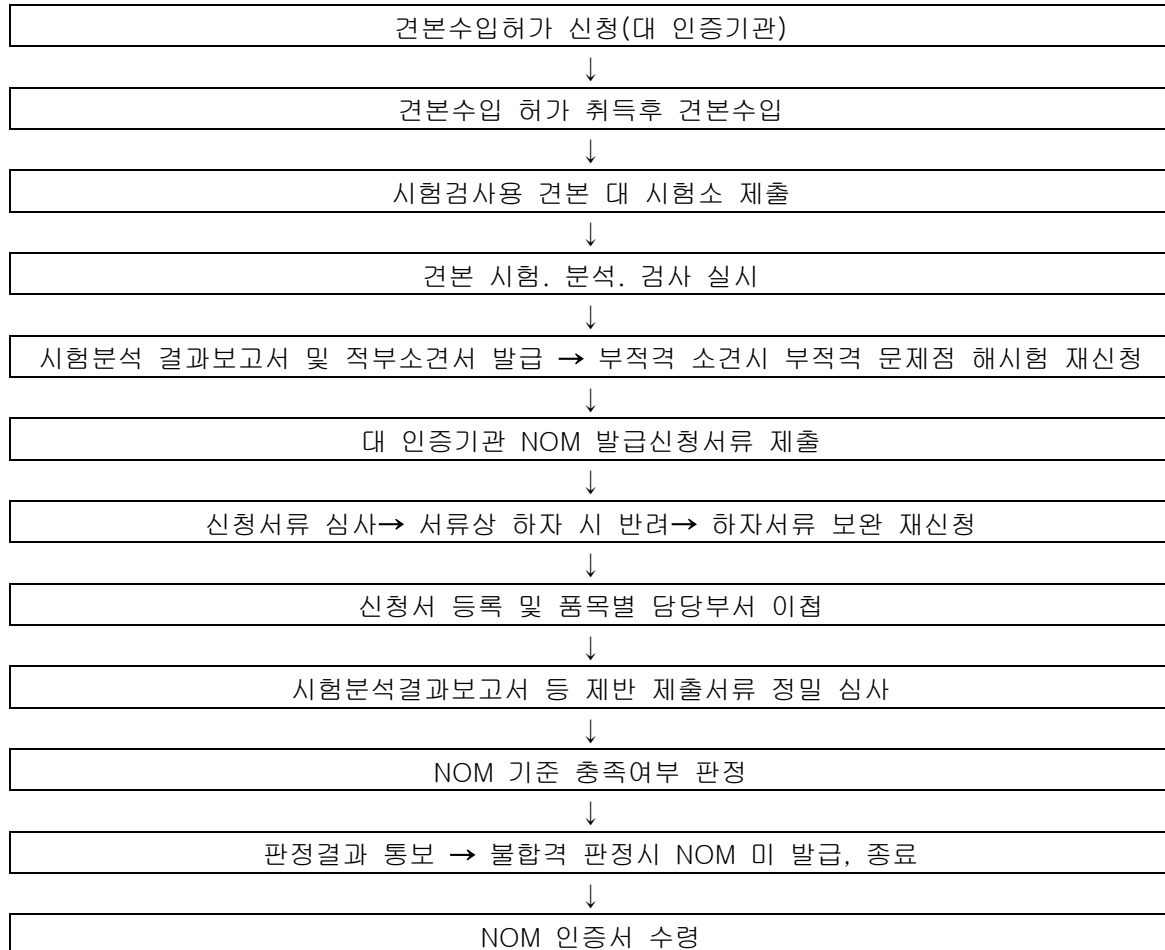
○ 평가회의

- 평가종료 후 최종판정에 앞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의뢰자 또는 대표자를 참석시켜 질의응답을 시행하여 의문점을 해소한다.

○ 승인서 교부

- 기준 충족 판정 시 NOM 인증서를 발급 및 교부한다. 미 충족 시 사유를 명시한 불합격 통지서 발부, 미비점 보완 후 재 신청을 유도한다.

□ 절차도



○ 정부 관련 사이트

- <http://www.economia.gob.mx/?P=85>
- <http://www.economia.gob.mx/index.jsp?P=993>
- <http://www.economia.gob.mx/index.jsp?P=204#Normalización>

7. 지적재산권

1994년 지적재산권법이 새로 개정됨으로써 과거의 관련법에 비해 특허권 부여대상 확대 및 여타 보호조치의 강화 등을 통해 지적소유권 보호환경이 한층 개선되었다.

멕시코는 세계저작권협회 회원국으로 불법복제, 해적판 제작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멕시코는 불법 복제품이 일반화되어 있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게임 부문의 경우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80%가 불법복제품으로 조사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가. 특 허

일반적으로 특허는 법적으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연장불가 조건으로 20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다. 멕시코 특허청(IMPI)에서 특허관련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청이후 18개월 이내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있다.

지적재산권법에 따르면, 식물 및 동물의 생식을 위한 생물학적 주요 과정, 생물학 및 유전자적 물질, 동물 종족, 인간 몸체 및 생명이 있는 신체 부위, 식물 등을 제외하고 특허 신청이 가능하다.

나. 상 표

상표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은 10년인데, 만료기간 이후 6개월내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자동 삭제되므로 반드시 재등록을 해야한다. 상표등록에 필요한 기본서류 양식은 멕시코 특허청 사이트(www.impi.gob.mx)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회사명 등록도 상표 등록과 같은 절차를 거치며, 상표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상표 등록 절차

- 상표 기 등록 여부 확인
 - 우선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명이 기존에 이미 등록돼 있는지 발음 및 문자가 매우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등록여부 확인은 특허청 사무실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동 서비스 수수료는 110페소 (10달러)이며, 5~10분 정도 소요된다.
- 상표권 등록 신청
 - 상표가 기 등록되어 있지 않고 유사 상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은 최고 6개월 내에 상표를 등록한 후 수락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다.
 - 상표 등록 신청 후에 진행 현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웹사이트: <http://marcas.impi.gob.mx/consulta/frm1.html>

2) 상표등록 유효 기간 : 10년

- 상표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후로 갱신을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자동 취소된다.

3) 상표등록 신청비(1건당): \$2,493(페소)

종 류	수수료(페소)
상표(marca) 등록	\$2,167.83
상표(marca) 등록 갱신	\$2,526.09
광고문구(avisos comerciales) 등록 예) Nike의 Just do it	\$358.26
광고문구(avisos comerciales) 갱신	\$179.13
회사명(nombre comercial) 등록	\$358.26
회사명(nombre comercial) 등록 갱신.	\$179.13

4) 상표 등록 시 필요서류

- IMPI-00-006서류를 4부 작성 제출
 - 이 서류는 특허청에서 직접 입수하거나 인터넷사이트(www.impi.gob.mx)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아래 제출과는 별도로 각 신청서마다 상표를 붙여야 한다.
 - 로고 등록 시 6개의 로고를 제출해야 하며 크기는 4x4cm이상 10x10cm이하여야 한다.
 - 3차원 상표 등록 시에는 크기 4x4cm이상 10x10cm이하의 사진 6장을 제출해야 한다.
 -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할 경우, 위임장을 준비하고 위임장에 본인 및 대리인 서명, 2명의 증인 이름 및 주소 등을 적어 제출한다.

5) 형태

- 상표는 상표명, 로고, 혹은 상표명 로고 결합 등 어떤 형태로든 등록 가능하다.
 - 상표명(Nominativa): 상표 이름만 등록(예: Nike)
 - 로고(Innominada): 로고만 등록(예: Nike의 로고 그림)
 - 상표, 로고 결합(Mixta): 상표 이름 및 로고 둘 다 등록

6) 상표권 관련기관

- 멕시코 특허청(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 상표권 담당국 (Direction Divisional de Marcas)
 - 주소: Arenal 550, 3er Piso, Colonia Tepepan Xochimilco, Delegacion Xochimilco, C.P. 16030, Mexico, D.F.
 - 전화: (52-55) 5334 - 0700(EXT. 5180, 5181)
 - 이메일: buzon@impi.gob.mx
 - 웹사이트: www.impi.gob.mx

8. 통관/운송

가. 통관

멕시코로 수입된 물품은 세관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통관절차를 밟게된다. 창고료는 항공 및 육상 운송 제품의 경우 2일간은 부과되지 않으며, 해상 교통은 5일동안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 수수료(servicios de manejo)는 지불하게 된다.

세관창고에 반입된 수입물품이 재수출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부과 없이 재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통관절차가 끝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간주되어 멕시코 법령에 따른 수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화물 검사는 통관대에 신호등이 부착되어 있어 통관시 통관사 또는 화주가 신호등의 버튼을 눌러 적색불이 들어왔을 때만 실시한다. 적색불의 확률은 보통 10% 수준이나 한국 등 아시아 산 수입물품은 품목에 따라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화물검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사전에 간주해야 한다. 순수 통관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4-5시간 정도이나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는 1일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

통관시 구비서류로는 수입면장(PEDIMENTO DE IMPORTACION), 상업송장(factura comercial), 선하증권, 수입허가서(수입허가품목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타 제 증명서(필요한 경우/ 예: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의 허가서 필요)등이 있다.

1) 통관 절차도

통관사 선정 → 수입면장 작성 → 제세금 납부 → 세관의 서류검토 → 화물검사 여부 결정
→ 화물 검사 → 화물 인수

통관은 직접 개인이 해도 무방하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통관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통관 비용 및 소요시간

멕시코 통관사를 통해 화물을 찾을 때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크기에 상관없이 인보이스 금액의 0.45%에 해당하는 통관비와 서비스료 1,500~3,000 페소가 소요된다. 부산항에서 선적, 태평양의 만사니요(Manzanillo)항에 도착하는 경우 직항은 최단 14일이 소요되며 일본, 미국 등을 경유해서 오는 경우는 최장 30일 까지 소요된다.

3) “아시아산 제품 대상 자동수입신고제도 (API)” 도입 ('98년8월27일부터 발효)

아시아 상품 수입상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멕시코 영토 내에 상륙하기 전에 경제부에 수입 신고를 필해야 하며, 경제부가 발행해주는 수입신고필 확인서(ACUSE DE RECIBO) 사본 을 수입면장 (PEDIMENTO DE IMPORTACION)과 함께 해당 세관에 제출해야만 통관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수입면장상 단가가 사전에 수입업자가 승인 받은 자동 수입신고서 상 단가 대비 상하 5% 미만의 변동폭 내에 있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자동 수입 신고서를 또다시 제출해야 한다.

수입신고서에는 상품 수입단가를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동 신고 단가가 재무부(SHCP)측 산정 단가보다 낮을 경우 가격인증 보고서(INFORME DE VERIFICACION SOBRE EL PRECIO)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동 인증 보고서는 경제부 공인 사전검사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함. 그러나 인증 보고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세관은 자체 가격확인 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 예외적으로 수입 상품 총액이 미화 천불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동 인증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수입신고서가 승인 또는 반려되지 않을 경우 제출 익일부터 10근무일이 경과하면 수입 신고가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나,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경제부는 신고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멕시코 경제부는 상기 기한 내에 해당 수입신고서에 대한 승인 번호를 부여하여 관할세관에 통지, 신고자가 수입절차를 밟게 되며, 동 자동수입 신고는 경제부의 승인이 난 날로부터 4개월간 유효하다. 동 제도 해당국별 적용대상 품목은 섬유류 및 철강재 등 총 74개 품목으로 2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나. 운송

1) 멕시코 무역항 개황

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은 만사니요(Manzanillo) 항을 통해서 멕시코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멕시코 무역항

카리브, 대서양 방면	태평양 방면
ALTAMIRA, TAMPS.	GUAYMAS, SON.
CAYO ARCAS, CAMP.	ISLA DE CEDROS, B.C.
DOS BOCAS, TAB.	LAZARO CARDENAS, MICH.
PAJARITOS, VER.	MANZANILLO, COL.
PUNTA VENADO, Q. ROO	MAZATLAN, SIN.
TAMPICO, TAMPS.	SALINA CRUZ, OAX.
TUXPAN, VER.	TOPOLOBAMPO, SIN.
VERACRUZ, VER.	ENSENADA, B.C.
COATZACOALCOS, VER.	SAN CARLOS, B.C.S
FRONTERA, TAB.	LA PAZ, B.C.S.
CIUDAD DEL CARMEN, CAMP.	ACAPULCO, GRO.
PROGRESO, YUC.	SALINA CRUZ, OAX.
PUERTO MAELOS, Q. ROO	PUERTO MADERO, CHIS.

자료원: 교통통신

주요 무역항 별 물류 비중

항구명	비중(%)	항구명	비중(%)
LAZARO CARDENAS, MICH.	22.9%	PROGRESO, YUC.	3.2%
VERACRUZ, VER.	21.8%	TOBOLOBAMPO, SIN.	3.2%
MANZANILLO, COL.	18.6%	PICHILINGUE, B.C.S.	2.3%
ALTAMIRA, TAMPS.	12.9%	TAMPICO, TAMPS.	1.8%
TUXPAN, VER.	4.3%	MAZATLAN, SIN.	1.7%
ENSENADA, B.C.	4.1%	기타 항구	3.2%

자료원: 교통통신부

2) 멕시코 공항 개황

멕시코에는 56개의 국제공항과 29개의 국내공항이 운영되고 있으며, 멕시코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공항이 가장 규모가 큰 대표적인 공항이다.

주명	국제공항	국내공항
AGUASCALIENTES	1	0
BAJA CALIFORNIA	3	2
BAJA CALIFORNIA SUR	3	2
CAMPECHE	2	0
CHIAPAS	2	4
CHIHUAHUA	2	0
COAHUILA	5	1
COLIMA	1	1
DF	1	0
DURANGO	1	0
GUENAJUATO	1	0
GUERRERO	2	0
HIDALGO	0	1
JALISCO	2	0
México	1	1
MICHACAN	1	3
MORELOS	0	1
NAYARIT	0	1
NUEVO LEON	2	1

OAXACA	3	2
PUEBLA	1	1
QUERETARO	1	0
Q ROO	3	1
SLP	1	1
SINALOA	3	1
SONORA	5	0
TABASCO	1	0
TAMAULIPAS	4	1
TLAXCALA	0	0
VERACRUZ	1	4
YUCATAN	2	0
ZACATECAS	1	0
전체	56	29

자료원: 교통통신부

3) 운송회사

BANCOMEXT 사이트 소개 회사 중심

- Naviomar, S.A de C.V.
 - 주소: Unión No.2 Col. Escandon, México 11800 D.F.
 - Tel: (52 55) 5273-1753 / 5273-2064 / 5273-1933 / 5273-2293/ 5273-1956 / 5-273-1333
 - Fax: (52 55) 272-9917 / 5-272-6465
 - E-mail: sarayo@naviomar.com.mx
 - <http://www.naviomar.com.mx>
 - Contacto: Lic. Sara Yolanda Gómezortizoga
- Sistemas kinedyne S.A de C.V.
 - 주소: Calzada de las Armas No. 130-A, Col. Industrial las Armas, Tlalnepantla, Edo. de México, C.P. 54080
 - Tel.(52 55)5318-4844 / Fax:(52 55)5318-4215,
 - E-mail: evelez@trans-solutions.com.mx
 - <http://www.kinedyne.com.mx>
- Grupo TMM, S.A de C.V.
 - 주소: Av. de la Cúspide # 4755, Col. Parque del Pedregal, C.P. 14010 México D.F.
 - Tel: (5255) 5629 8866 / Fax: (5255) 5629 8899
 - E-mail: webstaff@tmm.com.mx
 - <http://www.tmm.com.mx>
- Tum transportistas unidos mexicanos S.A de C.V.
 - Tel: (5255) 50390600, 50390690, 50390692, 50390694, 50390696
 - E-mail: ventas@tum.com.mx
 - <http://www.tum.com.mx>
- Agencia naviera de méxico, S.A de C.V.
 - 주소: Periferico Sur, 3449 2do piso. San Jerónimo Lidice. México, D.F. 10200
 - Tel. (5255) 5595 00 73 / Fax. (5255) 5957450, 59577456
 - E-mail: agnamex@agnamex.com.mx
 - <http://www.agnamex.com.mx>

- Grupo Pondisa S.A. DE C.V.
 - 주소: Francisco I. Madero, esquina Morelos S/N Col. San Francisco Chilpan, Tultitlán, Edo. de México, C.P. 54940,
 - Tel: (5255) 58999994
 - E-mail: comercial@pondisa.com
 - <http://www.pondisa.com>
- Transportadora Nacional S.A. de C.V.
 - 주소: Av. D No.2000, Col. Central de carga, C.P. 67110, San Nicolas de los Garza, Nuevo León.
 - Tel: (5281) 3774563, 3774812, 3774823, 3774818 / Fax: (5281) 3344664
 - <http://www.tn.com.mx>
- Trans Solutions S.A. de C.V.
 - 주소: Acapulco No. 36 PH. 9 , Col. Roma Norte C.p. 06700 , México City
 - Tel: (52 55)52.86.30.18 / Fax : (5255) 52.12.03.89
 - E-mail: evelez@trans-solutions.com.mx
 - <http://www.trans-solutions.com.mx>

4) 통관서비스 회사

격주간지 CRAIN'S 소개 회사 중심

- Agencia Aduanal de América
 - 주소: Poniente 150-688, Industrial Vallejo, C.P.02300, México, D.F.
 - Tel: (52 55) 8503 32 00 / Fax: (52 55) 85 03 32 01
 - E-mail: rnavarro@aaamerica.com
 - <http://www.aaamerica.com.mx>
 - Contacto: Ricardo Navarro, Gerente de Administración
- Revisa
 - 주소: Varsovia No.22, piso 2, Col. Juárez, C.P. 06600, México, D.F.
 - Tel: (52 55) 5514 44 80 / Fax: (52 55) 5514 44 80
 - E-mail: gjimenez@ravisa.com
 - <http://www.ravisa.com>
 - Contacto: Gabriela Jiménez, Gerente de Administración
- Roberto Ugarte
 - 주소: Sacramento 305-A, Insurgentes, C.P. 03220, México, D.F.
 - Tel: (52 55) 56 87 34 44 / Fax: (52 55) 5536 49 82
 - E-mail: gugarte@robertougarte.com
 - <http://www.robertougarte.com>
 - Contacto: Gabriela Ugarte, Gerente de Administración
- Clark Orozco y Cía
 - 주소: Pachuca 188, Condesa, C.P. 006140, México, D.F.
 - Tel: (52 55) 5553 40 88 / Fax: (52 55) 5553 40 88
 - E-mail: trimexco@hotmail.com
 - Contacto: Mirella Rivera, Gerente de Administración

○ Cabezut Grupo Mexicano

- 주소: Privada de Manchester 12, Col. Juárez, C.P.06600, México, D.F.
- Tel: (52 55) 5207 41 16 / Fax: (52 55) 5207 2002
- E-mail: mmoreno@cgrupomexicano.com, info@cgrupomexicano.com
- http://www.cgrupomexicano.com
- Contacto: Mauricio Moreno, Director Comercial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 매력

1) 미국 및 중남미 시장을 위한 수출기지

멕시코는 미국 및 중남미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북미 및 중남미 시장을 위한 수출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멕시코 내에서 제품을 조립, 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전세계 44개국과 FTA 체결

멕시코는 NAFTA(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중남미 G3국가, 일본 등 전세계 44개국과 12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3) 전세계 21개국과 투자보장협정 체결

멕시코는 한국을 비롯해서 스페인, 독일, 아르헨티나 등 21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외국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하고 있다.

4) 성장하는 내수시장

인구 1억590만명인 멕시코는1인당 GDP가 US\$7,925이고(2006년 기준), 국민의 절대 다수가 빈곤층이어서 구매력이 크지는 않지만, 중남미 국가들 중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

나. 투자 단점

1) 높은 공공요금

멕시코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한국보다 2~2.5배 높은 수준이다.

2) 부품, 소재 현지조달의 어려움

멕시코는 자체 제조업이 취약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현지에서 부품 및 소재를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지에 필요한 부품/소재의 제조업체가 있더라도 한국에서 부품/소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3) 기대보다 높은 인건비와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

미국보다는 인건비가 낮지만, 단순히 인건비 절감만을 위해서 멕시코 투자를 고려할 정도는 아니며,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거나 미국과 가까운 국경지역의 인건비는 전체 평균임금보다 높고, 업체들간에 노동력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숙련공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한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4) 불투명한 행정과 관료주의, 복잡한 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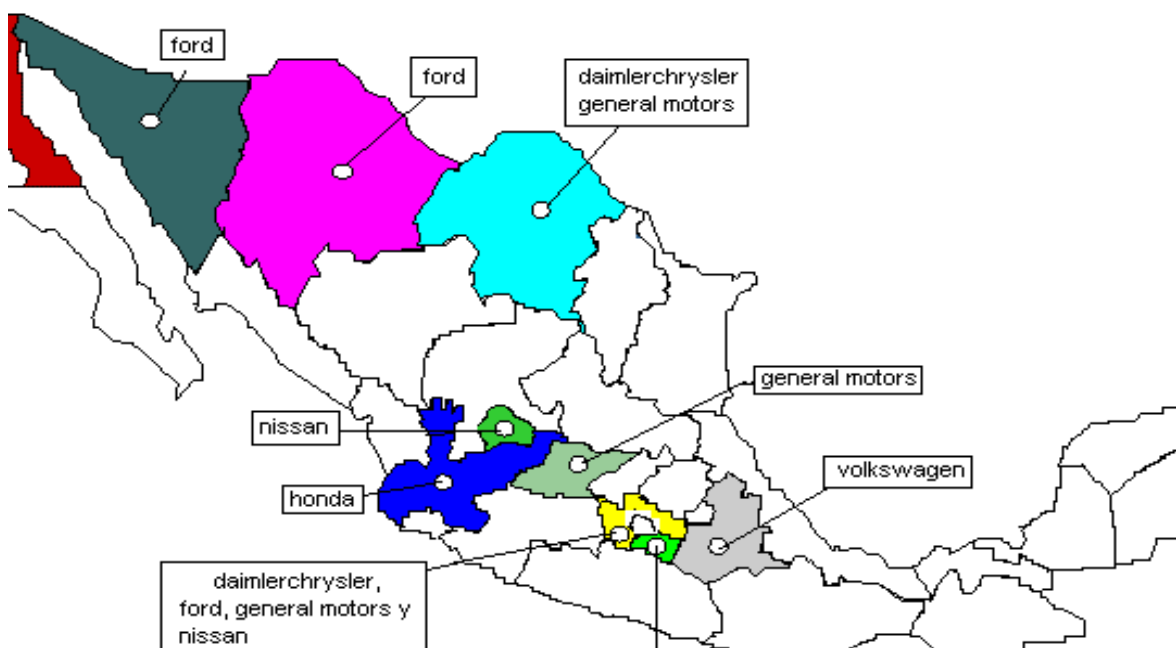
불투명한 행정과 관료주의,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법규 등이 기업운영의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투자 유망 산업

1) 자동차부품산업

2006년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량은 198만대로 전년 대비 23.2% 증가했으며, 이중 78%가 수출되었다. GM, FORD, NISSAN, VOLKSWAGEN, DAIMLERCHRYSLER 등이 2007년중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자동차 생산량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멕시코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의 조립공장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자동차부품업체들은 1차 벤더 345개사를 포함하여 약 1천여 개 사에 달한다. 멕시코 자동차부품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인 멕시코시티에 자동차부품 회사의 21%가 소재하고 있으며 멕시코 주에 20%, 북동부 누에보레온주에 20%가 집중되어 있고 기타 완성차 조립공장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멕시코의 완성차 조립공장 소재지



자료원: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 (AM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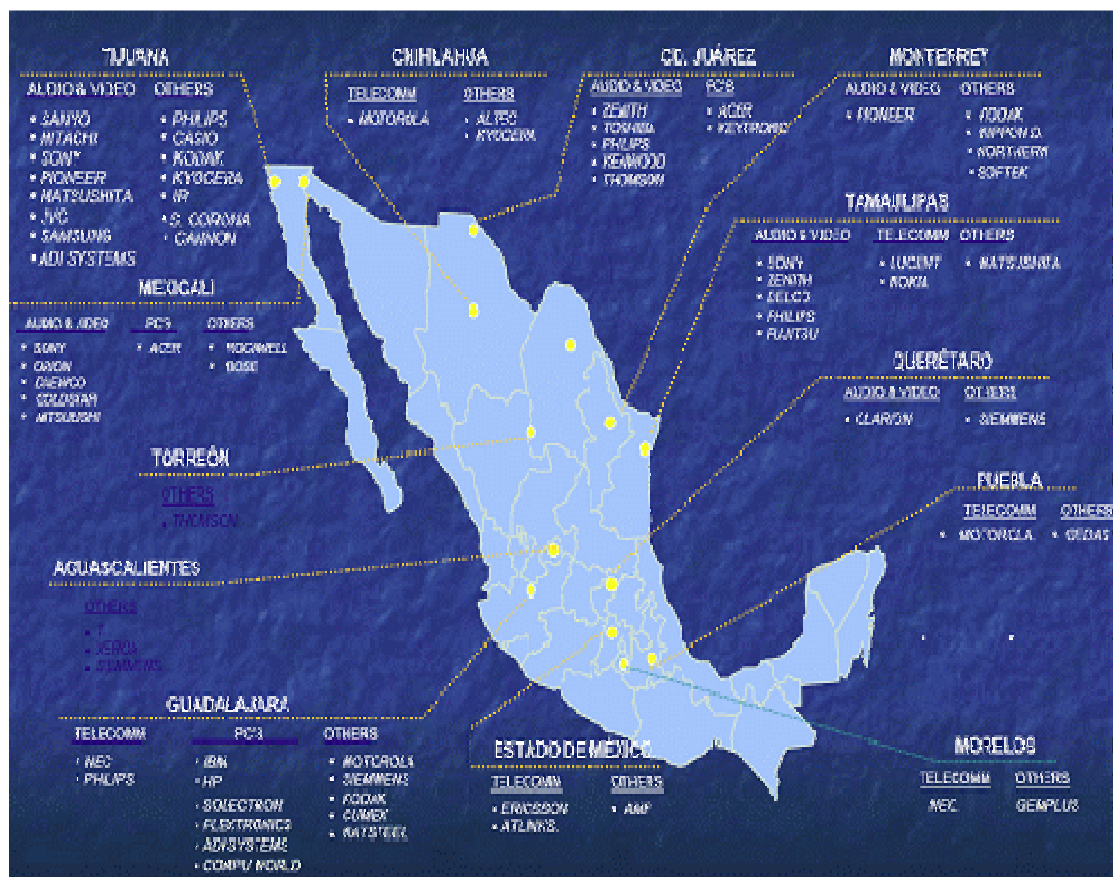
기존에 진출해 있는 완성차 조립업체들이 멕시코내 생산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현대 자동차의 엘라바마 공장 가동과 더불어 기아자동차의 쥘리아주 공장 설립, 도요타의 텍사스 산안토니오 공장설립 계획으로 인해 이들 OEM에 납품하는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이라면 멕시코를 투자지로 고려할만하다. 특히, 생산품목이 노동 집약적이라면 임금수준이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한 멕시코 진출을 고려해 볼만하다.

투자지역 고려 시 고객사가 소재한 곳과 가까운 곳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미 수출을 겨냥하여 투자진출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누에보레온주와 따마울리바스주를 후보지로 생각할 수 있다. 누에보레온주는 비록 완성차 조립공장은 없지만 몬테레이를 중심으로 멕시코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릴 만큼 자동차부품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관련 산업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다. 따마울리바스주는 국경도시인 마따모로스, 레이노사, 누에보라레도를 중심으로 미국소재 기업에 대한 납품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후보지이다.

2) 전기전자산업

전기전자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 멕시코의 제조업을 이끄는 양대 축이다. 멕시코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시장과 중남미시장을 겨냥한 다국적 기업들의 미주 생산기지이다.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주요 전기전자 업체는 아래와 같다.

멕시코에 투자 진출한 주요 전기, 전자회사 지역별 분포



자료원: BANCOMEXT

멕시코의 전기전자산업 클러스터는 다국적기업들의 공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북서부 바하칼리포르니아주와 소노라주의 미국접경도시, 북부 치와와주의 씨우다드 후아레스, 북동부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와 고티아우일라주 살띠요, 따마울리빠스주의 레이노사와 팜삐꼬, 중부 멕시코주와 께레타로주, 모렐로스주, 뿌에블라주, 베라그루스주, 서부 할리스꼬주 의 과달라하라와 아구아스칼리엔테스주가 주요 전기전자산업 클러스터이다.

특히, 할리스꼬주 과달라하라는 멕시코 EMS 산업의 중심지로, 90년대 말부터 소품종 대량 생산 EMS 업체들을 중심으로 상당수 EMS 업체들이 중국으로 이전하여 고전을 겪기는 하였지만 실리콘밸리와 지리적 인접성과 세계 최대시장이 미국과 이웃하고 있다는 우위를 바탕으로 2005년에는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멕시코의 EMS 비즈니스는 다품종 중간 볼륨 생산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 내 관련산업이 취약하여 국내부품조달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과달라하라주 EMS 클러스터의 경우,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자재의 15%만을 멕시코 국내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NAFTA 발효이후 외국인직접투자 폭발적 증가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멕시코는 다른 국가들처럼 법인소득세 감면이나 캐시그랜트 제공과 같은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실제 외국인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국경을 접하고 있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강점을 기반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이밖에도 44개국과 12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미뿐만 아니라, 중남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사업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멕시코가 44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멕시코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시장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미국의 경제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멕시코는 수출의 84%, 수입의 50%를 미국에 의존하는 등 대미의존도가 심각한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유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부문이 미국의 경제동향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994년 NAFTA 발효 이후 2001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2년 이후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나, 2004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제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연간 US\$ 180억 ~ 200억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기지

멕시코의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미국은 1999년부터 2007년 3분기까지 전체 대 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투자동향을 살펴봐도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전체 對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의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對 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감소한 2002년과 2003년에도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에는 변화가 없었다.

미국 외에는 주로 유럽 국가들이 멕시코의 주된 투자국가이다. 스페인은 동일 언어와 역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에 이어 대 멕시코 2대 투자국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네덜란드와 영국, 캐나다, 독일이 잇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의 대 멕시코 투자가 가장 활발한데, 일본은 1999년부터 2007년 3분기까지 전체 대 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에서 0.69%의 비중을 차지하며 11대 투자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7년 3분기까지 한국의 대 멕시코 투자는 전체 對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 대비 0.23%로 20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0.69%), 싱가포르(0.36%)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1999 ~ 2007 3분기 간 멕시코 외국인투자 유입 규모

(단위: US\$ 백만)

순위	국가명	년도									합계	비중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	미국	7,444	12,811	21,409	12,925	9,281	8,511	10,512	10,830	7,612	101,334	58.02%
2	스페인	1,042	2,113	2,730	2,604	3,002	7,436	1,473	624	1,485	22,509	12.89%
3	네덜란드	1,090	2,683	2,620	1,464	892	3,329	2,431	3,091	1,905	19,505	11.17%
4	캐나다	625	700	1,006	221	262	490	414	527	366	4,611	2.64%
5	영국	-188	283	132	1,249	1,074	140	985	788	69	4,530	2.59%
6	독일	774	348	-109	596	466	400	339	81	232	3,126	1.79%
7	버진 아일랜드	68	81	89	16	-6	56	2,051	281	383	3,018	1.73%
8	스위스	125	149	-176	462	286	1,135	180	356	14	2,529	1.45%
9	프랑스	168	-2,453	394	352	530	170	553	697	1,408	1,818	1.04%
10	덴마크	179	203	251	208	54	116	88	195	65	1,359	0.78%
11	일본	1,233	419	188	166	122	363	115	-1,479	75	1,202	0.69%
12	벨기에	34	40	71	109	80	42	119	317	329	1,139	0.65%
13	버뮤다	17	46	33	3	8	31	4	10	688	840	0.48%
14	룩셈부르크	14	21	123	46	32	18	162	180	122	716	0.41%
15	스웨덴	691	-279	-124	-38	-41	125	334	7	-6	667	0.38%
16	싱가포르	66	81	250	59	-6	30	12	57	80	628	0.36%
17	아르헨티나	3	9	9	10	3	10	541	22	16	624	0.36%
18	핀란드	28	219	84	25	120	-50	18	29	20	493	0.28%
19	카이만섬	85	84	77	28	155	47	5	11	-12	480	0.28%
20	한국	47	30	51	32	57	34	95	43	16	403	0.23%

자료원: 멕시코경제부

□ 주요 외국 투자기업 현황

멕시코 경제지 Expansión이 집계한 매출기준 2006년 500대 기업 리스트에 게재된 주요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와 같다.

① 독일

주요 독일 투자기업

(단위: 백만페소/%)

2006년 순위	2005년 순위	회사명	분야	'06 매출액	매출증감
10	8	DaimlerChrysler	자동차	106,280.8	-1.9
17	16	Volkswagen	자동차	85,930.1	13.6
95	94	Siemens	전기전자	18,311.1	12.8
133	-	Basf	석유화학	11,125.1	N/A
136	132	Continental Tires	자동차	10,776.5	12.5
150	150	Bayer	의약품	9,321.7	15.3
178	179	Boehringer Ingelheim	의약품	6,873.6	16.9
234	228	Henkel	석유화학	4,091.1	8.4
275	277	Allianz	보험보증	2,745.9	16.7
290	302	Merck	의약품	2,385.3	26.7

자료원: Expansión

주: 2006년 평균환율 US\$ 1 = 10.91 페소

② 스페인

주요 스페인 투자기업

(단위: 백만페소/%)

2006년 순위	2005년 순위	회사명	분야	'06 매출액	매출증감
11	11	Grupo Financiero BBVA-Bancomer	금융	102,586.0	10.8
13	14	BBVA-Bancomer	금융	94,957.5	16.0
21	19	Grupo Financiero Santander	금융	67,121.0	13.3
23	24	Banco Santander	금융	64,165.4	14.0
94	88	Iberdrola	전기전자	18,648.0	6.1
112	122	Telefónica Móviles	이동통신	13,701.6	28.2
145	181	Seguros BBVA-Bancomer	보험보증	9,844.9	70.6
166	176	Inditex	유통	7,540.0	26.3
167	152	Unión Fenosa Generación	전기전자	7,521.6	-5.1
228	242	Mapfre Tepeyac	보험보증	4,280.2	29.1

자료원: Expansión

주) 2006년 평균 환율: US\$ 1 = 10.91 페소

③ 미국

주요 미국 투자기업

2006년 순위	2005년 순위	회사명	분야	'06 매출액	매출증감
4	6	Wal-Mart	대형유통점	198,244.0	20.6
7	7	General Motors	자동차	128,020.0	14.5
12	10	Grupo Financiero Banamex	금융	97,908.0	0.4
14	21	Ford Motor Company	자동차	93,900.0	59.8
16	13	Banamex	금융	86,914.5	4.1
22	17	Delphi Automotive Systems	자동차	66,100.0	-9.5
24	26	Bodega Aurrerá	대형유통점	63,853.0	25.6
29	30	Sam's Club	대형유통점	54,492.0	15.9
30	31	Wal-Mart Supercenter	대형유통점	54,343.0	22.1
33	35	Hewlett-Packard	컴퓨터 및 서비스	48,405.3	17.2

자료원: Expansión

주) 2006년 평균 환율: US\$ 1 = 10.91 페소

④ 캐나다

주요 캐나다 투자기업

(단위: 백만페소/%)

2006년 순위	2005년 순위	회사명	분야	'06 매출액	매출증감
72	64	Grupo Financiero Scotiabank Inverlat	금융	24,336.3	9.3
90	80	Scotiabank Inverlat Banco	금융	19,649.8	4.0
316	372	Minas de la Alta Primeria	광업	1,985.1	102.3
335	361	Luismin	광업	1,740.8	60.1
468	426	Scotia Inverlat Casa de Bolsa	금융	610.2	-2.4

자료원: Expansión

주) 2006년 평균 환율: US\$ 1 = 10.91 페소

⑤ 영국

주요 영국 투자기업

2006년 순위	2005년 순위	회사명	분야	'06 매출액	매출증감
38	40	Grupo Financiero HSBC	금융	40,091.8	10.9
41	43	HSBC Banco	금융	38,314.2	11.9
113	101	British American Tobacco	담배	13,670.0	4.0
188	186	GlaxoSmithKline	의약품	6,031.6	9.4
310	315	HSBC Seguros	보험보증	2,038.5	30.5
330	297	Royal & SunAlliance Seguros	보험보증	1,795.3	-9.8
434	424	Afore HSBC	연금	776.0	20.5

자료원: Expansión

주) 2006년 평균 환율: US\$ 1 = 10.91 페소

⑥ 네덜란드

주요 네덜란드 투자기업

(단위: 백만페소/%)

2006년 순위	2005년 순위	회사명	분야	'06 매출액	매출증감
89	82	ING Seguros	보험보증	19,901.1	5.8
96	91	Philips	가전	18,170.0	6.5
264	223	Grupo Financiero ING	금융	3,091.8	-19.9
270	233	ING Bank	금융	2,872.3	-20.7
384	334	Afore ING	연금	1,134.2	-16.6
417	435	ABN AMRO Bank	금융	882.8	47.1
422	408	ING Hipotecaria Comercial América	금융	838.8	16.5
437	437	Getronics	컴퓨터 및 서비스	736.0	24.7

자료원: Expansión

주) 2006년 평균 환율: US\$ 1 = 10.91 페소

⑦ 프랑스

주요 프랑스 투자기업

(단위: 백만페소/%)

2006년 순위	2005년 순위	회사명	분야	'06 매출액	매출증감
110	113	Schneider Electric	전기전자	13,826.9	13.6
146	147	Danone	식품	9,776.9	17.6
220	217	L'Oréal	미용	4,614.1	12.7
314	345	MaxiGas Natural	에너지	2,015.4	58.2
381	359	Saint-Gobain Glass	유리	1,150.0	5.5
408	388	Saint-Gobain Sekurit	자동차	955.4	11.5
442	422	Saint-Gobain Vetrotex	유리	706.8	9.0
497	475	Total México	석유화학	511.2	25.6

자료원: Expansión

주) 2006년 평균 환율: US\$ 1 = 10.91 페소

⑧ 일본

주요 일본 투자기업

2006년 순위	2005년 순위	회사명	분야	'06 매출액 (백만 페소)	매출 증감(%)
134	118	Sony	가전	11,035.8	-0.3
214	191	Panasonic	가전	4,951.0	-6.5
222	214	Toshiba	가전	4,520.0	6.5
297	341	Eléctrica Clarion	자동차	2,273.6	74.7
163	188	Xignux Automotriz	자동차	7,951.0	47.0

자료원 : Expansión

주) 2006년 평균 환율: US\$ 1 = 10.91 페소

⑨ 스위스

주요 스위스 투자기업

2006년 순위	2005년 순위	회사명	분야	'06 매출액 (백만 페소)	매출 증감(%)
59	55	Nestle	식품	30,249.0	10.7
106	109	Holcim Apasco	시멘트	14,560.0	17.6
164	161	Novartis	의약품	7,897.0	15.6
175	156	Roche	의약품	6,930.1	-6.8
250	250	Zurich, Cía. de Seguros	보험보증	3,510.0	16.6
319	307	Clariant	석유화학	1,930.0	8.9
336	317	Ciba Especialidades Químicas	의약품	1,734.2	11.3
454	465	Zurich Vida, Cía Seguros	보험보증	662.5	35.9
491	483	Credit Suisse Grupo Financiero	금융	547.0	114.6

자료원 : Expansión

주) 2006년 평균 환율: US\$ 1 = 10.91 페소

⑩ 기타 국가 주요 투자기업

(단위: 백만페소/%)

2006년 순위	2005년 순위	회사명	국가	분야	'06 매출액	매출 증감
321	280	ACE Seguros	버뮤다	보험보증	1,899.5	-15.4
414	429	Accenture SC	버뮤다	컴퓨터 및 서비스	905.3	45.8
169	175	Farmacías Benavides	칠레	의약품	7,397.6	18.9
224	167	Molymex	칠레	광업	4,402.0	-33.4
162	158	Samsung Electronics	한국	가전	7,974.6	11.2
61	57	Ternium	이탈리아	철강	28,400.0	6.3
211	260	Grupo Techint	이탈리아	건설	5,047.4	83.2
349	347	Ferrero	룩셈부르크	식품	1,574.0	26.2
117	125	Flextronics Manufacturing	싱가포르	자동차	13,100.0	24.8
182	137	Ericsson	스웨덴	이동통신	6,590.0	-25.9
226	220	SCA Consumidor	스웨덴	미용	4,362.8	9.7
407	382	SKF	스웨덴	자동차	972.3	8.3

자료원 : Expansión

주) 2006년 평균 환율: US\$ 1 = 10.91 페소

□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균형

1999년부터 2007년 3분기까지 대 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47.64%, 서비스업의 비중이 35%로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1년과 2002년에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멕시코 시중은행 인수로 인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일시에 제조업을 누르고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이러한 서비스업의 강세는 이 시기에만 국한된 현상으로 전체적으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외국인투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은 것은 외국기업들이 미국시장 수출을 위한 생산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지로 멕시코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은 미국에 무관세 혜택을 받고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NAFTA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멕시코를 생산기지로 선택하고 있다. 여기에 멕시코 정부가 제조수출업체에 대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들도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멕시코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지만, IMMEX 제도를 통해 수출업체가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수입하는 부품, 소재, 기계류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혜택을 주고 있으며, 22개 산업군에 속한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부품, 소재, 기계류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PROSEC)

1999 ~ 2007 3분기 멕시코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

(단위: US\$ 백만)

분야	년도									합계	비중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①	83	92	64	93	12	17	5	20	-4	381	0.22%
②	144	200	22	251	84	173	194	335	1,017	2,419	1.39%
③	9,166	9,939	5,850	8,713	7,550	12,964	11,935	9,379	7,714	83,208	47.64%
④	150	134	333	398	322	202	192	-96	90	1,726	0.99%
⑤	110	171	108	310	81	390	282	348	253	2,054	1.18%
⑥	1,419	2,439	2,270	1,781	1,434	1,237	2,869	537	858	14,846	8.50%
⑦	296	-1,936	2,782	1,593	2,216	1,254	1,427	760	428	8,818	5.05%
⑧	775	4,802	16,425	6,740	2,900	5,581	1,208	2,752	3,699	44,881	25.70%
⑨	1,593	2,082	1,655	1,274	1,990	959	2,847	2,874	1,043	16,317	9.34%
⑩	13,734	17,923	29,508	21,153	16,589	22,777	20,960	16,909	15,097	17,4650	100.00%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주: ①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② 광업 및 원유채취, ③ 제조업(마킬라도라 포함), ④ 전기 및 수도, ⑤ 건설업, ⑥ 상업, ⑦ 교통 및 통신, ⑧ 금융 및 동산, 부동산 서비스 ⑨ 공공, 호텔, 전문 서비스

□ 외국인직접투자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1999년부터 2007년 3분기까지 멕시코의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수도권인 멕시코시티에 전체 투자의 56.8%가 집중되어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북동부 산업의 중심지인 누에보레온州(주요 투자지: 몬테레이)에 대한 투자가 10.3%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도인 톨루카 시를 비롯해 많은 공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멕시코州, 마킬라도라 형태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치와와州(주요 투자지: 씨우다드 후아레스), 바하칼리포르니아州(주요 투자지: 띠후아나, 멕시코칼리), IT산업이 발달한 할리스코州가 뒤를 따르고 있다.

멕시코 주(州)별 투자유치 현황

(단위: US\$ 백만)

주(州)명	년도									합계	비중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멕시코시티	6,297	8,854	21,778	14,160	10,262	13,188	8,686	8,166	7,939	99,330	56.87%
Nuevo León	1,453	2,416	2,090	2,032	1,271	1,091	4,821	1,472	1,394	18,040	10.33%
Estado de México	1,410	496	811	729	695	3,492	780	1,249	87	9,749	5.58%
Chihuahua	606	1,081	748	633	726	809	1,515	1,422	975	8,516	4.88%
Baja California	1,168	982	857	949	735	959	1,212	924	680	8,464	4.85%
Jalisco	540	1,196	463	265	296	521	1,238	615	87	5,219	2.99%
Puebla	205	549	462	481	955	718	405	386	89	4,248	2.43%
Tamaulipas	462	489	357	324	320	223	354	491	316	3,336	1.91%
Sonora	214	417	180	199	124	253	235	280	544	2,446	1.40%
Michoacán	6	29	8	12	-12	-2	91	181	1,701	2,015	1.15%
Coahuila	225	308	189	191	115	169	139	304	102	1,742	1.00%
Baja California Sur	100	81	155	242	118	139	309	214	153	1,510	0.86%
Morelos	148	67	31	107	41	212	-56	311	445	1,306	0.75%
Guanajuato	144	74	265	158	237	29	306	-89	118	1,241	0.71%
Querétaro	139	162	198	252	51	116	41	152	103	1,215	0.70%
San Luis Potosí	208	290	188	10	78	57	125	-12	92	1,037	0.59%
Quintana Roo	99	97	123	13	53	65	122	181	65	818	0.47%
Aguascalientes	91	82	104	-14	31	237	101	100	12	744	0.43%
Veracruz	-73	24	121	166	44	18	243	55	11	609	0.35%
Nayarit	28	45	38	20	90	66	104	144	35	570	0.33%
Durango	24	38	40	79	167	15	19	114	1	497	0.28%
Tabasco	53	39	9	76	25	151	35	45	0	432	0.25%
Yucatán	41	55	138	3	30	17	-2	25	39	348	0.20%
Sinaloa	41	12	63	23	22	55	22	35	30	303	0.17%
Tlaxcala	45	4	13	-17	29	82	56	9	4	226	0.13%
Guerrero	34	11	18	15	55	25	28	31	2	219	0.13%
Campeche	5	11	-21	35	14	48	11	10	28	140	0.08%
Colima	4	9	3	-5	12	7	11	64	12	118	0.07%
Hidalgo	1	-8	76	5	2	1	-4	10	2	84	0.05%
Zacatecas	11	12	6	5	0	5	4	11	28	81	0.05%
Chiapas	4	2	-1	2	1	12	1	1	1	25	0.01%
Oaxaca	1	0	-2	5	0	2	5	7	5	23	0.01%
합계	13,733	17,923	29,507	21,152	16,589	22,777	20,960	16,908	15,096	174,650	100%

자료원: 멕시코경제부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한국의 멕시코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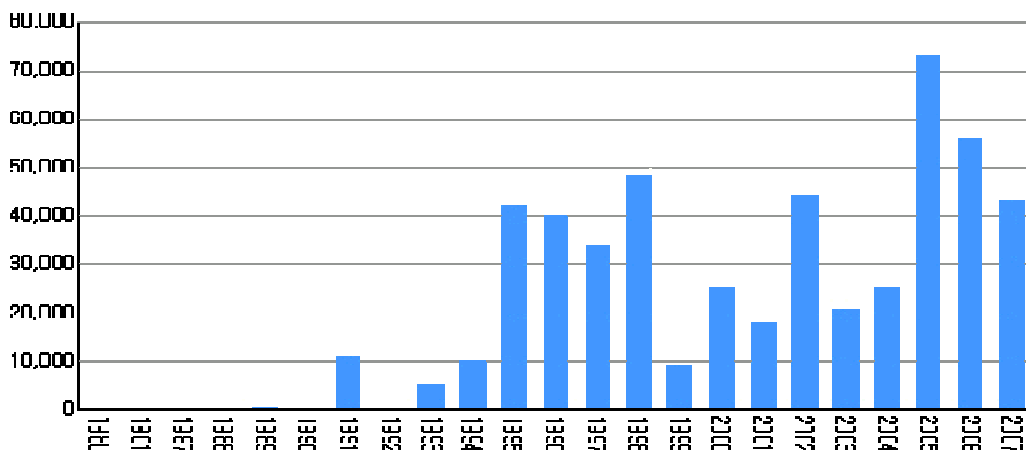
한국의 멕시코 투자는 1991년부터 본격화 되어 1994년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체결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4년 NAFTA 체결은 멕시코의 북미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미국진출을 꾀하고 있는 한국 가전기업과 협력업체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투자는 1억의 소비시장을 가진 멕시코시장 진출, 미국, 캐나다 등 북미시장 진출, 기타 중남미시장 진출확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2007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멕시코 총 투자 신고금액은 US\$ 6억 8,929만(142건)이며 순 투자금액은 US\$ 4억 8,604만(118건)을 기록하고 있다. 분야별 투자규모를 보면 제조업 투자액이 US\$ 2억 8,705만(79건)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업 투자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가전 3사와 협력업체의 동반진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멕시코 투자 추이

(단위: US\$ 천)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업종별 한국기업의 멕시코 진출 현황

(단위: US\$ 천)

업종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Total	142	689,291	118	486,042
농림어업	9	2,075	7	512
제조업	96	441,335	79	287,058
건설업	12	38,812	10	29,150
운수창고업	1	475	1	475
도소매업	15	155,125	13	118,564
통신업	1	49,493	1	49,493
서비스업	7	976	6	770
기타	1	1,000	1	65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007

최근 한국의 멕시코 투자동향을 보면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따라 한국 관련기업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GM 등 다국적기업이 생산라인을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멕시코로 옮기고 있어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멕시코 자동차산업 발전으로 철강 등 관련업계의 진출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7년 POSCO가 푸에블라(Puebla)시에 연간생산 17만 톤 규모의 자동차 강판 복합가공 서비스센터를 건설하였고 또한 멕시코만 인근 알따미라 (Altamira)시에 2억불을 들여 연간생산 40만 톤 규모의 자동차용 강판공장을 착공하였다.

멕시코 진출 주요 한국 기업

회사명	진출년도	업종	취급분야	지역
LG전자(주)멕시코법인	1987	제조업	가전	MEXICALI
삼성전자멕시코생산법인	1988	제조업	가전	TIJUANA
LG전자멕시코판매법인	1988	도소매업	가전	ESTADO MEXICO
현대트랜스리드	1991	제조업	컨테이너 등	TIJUANA
대우일렉트로닉스멕시코법인	1993	도소매업	가전	ESTADO MEXICO
대우일렉트로닉스	1994	제조업	가전	QUERETARO
삼성SDI	1995	제조업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TIJUANA
삼성전자주식회사멕시코법인	1995	제조업	전자통신제품 판매 및 제조	ESTADO MEXICO
LG전자 멕시코법인	2000	제조업	냉장고 생산	MONTERREY
LG전자 레이노사생산법인	2000	제조업	가전	Reynosa
포스-엠피시	2006	제조업	철강코일가공	PUEBLA
포스코 멕시코	2007	제조업	철강재(자동차용 도금강판)	ALTAMIRA

자료원: 무역관 조사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외국인투자 정책방향

멕시코는 1982년부터 본격적인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통신, 광업, TV, 어업, 자동차,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국영 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후 멕시코 정부는 1999년 12월에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Ley de Inversión Extranjera)을 제정하였으며, 몇 번의 개정을 거쳐 2001년에 최종 개정을 시행했다. 1998년 9월 시행령(Reglamento de la ley de inversión extranjera)을 통해 법인설립 신청요건, 투자 위원회 활동, 등록 절차 등 투자관련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이러한 투자 법 개정을 통해 헌법 및 특별법에 규정된 일부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대해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다. 즉, 일부 제한분야를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멕시코 기업의 지분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고정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 시작, 신제품 생산, 시설물의 운영, 기존시설을 확장 이전 등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투자 제한 분야

- 국가 독점 분야 (외국인 투자법 5조)
 - 석유 및 그 외의 탄화수소물
 - 기초 석유화학제품
 - 전기
 - 원자력 발전
 - 방사선 광물
 - 전신
 - 무선 전신
 - 우편 업무
 - 화폐 발행 및 동전 주조
 - 항구, 공항 및 헬기장의 관리 감독 감시
 - 기타 관련법 조항에 의거한 특별 규정 사업
-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 법인이 독점하는 분야(외국인 투자법 6조)
 - 택배나 소포 선적서비스를 제외한 국내승객, 관광객, 화물 지상운송
 - 휘발유 소매 및 천연 가스 유통
 - 케이블 TV를 제외한 라디오, TV 방송
 - 신용 조합 개발 금융 기관
 - 관련법 조항에 명시된 전문 기술 사업
- 특별 규정에 규제되는 사업(외국인 투자법 7조)
 - 최대 10% 지분의 사업: 합작 회사(협동생산회사)
 - 최대 25% 지분의 사업: 국내항공운송, 항공택시, 특수 항공 운송
 - 최대 49% 지분의 사업
 - 금융 그룹의 지주회사, 복합 금융기관, 중개소, 증권거래, 보험회사, 채권회사, 외환 회사, 보세창고, 증권거래법 12 항에 해당되는 회사, 상호기금 고정자본 출자, 상호 기금 경영, 퇴직기금 운용회사
 - 폭발 혼합물 및 산업용으로 폭발물을 구매할 경우를 제외한 폭발물 제조 및 유통, 총기류 및 총환, 탄약 등의 제조 판매, 국내 유통 신문 인쇄 및 발행, 농지, 축산지 혹은 임업 지를 소유한 회사의 T계열 주식, 케이블 TV, 전화서비스, 경제 제한 구역 및 연안지역에서 양식업을 제외한 어업활동, 항구 통합 관리, 선박의 국내 수로이용 관리(관광용 크루즈 제외), 선박, 비행기, 철도의 연료나 운할유 공급
- 멕시코 투자위원회 승인 하에 49%이상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외국인 투자법 8조)
 - 선박 국내 운항 예항 정박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
 - 원양어업 선박만 운영하는 해운회사
 - 공용 비행장 피 면허자
 - 교육부문의 사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 그 이상의 복합 교육기관
 - 법률 서비스
 - 신용정보회사
 - 유가증권 평가기관
 - 보험중개사
 - 이동전화 서비스
 - 석유 및 수송 도관 공사
 - 유정 및 천연가스정 시추
 - 대중 철도 교통 부설 운영 및 공공 철도 운송 서비스

- 지분을 획득하고자 하는 멕시코 기업의 고정자산 총액이 7.12억 페소 (약 6,472 만불)를 넘을 경우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외국인 투자법 9조).

2)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 전략지역인 미-멕시코 국경 100킬로미터 이내 지역 및 해안 50킬로미터 이내 지역 부동산 취득의 경우, 비거주 목적일 경우에 한해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만약 외국인 투자자가 동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소유권 신탁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비 거주 목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일부 거주용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 상업 혹은 관광 업종
 - 신용기관, 금융 중개업 및 신용 보조기관이 영업활동과 관련한 담보로서 취득한 부동산
 - 토지 매매, 주거지화, 건축, 지역 개발과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시적인 부동산 개발을 포함한 영업활동
 - 일반적인 상업, 산업, 농업, 목축, 어업, 임업 및 서비스 활동

3) 투자 인센티브

□ 기본방향

-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연방 정부에서 세가지 인센티브를 홍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멕시코의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볼 수 없다.
-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각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훈련비 지원, 2% 대의 PAYROLL TAX(지급 고용주세)감면, 부동산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자산등록 비용/ 토지 이용세/ 건축인허비용/ 각종 인지대 감면 등을 들 수 있다.
- 각 지방정부의 인센티브는 최대 제공 가능범위에 대한 가이드 라인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투자건 별로 해당 지방정부와 건건이 인센티브를 협상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범위를 교섭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신규 고용 창출 규모이며, 투자규모, 업종, 투자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인센티브는 투자 건 별로 제공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에보레온주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문의할 때에, A사가 물어볼 때의 답변이 다르고, B사가 물어볼 때의 답변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 중소기업의 소규모 투자진출 시 지방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의 혜택이 크지 않고 인센티브에 대한 접근도 쉽지 않으므로, 투자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인센티브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좋다.
- 연방정부 제공 인센티브
 - 특정 자산에 한해 자산 취득연도 또는 다음 해에 해당 자산 가치의 96%까지 공제 해주고 있다. 마킬라도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제기간은 협상결과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컴퓨터 제조용 부품: 최대 96%까지 공제 가능
- 컴퓨터: 최대 94%까지 공제 가능
- R&D용 기계류: 최대 95%까지 공제 가능
- 기계 부품: 최대 85%까지 공제 가능
- 건설투자비: 최대 74%까지 공제 가능
- R&D비용의 세액공제 혜택: 신제품 개발, 신제품 생산라인, R&D 훈련 프로그램 등의 R&D 프로젝트에 대해 총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 가능하다.

○ 지방정부 제공 인센티브

- 아래 표는 멕시코 북동부 5개 주 별로 최대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에 대한 것이며, 실제 투자 케이스에 대한 인센티브는 건 별로 달라지므로 각 지방정부의 담당 부서를 접촉, 문의해야 한다.

멕시코 북동부 5개 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기본 프레임

주(STATE)명	주요 산업도시	교육훈련비 지원*	지급 급여세(2%)감면	기타
NUEVO LEON (누에보레온)	MONTERREY (몬테레이)	- 기간: 최장 3개월 - 지원: 최저 임금의 1.5배 - 조건: 훈련 인원의 70% 이상 의무 고용	- 기간: 1년, 연장 가능 - 지원: 몬테레이 광역 지구 50% 감면, 기타 지역 95% 감면	- 공급업체물색 지원 - 연방 정부 및 시 정부 교섭 지원
TAMAULIPAS (따마울리빠스)	REYNOSA (레이노사) NUEVO LAREDO (누에보라레도) MATAMOROS (마따모로스)	- 기간: 최장 3개월 - 지원: 직위에 따라 최저 임금의 1-3배까지 지원 - 조건: 훈련 인원의 70% 이상 의무 고용	(신규 투자 시) 마따모로스, 누에보라레도, 레이노사, 알따미라 • 기간 및 지원: 최초 2년간 최대 100%, 이후 2년 간 50%까지 감면 • 조건: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제조, 의료, 석유 화학, 플라스틱, 폴리머 업종에 한함. • 1차 년도 250 명, 2차 년도 150 명 이상 신규 고용 창출 의무. 기타지역 • 기간 및 지원: 최장 4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 • 조건: 1차 년도 150명, 2차년도 100명 이상 신규 고용 창출 의무 정규직 20명 이상 상시 고용 시 최대	- 법인설립 및 자산 등록 관련 각종 인 지대 최대 75% 까지 감면 - 공장 부지 취득 시 최대 50%까지 토지인수지원 가능

			100%까지 감면 · 레이노사, 알따미라, 마데로, 팜삐꼬: 최장 2년 간 · 누에보라레도, 마따모로스, 빅토리아 시: 최장3년간	
COAHUILA (코아우일라)	SALTILLO (살띠요) TORREON (토레온)	- 기간: 1-3개월 - 지원: 최저 임금 지원. 지원액 총액이 회사 지급 명목 임금의 80%를 초과 할 수 없음.	기간: 1년, 연장 가능 - 지원: 최대 100%까지 감면	- 건축인허가 비용100%감면 - 각종인허가업무지원 - 시정부 교섭지원
CHIHUAHUA (치와와)	CHIHUAHUA (치와와) CD. JUAREZ (씨우다드 후아레스)	- 기간: 최장 2개월 - 지원: 최저 임금 지원.	- 치와와, 후아레스 시: 최대 50%까지 감면 - 기타지역: 최대 100% 까지 감면 감면기간은 건별협상	- 재산세, 부동산 양도세, 토지용도 변경 비용 등의 일부 지방세 감면. - 감면율은 건별협상 - 공급업체물색 지원
SONORA (소노라)	NOGALES (노갈레스) HERMOSILLO (에르모시요)	- 초기 교육훈련비 지원 · 지원범위및 기간 은 건별로 협상 필요.	- 감면기간 및 %는 고용 창출 규모에 따라 달라짐. - 기본 조건: 정규직 최소 50명 이상 고용 하고 다음의 조건중 하나 이 상을 충족해야 함 · 투자 지역 산업 다양화 기여. 소노라 주 생산 부품 및 소재를 40% 이상 사용할 것. · 소노라 주 소재 업체에 생산품의 50% 이상을 납품할 것 · 가공된 원자재의 50% 이상을 수출할 것 · 종업원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자 비중이 30% 이상일 것 · 기계 및 장비에 US\$ 1천만 이상 투자 또는 인프라 에 US\$ 5백만 이상 투자 할 것	- 주정부 사무실 무상 사용 가능 - 자산등록 인지대 감면 - 기타 투자지역 및 규모에 따라서 인프라 지원 협상 가능

주: 법정 최저임금은 비현실적인 금액이므로, 교육 훈련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최저 임금만 받고 일할 근로자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실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실제 임금과 지방 정부가 지원하는 최저 임금간의 차액을 부담하게 된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투자진출형태

멕시코의 외국인 직접투자 형태는 크게 구주취득과 신주취득으로 나뉘어진다. 구주취득은 기존의 멕시코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이며, 신주취득은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인 투자가가 멕시코 내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무부의 회사설립 허가를 받은 후, 정관작성, 재무부 납세자 등록을 거쳐 국가 외국인 투자등록 시스템(RNIE)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멕시코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국이 NAFTA 회원국인지 비 NAFTA국가인지에 관계 없이 내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 멕시코 상법은 다음의 6가지 법인형태를 명시하고 있으나 주식회사(S.A.)와 가변자본 주식회사(S.A. de C.V.)가 가장 보편적이다.

- 주식회사 (Sociedad Anonima / S.A.)
- 가변자본주식회사 (Sociedad de Anonima de Capital Variable / S.A. de C.V.)
- 유한책임회사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 S. de R.L.)
- 합명회사 (Sociedad en Nombre Colectivo / S.N.C)
- 합자회사 (Sociedad en Comandita Simple / S.C.S)
- 협동조합 (Sociedad Cooperativa / S.C.)

주식회사 및 가변자본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차이점

구 분	주식회사 및 가변자본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최소 자본금	MXN 50,000 (약 US\$5,000)	MXN 3,000 (약 US\$300)
설립에 필요한 인원	최소 주주 2명 필요	파트너 수 최소 2명, 최대 50명
회사 경영	이사회가 경영 가능	파트너가 회사 경영해야

유한책임회사(S. de R.L.)는 주식회사보다 유동적이고 제약이 적지만 멕시코 국내기업 중 보편화된 법인형태는 주식회사이다.. 외국인 투자기업, 특히 미국기업들이 정관변경의 용이성과 미국 본국에서의 절세목적에 의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나. 지사(현지법인)과 지점, 연락사무소의 구분

외국인의 멕시코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지사(현지법인) 설립, 지점 설립,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3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지사, 즉 현지법인은 멕시코 국내법에 의거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지점은 해외 모기업의 지점을 멕시코 내에 설치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고 연락사무소는 본사를 위한 비 영업활동만 수행할 수 있는 사무소 설치를 말한다. 현지법인을 설립하든 지점을 설립하든 멕시코 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 납세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지점 설립절차가 법인 설립절차보다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며, 법적 책임이나 세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멕시코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법인 설립을 선호하고 있다.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국 모기업의 정관을 비롯하여 기업설립 근거서류 일체를 멕시코 법원이 지정한 법정 통번역사에 번역을 의뢰하여 스페인어로 제출해야 하므로, 설립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법인설립의 경우보다 많이 소요된다.

또한, 지점의 법적 책임은 한국 본사에 귀속되므로, 멕시코 현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소송의 대응 책임이 한국 본사에 있다. 즉, 주재국 노동법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 소송의 경우, 한국 본사가 소송의 대상이 되며, 모든 법적 대응의 책임을 가진다.

한편, 멕시코 세법에 따르면, 멕시코 재무부는 지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본사 모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설사 지점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멕시코 정부가 한국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위험 부담이 따르게 된다.

구 분	현지법인 (지사)	지점
법적 지위	멕시코 내국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도 멕시코 내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음.	외국기업의 국내지점. 모든 법적책임이 한국 본사에 귀속됨.
설립비용 및 시간	1.5개월 - 2개월 변호사 비용 US\$ 4,000 - 5,000 자본금 US\$300 - US\$5,000	1-1.5개월 변호사 비용 US\$ 8,000 - 10,000 자본금 없음.
활동 범위	모든 기업활동 영위	이익을 수반하는 영업활동 영위 가능. 고용 가능.
납세 의무	있음.	있음.
법적 책임	현지법인에 귀속	한국 본사에 귀속

다. 법인 설립 절차

아래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회사 사정 및 소요기간에 따라서 4단계 이후 순서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1) 상호 사용 허가 취득 (외무부)

최소한 3개의 상호(회사명) 후보를 선택해서 외무부(Se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 SRE)에 제출하고 회사명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상호를 최대 5개까지 우선순위로 기재할 수 있다.

- 제출처: 외무부 법제국(Dirección General de Asuntos Jurídicos)
- 제출서류: 상호등록 신청서 양식, 수입인지 납부증서
- 소요비용: MXN 555.00
- 소요기간: 1일

2) 정관 작성 및 공증사무소 등록 (공증사무소)

스페인어로 회사 정관(Acta constitutive)을 작성해서 공증사무소(Notario Público)에서 공증을 받고 정관을 등록한다. 정관에는 최소 2명의 주주 이름과 법인 주소지, 자본금, 주주총회 개최 기록, 이사회 개최기록, 회사 청산 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 정관을 등록할 때는 전체 투자액의 최소 20%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나머지는 1년 이내에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주소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 주소지를 기재한 후, 나중에 확정된 주소지로 변경하면 된다. 소요비용은 자본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본금이 5만 페소라면 약 8,500페소의 수수료가 들고, 20만 페소라면 1만페소 정도가 소요된다.

3) 법인납세번호(RFC) 등록 (재무부)

재무부(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조세관리청(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SAT)에 법인 납세자번호(RFC)를 신청해서 번호를 부여 받는다. 회사 소재지와 가까운 SAT 지부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번호(RFC)는 회사의 판매 및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발급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서와 공식 서류 작성에 요구되며, 법인명의 은행구좌 개설, 법인카드 발급부터 전화서비스 신청까지 법인의 모든 활동에 필요한 필수 번호이다.

SAT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임시 납세자번호를 발부해주며, 재무부에서는 신청서에 기입된 법인소재지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재무부 감사 시 법인 대표자가 반드시 있어야 함) 정식 납세자번호를 발급한다.

- 제출처: 재무부 조세관리청(SAT) 지부
- 제출서류
 - 납세자번호 신청서양식 (R-1)
 - 회사 정관 공증사본
 - 법인의 법적 대표자의 신분증 원본

4) 외국인 투자국에 투자기업 등록 (경제부)

외국인투자기업은 납세자번호(RFC)를 부여받고 30일 이내에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 외국인 투자국(Direccion General de Inversion Extranjera)의 외국인 투자 국가 등록 시스템(RNIE)에 투자 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 제출처: 경제부 외국인 투자국 (Direccin General de Inversin Extranjera)
- 제출서류: 외국인투자 등록 신청서(서식 SE-02-001, 004)

5) 은행구좌 개설

법인명의 은행구좌를 개설한다.

6) 자산등기소 등록

각 지역별로 소재한 자산등기소(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 y de Comercio)에 회사를 등록한다. 이 절차는 위의 3, 4단계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 소요비용: 비용은 자본금에 따라 다른데, 자본금이 5만 페소일 경우 875 페소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소요기간: 15일 이내

7) 보건부 등록

업종상 보건관련 등록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번호(RFC)를 부여받은 후 10일 이내에 멕시코 보건부에 회사설립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서류: SSA-03-002-A Communication for setting up company
- 담당부서: 보건부, 제품 및 서비스 위생관리국 (Unidad de Atención al Público de la Dirección General de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y Servicios)
- 소요비용: 무료
- 소요기간: 24시간 이내

8) 환경면허 신청

먼저 환경부(Secretaría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SEMARNAT)에 환경면허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한 후, 환경영향관리과(Dirección General de Impacto y Riesgo Ambiental)에 면허를 신청한다.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 보호과 (Subdelegación de Gestión para la Protección Ambiental) 산하 환경영향 관리과 (Dirección General de Impacto y Riesgo Ambiental)
- 제출서류: 회사등록신청서(INE-04-004-A), 위험 폐기물처리관련 등록 (INE-04-001-A)
- 소요기간: 30-45일정도

9) 노동자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위원회 설립 등록 (노동부)

노동부(Secretaría de Trabajo)에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교육 위원회 설립을 등록한다. 노동부에서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는 이상, 보통 24시간 내에 등록 완료된다.

- 담당부서: 노동부
- 제출서류
 - STPS-04-001-A Registration of plans and training programs
 - STPS-04-004 Establishment of the training commission.
 - STPS-05-001-A Establishment of the security and health commission. (각 회사별로 차이가 있음)

10) 고용주 및 피고용인 사회보험 등록

직원 채용 5일 이내에 사회보험에 등록해야 한다. 회사 소재지에서 가까운 사회보장 기구(IMSS)에 회사를 등록함. IMSS에 등록하면 주택기금청(INFONAVIT)과 국가연금기구(Comisión Nacional del Sistema de Ahorro para el Retiro)에도 같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 제출서류
 - 회사 회사 등록양식(AFIL-01), 사용자용 사회보험 가입신청서(CLEM-01),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신청, 정관사본, 납세자번호(RFC) 등록증 사본, 법인대표자 신분증
 - 근로자신분증, 출생증명서(acta de nacimiento), FM-3 비자(외국인일 경우)
- 소요기간: 3일 내외 소요
- 소요비용: 무료

11) 멕시코 기업 정보 시스템 등록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멕시코 기업정보시스템 (SIEM)에 등록한다. 등록하기 전에 먼저 SIEM의 웹사이트(www.siem.gob.mx)에서 기업활동 및 제품분류(Clasificacin Mexicana de Actividades y Productos: CMAP)를 확인해야 한다.

- 소요 비용: 제조업(industrial)의 경우 150-670 페소, 상업 및 서비스 업(comercial, servicio) 인 경우 100-640 페소
- 소요기간: 상공회의소에 따라서 다르나, 대체로 5일 이내

6. 투자입지여건

가. 외국인투자 집중지역

멕시코의 31개 주(州)와 1개 특별시 중 외국인투자 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멕시코시티 (수도)
- 2) 누에보레온주 (주요 투자지: 몬테레이)
- 3) 멕시코주
- 4) 바하 캘리포니아 (주요 투자지: 띠후아나, 멕시코칼리)
- 5) 치와와주(주요 투자지: 씨우닷 후아레스, 치와와)
- 6) 할리스꼬주 (주요 투자지: 과달라하라)
- 7) 따마울리빠스주(주요 투자지: 레이노사, 마따모로스, 누에보라레도)
- 8) 뿌에블라주(주요 투자지: 뿌에블라)
- 9) 소노라주 (주요 투자지: 에르모시요)
- 10) 꼬아우일라주 (주요 투자지: 살띠요, 또레온, 빼에드라스네그라스)

나. 산업단지 현황

멕시코 산업공단협회(AMPIP)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국경 및 내륙지역에 걸쳐 총 336개의 산업공단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 등록 산업공단이 등록 공단에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총 산업 공단수는 약 1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멕시코 내에는 145개 산업개발 공단업체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산업공단협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공식 명칭은 AMPIP (ASOCIACION MEXICANA DE PARQUES INDUSTRIALES)으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전화: (52-55) 5281-4422 / 팩스: (52-55) 5281-5984
- 주소: Solón No. 352, Polanco, México, D.F. ,CP 11530
- 홈페이지: <http://www.ampip.org.mx>

외국인 투자자의 70% 이상이 AMPIP회원사 산업공단에 입주하고 있으며 인프라 설비 등의 면에서 AMPIP회원사 산업공단이 일반 산업공단보다 입주여건이 유리하다. 참고로 현재 산업공단 협회 회원 공단에 멕시코에 진출한 FORTUNE 500대 기업의 60%이상이 진출해 있다.

산업공단협회(AMPIP)홈페이지에 주요 회원사 공단이 크게 북서 부, 북동부, 중서부, 중남부 4개로 구분되어 지역별로 소개되어 있으며, 각 지역별 주요 공단명 및 연락처가 소개되어 있어 산업단지 검색 시 동 사이트 활용이 유리하다.

다. 산업 단지의 특징

멕시코는 산업의 지역분산, 산업공단을 통한 기초인프라 개발, 국내외 기업설립 촉진을 위해 공단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전국에 336개가 분포하고 있다.

멕시코에는 산업공단 입주에 국·내외 기업간 차별이 없으며, 산업공단 입주업체에게 중앙 정부 차원의 특별 인센티브는 없고 지방정부(주정부) 차원에서 세제 및 행정 절차 등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GUANAJUATO주에 위치한 가죽, 신발 업종 전용 산업공단을 제외하고 멕시코 내에는 업종 별 전용 산업공단은 없고 업종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업체는 대체적으로 식품, 섬유, 봉제, 기계, 전기, 전자, 금속, 화학, 건축, 수송장비 조립, 목재 가공 등의 업종이다.

멕시코의 산업공단은 한국에서의 산업공단과는 다소 개념이 다른데, 멕시코의 경우 대부분이 (일부는 주정부에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음) 민간 건축업자가 자의적으로 공단을 개발하고 여기에 전기, 상하수도 등 기초 인프라 설비를 갖추어 공장입주 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 건축업체가 임의적으로 개발, 매각 또는 임차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특정 지역의 산업 공단에 입주하려는 업체는 여러 산업공단을 별도로 접촉, 인프라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입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공단마다 인프라 개발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업종에 따라 특정 인프라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마케팅 전략 차원의 지리, 수송, 물류관리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업체가 입주한 상당수의 공장이 정식 공단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라 토지주로부터 토지 매입 후 공장을 건축한 경우도 빈번하다.

7. 노동관리

가. 기본 개념

멕시코의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종업원의 주장이 옳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므로 회사가 진위여부를 밝힐 책임을 지게 된다. 연방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고용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종업원 스스로 부당한 계약을 이해하고 이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판결을 받게 된다.

멕시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 보장: 법정 최저임금은 실제 임금수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저절로 최저임금을 보장하게 되어 있음.
- 급여삭감 금지: 고용주는 어떤 경우에도 종업원의 기본급을 삭감할 수 없음. 종업원이 기본급 삭감에 동의하더라도, 후일 소송 제기시 부당처우로 간주되어 패소하게 되어 있음.
- 동등대우: 같은 직종, 같은 근로시간과 산출물이 같은 근로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적용해야 함.
- 퇴직금 보장: 고용주가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 고용종료의 사유에 대해 법이 규정하는 확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근무연한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함.

나. 채용방법

해당 지역의 유력 일간지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역 TV를 통해서 구인 광고 방송을 내기도 한다. 한꺼번에 많은 수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호텔에서 독자적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대졸 이상 사무직 직원은 구인광고를 통하기도 하지만, 대학의 취업사무실에 추천을 의뢰 하여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허위 또는 과장된 이력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력서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다. 인력수급 현황

전국적으로는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외국인투자가 집중되는 주요 거점도시와 미국과 국경이 인접해 있어서 마길라도라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멕시코 북부의 띠후아나, 멕시코칼리, 레이노사, 누에보라레도, 마따모로스, 씨우닷후아레스와 같은 도시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공장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

전반적으로 공장근로자 임금은 미국 대비 낮은 편이지만, 숙련공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한국보다 노동생산성이 낮다. 주요 도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경우, 능력있는 관리자급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미국 수준의 급여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라. 고용계약

고용계약은 개별계약과 단체계약으로 구분된다. 개별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본인간의 계약을 말하며, 단체계약은 고용주와 노동조합간의 계약을 의미한다. 단기 프로젝트 수행과 같이 업무 성격상 종료시한이 분명한 경우에는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업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모든 고용계약은 불특정 기간 계약 (contrato indefinido)으로 간주된다. 파트타임 고용은 작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기존 근로자의 휴가나 질병으로 인해 임시로 대체 작업자를 구하는 경우, 예술가나 항공기 조종사와 같이 노동법상 예외로 인정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 근무시간

표준 근무시간은 주간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1일 최대 8시간이며, 야간의 경우 저녁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1일 최대 7시간이다. 주야간 혼합근무의 경우 야간

근무시간이 3시간 미만으로 제한되며 1일 최대 7.5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또한, 주간근무는 주 48시간, 야간 근무는 주 42시간으로 제한되며, 근무일수는 주 6일을 넘지 못한다. 중식시간과 1일 30분씩 부여되는 휴식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됨.

법정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법정 공휴일	선택 공휴일
- 1월1일 신정 - 2월5일 제헌절 - 3월21일 베니토 후아레스 탄신일 - 부활절 연휴. 보통 3월말 - 4월 목/금. 매년 날짜 변동. - 5월1일 노동절 - 9월16일 독립기념일 - 11월2일 혁명기념일 - 12월1일 대통령 취임식. 6년에 1번. - 12월25일 성탄절	- 5월5일, 대불전승기념일 - 5월10일 어머니날 - 10월12일 신대륙 발견일 - 11월2일 만성절 - 12월12일 성모발현기념일 * 선택공휴일은 회사 재량에 따라 운용

바. 급여 체계

1) 급여의 정의

연방노동법 제84조에 따르면, 급여(salario)는 일일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료, 사례금, 수당, 주택 제공, 보너스, 수수료, 현물 지급 및 기타 다른 형태로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구성된다. 기본급여(salario base)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하며, 초과 근무수당 및 휴일 근무 수당은 기본급여를 일단위로 계산하여 산출된다. 고용주는 기본급여 외에 법정 복리후생비(las prestaciones por la ley)를 부담해야 하며, 법적 복리후생비는 대개 급여의 40% 정도이다. 영업직의 경우 동기 유발을 위해서 기본급 외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comisión) 항목을 추가하여, 기본 급여보다 더 높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2) 급여 수준

최저임금 (2007년)

지역구분	최저임금 (MXN)
A 지역	50.57
B 지역	49.00
C 지역	47.60

자료원: 멕시코 국세청

주) A 지역: los Estados de de Baja California y Baja California Sur; los municipios de Guadalupe, Juárez y Praxedis G. Guerrero, del Estado de Chihuahua; el Distrito Federal; el municipio de Acapulco de Juárez, del Estado de Guerrero; los municipios de Atizapán de Zaragoza, Coacalco de Berriozábal, Cuautitlán, Cuautitlán Izcalli, Ecatepec de Morelos, Naucalpan de Juárez, Tlalnepantla de Baz y Tultitlán, del Estado de México; los municipios de Agua Prieta, Cananea, Naco, Nogales, General Plutarco Elías Calles, Puerto Peñasco, San Luis Río Colorado y Santa Cruz, del Estado de Sonora; los municipios de Camargo, Guerrero, Gustavo Díaz Ordaz, Matamoros, Mier, Miguel Alemán, Nuevo Laredo, Reynosa, Río Bravo, San Fernando y Valle Hermoso, del Estado de Tamaulipas, y los municipios de Agua Dulce, Coatzacoalcos, Cosoleacaque, Las Choapas, Ixhuatlán del Sureste, Minatitlán, Moloacán y Nanchital de Lázaro Cárdenas del Río, del Estado de

Veracruz de Ignacio de la Llave. / B지역: los municipios de Guadalajara, El Salto, Tlajomulco de Zúñiga, Tlaquepaque, Tonalá y Zapopan, del Estado de Jalisco; los municipios de Apodaca, San Pedro Garza García, General Escobedo, Guadalupe, Monterrey, San Nicolás de los Garza y Santa Catarina, del Estado de Nuevo León; los municipios de Altar, Atil, Bácum, Benito Juárez, Benjamín Hill, Caborca, Cajeme, Carbó, La Colorada, Cucurpe, Empalme, Etchojoa, Guaymas, Hermosillo, Huatabampo, Imuris, Magdalena, Navojoa, Opodepe, Oquitoa, Pitiquito, San Ignacio Río Muerto, San Miguel de Horcasitas, Santa Ana, Sáric, Suaqui Grande, Trincheras y Tubutama, del Estado de Sonora; los municipios de Aldama, Altamira, Antiguo Morelos, Ciudad Madero, Gómez Farías, González, El Mante, Nuevo Morelos, Ocampo, Tampico y Xicoténcatl del Estado de Tamaulipas, y los municipios de Coatzintla, Poza Rica de Hidalgo y Tuxpam, del Estado de Veracruz de Ignacio de la Llave / C 지역: todos los municipios de los Estados de Aguascalientes, Campeche, Coahuila de Zaragoza, Colima, Chiapas, Durango, Guanajuato, Hidalgo, Michoacán de Ocampo, Morelos, Nayarit, Oaxaca, Puebla, Querétaro de Arteaga, Quintana Roo, San Luis Potosí, Sinaloa, Tabasco, Tlaxcala, Yucatán y Zacatecas; todos los municipios del Estado de Chihuahua excepto Guadalupe, Juárez y Praxedis G. Guerrero; todos los municipios del Estado de Guerrero excepto Acapulco de Juárez; todos los municipios del Estado de Jalisco excepto Guadalajara, El Salto, Tlajomulco de Zúñiga, Tlaquepaque, Tonalá y Zapopan; todos los municipios del Estado de México excepto Atizapán de Zaragoza, Coacalco de Berriozábal, Cuautitlán, Cuautitlán Izcalli, Ecatepec de Morelos, Naucalpan de Juárez, Tlalnepantla de Baz y Tultitlán; todos los municipios del Estado de Nuevo León excepto Apodaca, San Pedro Garza García, General Escobedo, Guadalupe, Monterrey, San Nicolás de los Garza y Santa Catarina; los municipios de Aconchi, Alamos, Arivechi, Arizpe, Bacadéhuachi, Bacanora, Bacerac, Bacoachi, Banámichi, Baviácora, Bavispe, Cumpas, Divisaderos, Fronteras, Granados, Huachinera, Huásabas, Huépac, Mazatán, Moctezuma, Nácori Chico, Nacozari de García, Onavas, Quiriego, Rayón, Rosario, Sahuaripa, San Felipe de Jesús, San Javier, San Pedro de la Cueva, Soyopa, Tepache, Ures, Villa Hidalgo, Villa Pesqueira y Yécora, del Estado de Sonora; los municipios de Abasolo, Burgos, Bustamante, Casas, Cruillas, Güémez, Hidalgo, Jaumave, Jiménez, Llera, Mainero, Méndez, Miquihuana, Padilla, Palmillas, San Carlos, San Nicolás, Soto la Marina, Tula, Victoria y Villagrán, del Estado de Tamaulipas, y todos los municipios del Estado de Veracruz de Ignacio de la Llave, excepto Agua Dulce, Coatzacoalcas, Coatzintla, Cosoleacaque, Las Choapas, Ixhuatlán del Sureste, Minatitlán, Moloacán, Nanchital de Lázaro Cárdenas del Río, Poza Rica de Hidalgo y Tuxpam.

○ 실제 급여 수준

-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임금수준은 3-4배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현장 작업자이든 사무직이든 임금수준이 한국 기업들의 기대치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현장 작업자들의 급여가 10% 이상 올랐다고 한다. 현장 작업자들의 임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외국 기업들이 집중되는 지역, 즉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의 임금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다고 보면 된다.
- 2007년 기준, 북부 경제중심인 몬테레이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US\$ 5 수준이며, 살띠요는 US\$ 3.5 정도이고, 레이노사나 마따모로스 같은 북부 국경지대는 US\$ 2.5 - 3.0 정도이다. 북부 주요 지역의 관리자급 급여는 미국 수준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북부 국경 도시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현지인 관리자를 채용하더라도 인접한 미국 도시에 거주하 면서 출퇴근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미국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3) 법정 복리 후생비(las prestaciones por la ley)

- 휴가 보너스(prima vacacional): 해당 휴가일수에 대해 일일 급여의 25%를 지급함.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일일 급여의 50%를 지급하고 있음.
- 연말보너스(aguinaldo): 매년 12월20일 전까지 급여의 최저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함.
- 사회보장세(IMSS): 1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가진 고용주는 모든 종업원을 IMSS에 가입시켜야 함. IMSS의 부담률은 기본급여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나, 평균적으로 고용주가 70%, 종업원이 25%, 정부가 5%를 부담하고 있음.
- 근로자주택기금(INFONAVIT): 고용주에게 근로자의 적정주택마련의 의무가 부여되므로,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주택기금(INFONAVIT)에 가입하고 근로자 별로 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함.
- 퇴직충당금(SAR): 근로자 별로 퇴직충당금 구좌를 만들어서 매월 급여의 2%를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옮길 경우, SAR 구좌도 같이 이관됨.
- 장기근속수당: 정규 근로자는 매년 12일치 임금을 장기 근속수당으로 지급 받음.
- 종업원 이익배당(profit sharing)
 - 모든 회사는 세전수익의 10%를 근로자에게 분배해야 하며, 분배율은 정부 이익분배 위원회가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함.
 - 많은 현지기업들은 종업원 이익배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익이 산출되는 모기업과는 별도의 종업원 관리회사를 설립해서 이사진을 제외한 모든 종업원을 종업원 관리회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음. 모기업은 종업원 관리회사에 종업원 급여 외에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최소한의 이윤을 붙여서 지불함으로써 종업원이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 관리회사의 이윤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해서 이익배당을 회피하고 있음.

4) 기타 선택적 복리후생비

많은 현지기업들은 법정 복리후생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혜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 사설 의료보험: 사무직 근로자 및 관리자의 경우, 정부의 사회보장제도(IMSS) 이외에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해주는 경우가 많음.
- 생명보험
- 차량보험
- 각종 상품권: 슈퍼마켓 상품권, 주유 상품권, 식당 상품권 등
- 저축 기금 가입
- 대출: 회사에서 목돈을 선지급한 후, 매월 급여에서 차감하는 형태가 일반적임
- 교통비
- 교육훈련비 지원
- 주택임차 지원

5) 초과근무수당

주 9시간 범위 내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규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9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규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공휴일 및 일요일 근무시에는 시간외 수당 외에도 25%의 프리미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무직 근로자들은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가근무를 하더라도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6) 급여 지급방법

급여 지급장소는 근로자의 근무지가 되며 현지화로 지급해야 한다. 공장 작업자에 대한 급여 지급주기는 1주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 근로자들의 경우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 휴가제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무일 기준으로 연간 6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데 유급휴가일수는 12일이 될 때까지 매년 2일씩 늘어나다가 12일에 달하는 해부터는 5년마다 2일씩 늘어난다.

근무연수	유급휴가일수
1년	6일
2년	8일
3년	10일
4년	12일
5-9년	14일
10-14년	16일
15-19년	18일
20-24년	20일
25-29년	22일

- 법정 휴가 수당 (PRIMA VACIOANAL): 노동법에 따라서, 휴가기간 임금의 최소 2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음.

퇴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가지 않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 현지기업들은 업무로 인해 부득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고 있다.

아. 해고 절차와 조건

1) 해고절차

멕시코에서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해고 종업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다고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정당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사건 경위 조서(Acta Administrativa)를 작성하여 문제의 종업원 본인과 증인들이 서명을 해야 한다. 고용계약 종료 일자와 사유를 명시하는 서면 통지문 2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종업원에게

전달하고, 다른 한 부에는 근로자의 수령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종업원이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고용 종료일 이후 5일 이내에 해당 노동 분쟁 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기 등록 된 종업원의 주소지로 동일한 통지문을 발송하며, 종업원에게 이에 대한 통고를 요청하면 된다. 또한, 향후 종업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때에 대비하여 근거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 연방노동법이 규정하는 동시에 종업원이 납득하고 합의하는 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고용주는 종업원 해고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근무 개시 후 30일 이내에 가짜 증명서나 신원 보증서로 사용자를 속인 사실이 적발된 경우
- 근로자가 사용자, 그의 가족, 사업장의 최고 경영자, 인사 담당자에게 부정직하거나 불미스러운 행동·폭력·위협·학대를 가한 경우. 단, 화나게 만들거나 자기 방어를 위한 경우는 예외
- 근로자가 상기 항에 언급된 행동을 동료 근로자에게 행하여 직장 내의 규율이 영향을 받는 경우
- 근로자가 업무 이외의 일로서 제 2항의 행위를 범하여, 고용 계약의 이행을 불가능 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건물, 작업 도구, 원자재, 기타 사물들에 피해를 가한 경우
- 부당한 의도는 아니지만 피해의 유일한 원인으로 부주의로 5번과 같은 중대한 피해를 가한 경우
-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로 회사내의 안전과 직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
- 회사나 작업장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범한 경우
-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조 기밀이나 극비 사항을 타인에게 알린 경우
- 사용자의 허락 또는 충분한 사유 없이 30일의 기간 중 3번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 업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충분한 사유 없이 사용자나 상관의 말에 불복종 한 경우
- 근로자가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설정해 놓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만취한 상태 또는 마약 등을 복용한 상태로 출근한 경우
-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금고형 집행 판결을 받은 경우
- 상기 항목들의 내용과 유사한 이유들로서 중차대하고, 또 유사한 결론을 유발하는 경우

2) 법정 퇴직금

- 자진사직의 경우
 - 자진사직의 경우에는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미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 및 휴가 보너스, 연말 보너스(aginaldo)를 산출하여 지급하면 됨.
 - 근로자가 자진사직을 하면서도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진사직서와 법정 퇴직금 수령증을 작성하여 서명과 지문날인을 받아두어야 함.
- 노동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노동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보상 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음.
- 노동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불특정기간 계약 (contrato indefinido): 3개월치 급여에 근무연수 1년당 20일치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 밖에도 자진사직의 경우와 같이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미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 및 휴가 보너스, 연말 보너스(aginaldo)를 산출하여 지급해야 함.

- 1년 이하의 특정 기간 계약: 3개월치 급여에 법정 체불 임금에 더하여 전체 근무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함.
- 1년 이상의 특정 기간 계약: 3개월치 급여에 법정 체불 임금에 더하여 근무 1년차 급여 6개월치와 근무연수별로 20일치 급여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함.

자. 노동조합

1) 노조 결성 조건

20명 이상의 종업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고용 조건에 관한 단체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연방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에 따라 노조의 활동이 보장되어 있다. 대부분의 제조업 회사에는 노조가 조직되어 있고 단체 노동 협약이 시행되고 있으나, 종업원 수가 20명이 넘는데도 노조가 없는 경우도 있다.

2) 노조의 성향

멕시코 전국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노조에는 CROC, CTM 등이 있는데, 정치적 노조라고 해서 모두 강성인 것이 아니라, 같은 CROC, CTM이더라도 지역별로 성향이 다르다. 마킬라도라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레이노사나 마따모로스, 누에 보라레도에서는 CTM이 지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성향은 백색노조와 마찬가지로 최근 10년간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몬테레이를 포함한 멕시코 북동부 지역의 공업도시에서는 회사에서 먼저 백색노조를 선택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채용하는 종업원들이 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백색노조에 가입하도록 하기도 한다.

차. 노무관리 기본 요령

- 한국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현지 문화와 현지어를 배우고 현지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함.
- 평가와 보상 제도를 명확하게 세우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함.
- 초과근무를 강요하지 말고,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최대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종업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함.
- 현지인 직원들과 한국인 직원들을 동등하게 대해야 사내 위화감 조성을 막을 수 있음.
- 업무 지시는 명확하게 해야 하며, 의사소통에 자신이 없다면 서면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좋음. 또한, 반드시 완료시한을 부여하고 중간 진도를 확인해야 함.
- 유능한 현지인 중간관리자를 두어서 전체 현지직원들을 통솔하게 하는 것도 직원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한 방법임.
- 직원들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함.
- 직원을 나무랄 때는 다른 직원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업무 과실만을 냉정하게 질책하며,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서는 안됨.
- 연봉 및 근무 조건과 관련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함.

8. 조세제도

과세권이 연방 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는 지급 급여세, 부동산 양도세, 재산세 등 일부에 국한되며, 대부분의 세금이 연방세이다.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되어 있다.

가.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 Impuesto Sobre la Renta)

- 과세대상
 - 거주법인은 영업 및 자산에서 발생한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멕시코 국내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은 거주법인으로 간주됨.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주요 사업장이 멕시코에 소재하는 경우 멕시코 거주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비 거주 법인(지점. Branch office), 즉 멕시코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요 사업장이 멕시코에 있지 않은 외국 법인의 경우 멕시코 원천소득과 멕시코 내 고정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고정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달라짐.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순 액 기준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고정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멕시코 원천소득은 총 액 기준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됨.
 - 본사나 기타 제3국의 고정사업장에 소득을 송금하는 경우 추가적인 과세가 가능함.
- 세율: 2007년 28%
- 사업연도: 1월1일 - 12월31일
- 공제항목: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고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상각액, 재고자산의 매입원가, 영업손실 등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system)에 따라 근로자에게 세전 이익의 10%를 분배해야 하며, 분배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나. 자산세 (asset tax/Impuesto al Activo)

- 고정자산 및 당좌자산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1.25%임.
- 법인소득세가 자산세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자산세로 징수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자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즉, 법인소득세와 자산세 가운데 높은 쪽으로 납부액이 결정됨.
- 외국기업들은 자산세를 줄이기 위해 현지법인의 고정자산을 최소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다. 부가가치세 (VAT/Impuesto sobre el Valor Agregado)

- 세율: 15%
- 식품, 약품, 의사 진료, 농수산물축업 장비, 비료, 토지 및 주택, 서적 및 정기 간행물, 대중교통요금, 교육비, 수출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부과됨.

라. 고용 관련 세금

- 지급 급여세 (payroll tax/Impuesto sobre las Nóminas): 2%. (지방세)
- 고용주세: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premiums/IMSS), 퇴직충당금(mandatory retirement savings system/SAR), 근로자주택기금(INFONAVIT) 등으로 직원의 급여에 따라 부담율이 달라지나, 대략 25%~37% 정도임.

마. 기타 세금

-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의 유형에 따라서 4.9% - 35% 과세
- 부동산 취득 시 자산가격의 2% 부과.
- 기술용역 15%, 특허권/상표권 35%
- 설계도면, 모델설비의 이용 15%
- 건설, 설치, 유지보수, 감독: 30%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금융관리

□ 멕시코 금융부분 동향

멕시코의 금융분야는 1994년 폐소위기 이후 기반이 탄탄해졌다. 금융위기 이후 멕시코는 금융 시스템을 보완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을 진행하였는데 파산 및 대부법 개정, 연금펀드의 민영화, 외국 금융기업의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2000년과 2003년에 이루어진 파산과 대부에 관한 개혁은 채권자의 채무회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연금가입자가 연금관리회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은행과 지주회사가 연금펀드를 운영하도록 허가함으로써 경쟁이 확대되었고 이는 생산성 증대로 이어졌다.

현재 금융분야의 외국계 자본 비율은 80%에 이르는데 외국계은행의 참여는 멕시코 금융분야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거대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은행의 재정상태가 튼튼해졌으며 선진 금융권의 경영방식, 위기관리기법 도입으로 경영환경이 개선되었다.

은행대출 중 소비자대출 및 주택대출은 2005~2006년간 크게 활성화 되었는데 이자율 인하 및 낮은 인플레이션이 대출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재 중소기업은 높은 이자율로 대부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의 자금대출 확대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의 대출규모는 GDP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출의 장애요소로 높은 이자율을 꼽는 반면, 은행은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고 있어 신용조사가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대출이 활성화되지 않은 탓에 많은 기업들은 자신이 납품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은 거대기업은 납품기업에 자금을 대부해 주고 납품기업은 제품으로 되갚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현지자금조달

□ 은행 계좌 개설

투자진출기업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설립이 완료되어야 한다. 일단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멕시코 시중은행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계좌개설을 위한 기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기본 요건

- 멕시코에 설립된 법인 및 멕시코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혹은 취업비자(FM3) 및 영주권(FM2)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대출상품 및 은행에 따라 조건이 다르지만 최소한 2년 이상 동일분야에서의 경영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보증인이 필요하다. 또한 거래은행, 혹은 거래처의 추천서 5매가 필요하다. 계좌 개설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사본인 경우는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하는 것이 편리하다.

① 법인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보증인 및 신청인 서명 필요)
- 세무등록증(Alta de Hacienda), 납세등록증(Cédula de Identificación Fiscal) 사본
- 사업자등록증(Acta Constitutiva), 소유권 및 영업 등록증(Registro Público de la Propiedad y del Comercio) 사본. 상기 등록증의 변경시 변경내용 사본 포함.
- 위임자 지정서류 사본. 위임자는 대출계약서에 사인함.
- 법인대표, 위임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해당자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외국인의 경우 FM2, FM3 비자 사본 제출
- 법인, 보증인의 주소증명서 사본.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과금(수도, 전기, 재산세, 전화료) 영수증으로 가능.
- 금융정보 제출
 - 재무재표를 포함한 법인의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제출. 대출은행에 따라 3년간의 내역서, 혹은 최근 90일 이내의 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 가장 최근의 연간 세무신고서 사본.
 - 보증인의 최근 자산신고서 사본.
- 신용평가 승인서, 필요할 경우 보증인도 제출 필요.

② 계좌개설 시 개인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보증인 및 신청인 서명 필요)
- 신청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해당자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사본 첨부, 외국인의 경우 FM2, FM3 비자 사본 제출
- 세무등록증(Alta de Hacienda), 납세등록증(Cédula de Identificación Fiscal) 사본
- 법인, 보증인의 주소증명서 사본.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과금(수도, 전기, 재산세, 전화료) 영수증으로 가능.
- 최근 연간 세무신고내역서 사본.
- 보증인의 최근 자산신고서 사본.
- 신용평가 승인서, 필요할 경우 보증인도 제출 필요.

○ 대출 금리

-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멕시코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는 높은 편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보다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 금리는 대출은행에 따라 다르며 대출금액 및 기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며 담보조건에 따라 변동하기도 한다.

- 현재 멕시코 시중은행의 법인대상 대출상품별 금리는 아래와 같다.

BANAMEX 은행 대출 금리

상품명	대출규모	기간	연이자율	수수료
Crédito Revolvente Impulso Empresarial	1백만 페소 (US\$ 92,250)	무기한	TIE + 11.4%	없음
Crédito simple Banamex	1천만 페소 (US\$ 922,509)	12개월	TIE + 5%	0.5%~1%
Línea Automática Banamex	3백만 페소 (US\$ 276,752)	24개월 리볼빙 상환 후 18개월 일반상환	TIE + 8%	없음
Crédito con Garantía Hipotecaria	55백만 페소 (US\$ 5,073,800)	5년	변동: TIE + 3% 고정: 12.5%부터	0.5%~2%
Equipamiento	55백만 페소 (US\$ 5,073,800)	5년	변동: TIE + 3% 고정: 12.5%부터	0.5%~2%

주1) TIE: 중앙은행 지정 은행간 대출금리. '07. 12. 18 현재 7.9325%

주2) 적용 환율: US\$ 1 = 10.84 페소 ('07. 12. 18 기준)

2) 외환 관리

멕시코는 1991년 11월부터 외환자유화가 실시되어 변동환율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시중 은행 및 환전소에서 주요 외환구입이 가능하다. 멕시코 외환관리법에 따르면 달러로 되어 있는 인보이스는 지불 당일 환율에 맞추어 페소화로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은행을 통해 공식 환율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 양측의 계약에 따라서 달러 지불도 가능하다. 외환이동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 규모 및 특성

1) 시장 규모면: 중남미 최대의 수입품 소비시장

- 연간 수입 시장 규모 2,800억불 대 (2007년 12월 기준)
 - 중남미 최대의 교역시장, 대 한국 수입 65억불 수준 (2007년 12월 기준)
- 1인당 국민소득 8,792불의 인구 1억 8백만명 대형 소비시장 (2007년 12월 기준)
 - 단, 지역별 10,000불대에서 2,000불대까지 지역별 소득 격차 현격

2) 시장 구조면: 대미 의존형 시장, 상권 지방 분산

- 대미 교역이 전체교역의 70%로 압도적 비중 점유 및 의존도 심화 (2007년 12월 기준)
 - 총 수출액 중 대미 수출비중 82%
 - 총 수입액 중 대미 수입비중 50%

- 미국과 3,300 Km의 국경 인접 및 NAFTA이후 미국의 생산·판매 기지화
 - 미국이 멕시코 내 외국인투자 총액의 약 61% 차지 ('99~'07년 3분기 누계 기준)
- 상권의 지방분산 및 3대도시 집중
 - 상권의 수도 집중에서 지방 대도시로 상권 분산, 멕시코시(41%), 과달라하라(22%), 몬테레이(21%) 등 3대도시에 상권의 84% 집중

3) 시장 수요면 ➡ 방대한 원부자재, 부품시장, 대형 프로젝트 시장

- 대형 국제입찰 프로젝트 시장 발달
 - 특히, 석유화학 및 발전 등 건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거대시장 형성

4) 시장 형태(관행)면 ➡ 가격시장, D/A 보편화 시장

- 뚜렷한 가격 우선 소비 패턴
 - 멕시코 소비자 80% 이상이 제품구입시 가격요인을 최우선 고려
- D/A, D/P 방식 상거래 보편화
 - L/C방식보다 D/A, D/P 선호, 통상 60~90일의 D/A 요구 상 관행

나. 소비 특성

1) 빈부격차로 인한 소비 시장 양극화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큰 국가로 부유층들은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고가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값싼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시장은 전반적으로 품질보다 가격이 우선하는 “가격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멕시코는 수입품도 고급품과 저급품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고급품들은 주로 일류 백화점들이나 부유층 거주지역의 전문점 등에서 판매되는데 브랜드가 가장 큰 구매 요인이 되고 있다. 고급품은 이태리, 프랑스 등의 유명상표가 거의 다 진출해 있으나 이 같은 상품의 소비는 일부 부유층에 한정된 것이며 대부분의 서민들은 일반 슈퍼 및 재래시장에서 값싼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2) 연말, 연초가 가장 대규모 구매 시즌

일반 소비재의 경우 가장 큰 구매시즌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인데, 이 시기에는 친구나 가족, 친척 등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거래선에게 선물을 하는 관행이 있어 일반 소비재의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

그 외에 동방박사의 날(1월 6일)이 가장 어린이용 선물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기이며, 기타 주요한 날들을 살펴보면 발레타인(2월 14일) 연인의 날(DIA DE VALENTIN 또는 DIA DE AMOR Y DE AMISTAD), 5월 10일 어머니의 날, 6월 16일 아버지의 날, 6월 30일 어린이의 날 및 3월말 내지 4월초순경의 부활절(SEMANA SANTA)등을 들 수 있다.

멕시코의 휴가철은 7-8월 및 12-1월인데 여름보다는 겨울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 휴가용품의 구매시즌은 통상 12월경이며, 학교는 9월 학기제로 8월말에 새 학년이 시작 되기 때문에 각종 문구류 등은 8월부터 9월까지가 통상 구매시즌이다.

3) 상권 유태인, 레바논계가 지배

멕시코 경제는 전체 인구의 약 14% 정도인 백인들이 지배하고 있으며, 유태인들의 상권 진출이 상당히 활발한 편인데 특히 석유류 수입의 경우 이들이 거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상호간의 정보교환으로 특히, 경쟁이 심한 한국업체들을 상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피해를 주는 일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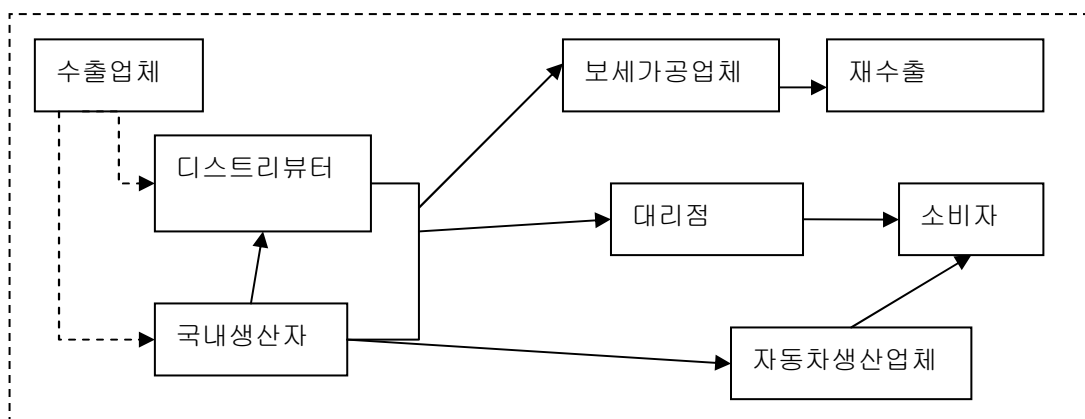
멕시코 대기업 및 유통시장은 주로 레바논계 이민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통신기업 TELMEX, TELCEL, 유통기업 CHEDRAUI 등이 대표적이다.

다. 한국제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최근 삼성, LG, 대우 등 대기업 중심의 활발한 진출로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제품에서 멕시코 수입상들 사이에서 한국상품에 대해 인식도가 낮은 편이다. 또한, 멕시코는 무역의 7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미국 일변도의 무역을 하고 있으므로, 우선 중요한 것은 한국상품을 알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멕시코 업체들에 대한 자사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몇 개 업체에 카탈로그 몇 부 보냈는데 거래가 안 된다고 조바심 내서는 안 되며, 금방이라도 주문을 할 것 같은 바이어도 실제 거래까지 연결되는 데 심지어는 1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다.

라. 유통채널

멕시코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초기 유력 디스트리뷰터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동차용 휠 품목을 통해 본 상품의 유통경로는 아래와 같다.



마. 유망상품

멕시코는 수입시장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 각국의 경쟁이 치열함. 최근 시장동향을 반영하여 무역관에서 선정한 10대 유망상품은 아래와 같다.

무역관 선정 10대 유망상품

연번	품목명	선정 사유
1	보안기기 (CCTV, DVR)	치안 불안에 따른 상시적 수요 존재. 현지 한국산 보안장비 품질 인지도 확보
2	마사지용 기기	최근 웰빙 붐과 함께 마사지 기기 수요증가. 05년 시장규모가 48.5% 성장하는 등 성장세 지속
3	건축자재	주택 건설 및 도로 등 공공인프라 건설 활발
4	플라스틱 필름	주요 수요처인 건설업, 자동차산업, 포장산업의 호황 지속
5	건강식품	웰빙 붐에 따른 건강식품 수요 증가
6	사출성형기	세계12위의 플라스틱 소비시장. 건설업, 제조업 호황 수요증가
7	포장기계	포장기계 수요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 2005년에 67.3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12.83% 성장세를 기록, 지속적인 성장 예상
8	자동차부품	연간 10%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시장
9	MP3 플레이어	2.3 백만 불의 미성숙 시장으로 한국산 제품 진출기회 큼
10	의료기기	연간 5억 달러 시장으로, 한국산이 경쟁력이 있는 X레이 촬영기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2. 물가정보

□ 도시: 멕시코시티(멕시코)			- 환율: US\$1 = Peso10.78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482.37	7.1	구두(1켤레, 소가죽)	111.32
1.2	넥타이(1개, 실크100%)	46.29	7.2	치약(150g, 1개)	1.43
1.3	와이셔츠 (1벌, 면100%, 긴팔, 흰색, 현지상표)	69.11	7.3	칫솔(1개)	1.95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8.35	7.4	면도기(1세트)	3.74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1,041.74	7.5	건전지(1세트, 1.5V AA)	1.73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6.49	7.6	화장지(1통, 300매)	1.44
1.7	청바지(Levi's)	101.94	7.7	비누(1개)	0.85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6.49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3.70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4.64	8.2	볼펜(12개)	3.61
2.3	닭고기(1KG, 생닭)	3.25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2.21
2.4	쌀(1KG, Short Grain)	1.39	8.4	공CD(1통, 12개입, 700MB)	4.7
2.5	밀가루(1KG)	1.11	8.5	휴대폰(Nokia 카메라내장)	64.84
2.6	설탕(1KG, 백설탕)	1.21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71.24
2.7	계란(10개)	0.93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 1회설치)	63.9
2.8	감자(1KG, 현지산)	0.74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63.9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1.48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21,382.19
3.1	고추장(1Kg)	8.81	9.2	엔진오일(1L)	3.71

3.2	된장(1Kg)	6.03	9.3	휘발유(1L)	0.7
3.3	라면(1개)	1.11	9.4	자동차등록비(2,000cc)	58.26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등)	6.49	9.5	자동차보험료(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974.03
3.5	불고기(1인분, 200g)	7.42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6.49	10.1	지하철(1구간)	0.19
3.7	김치찌개(1인분)	5.57	10.2	시내버스(1구간)	0.19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0.44
4.1	햄버거(1개)	3.25	10.4	택시(추가요금/Km)	0.11
4.2	피자(1판)	11.13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32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120.55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0.93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18.55
4.5	담배(수입산, 1갑)	1.76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0.27
4.6	위스키(1병, 750ml)	32.00	11.4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0.17
4.7	커피(1병, 175g)	3.85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2.84
	5. 주택(150㎡)		11.6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6
5.1	[임차] 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inished)	2,200	11.7	국제우편(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1.39
5.2	[임차] 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2,100	11.8	특급우편(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44.38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19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1~3개월분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5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1.02
6.1	TV(29인치, 칼라, 범용)	518.73		※5.4 주인의계약에 따라 상이함	
6.2	VTR(6헤드, 범용)	120.5		※1.5 여성용 버버리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100.19		※1.7 청바지의 경우, 600-	
6.4	전자레인지	199.35		1600 페소까지 가격 대가 다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831.09		양하므로 평균 가격을 산정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955.38		가입하였음	

□ 도시 : 멕시코시티(멕시코)			- 환율 : US\$1 = Peso10.78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 (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16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108.34
12.2	외국인학교 (등록금, American School)	960~1,060	18.2	상여금 (월 급여 대비%, 연간)	5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4,000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5%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9,60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6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0,40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12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10,600	18.6	연간국경일	7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 (비회원, 18홀, 1라운드, 주말)	139.15	18.8	노동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6~10일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125,000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8시간
13.3	골프공(1타)	60.2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362.52	19.1	법정최저자금	4,632.22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23.19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2,500~4,000
13.6	영화관람료 1회 (개봉관, 성인최신)	3.9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없음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없음
14.1	의료보험료 (4인 가족, Full Cover, 치과제외)/GNP 종합보험	4,615.06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16%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x, 몸살감기, 내과초진)	74.21		※12.2 초등학교(960), 중(1,040), 고(1,060)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46.38		※13.2 동 조사는 멕시코 시티에 있는 BOSQUE REAL 골프장 기준	
14.4	치과(스켈링, 1회)	32.47		※18.2 노동법상(50%), 실제 (100% 지급 관례)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0.74		※19.5 10만 달러 이하: 평균 대부 금리 10% +9.78(2005년TIE 평균) 10만달러 이상: 18~20% + 1%커미션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Reforma 지)	27.83			
15.2	한국신문(1개월)	18.55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40.72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4.64			
	16. 호텔				
16.1	특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351			
16.2	특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81.35			
16.3	중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64.94			
16.4	중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51.95			
16.5	조식 (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7.55			
16.6	조식 (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9.28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979.59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709.65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전시회 활용

멕시코는 산업 별 전시회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작은 편이나,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포장 전시회 등 주요 전시회의 경우 행사 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이 가능하다. 멕시코 주요 전시회 내역은 멕시코시티 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or.kr/mexico) 전시정보를 참조하면 된다.

2) 주요 디렉토리 활용

디렉토리명	출판사	주소	Tel	Fax
Directorio de Fabricante de Autopartes (자동차부품 디렉토리)	INA (자동차부품협회)	Av. Col. Del Valle No. 607, Col. Del Valle, México, D.F. C.P. 03100	(5255) 5682-5862	(5255) 5669-3842
Directorio de exportadores (수출기업 디렉토리)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 de Importadores (수입기업 디렉토리)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 de grandes compradores (대형구매업체 디렉토리)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 de empresas mexicanas (멕시코 기업 디렉토리)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s de consultorios (컨설팅회사 디렉토리)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 del gobierno (정부 디렉토리)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s de proveedores (공급업체 디렉토리)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 de asociaciones (협회 디렉토리)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 de tiendas De autoservicioy epartamentales 2005 (대형유통업체 및 백화점 디렉토리)	대형유통업체 및 백화점 협회 (ANTAD)	Horacio 1855, Piso 6, Col.Chapultepec Morales, Mexico D.F.	(5255) 5580-1772	(5255) 5580-1772

디렉토리명	출판사	주소	Tel	Fax
Directorio de asociados (회원사 디렉토리)	향수, 화장품, 위생제품협회 (CANIPEC)	Gabriel Mancera No. 1134, Col. Del Valle México, DF 03100	(5255) 5575-3108	(5255) 5559-9018
Trade Directory of Mexico 2005(멕시코 무역 디렉토리)	Bancomext	Periferico Sur 4333, Col. Jardines de la Montana, Mexico D.F.	(5255) 5449-9008	(5255) 5449-9028
Directorio de plástico (플라스틱 산업 디렉토리)	CamSolution	Periferico Sur 3453, Col. San Jeronimo, México D.F.	(5255) 5668- 6887, 5668-6889	(5255) 5668-6890
Directorio Nacional de Calzado(신발 산업 디렉토리)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l Calzado / Editorial Lair	Blvd. Adolfo Lopez Mateos 3401 Ote, Fraccionamiento Julich de Obregon, Leon, Guanajuato	(52477) 711-5210	(52477) 711-4120
DIRECTORIO DE EMPRESAS (유류, 비누, 세제 협회 회사 디렉토리)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 ACEITES, GRASAS, JABONESY DETERGENTES	CORDOBA No. 10 COL. ROMA DELEGACION CUAUHTEMOC C.P.06700 MEXICO, D.F.	(5255) 5511-5263	(5255) 5511-9218
Directorio nacional de la industria papeleray de computación(문구류 및 컴퓨터 산업 디렉토리)	PUBLITEC	Arquímedes # 199 piso 4 despacho 400 Col. Chapultepec Morales, C.P. 11570	(5255) 5250-4125 5250-4135	(5255) 5250-4125
Directorio de Socios (의류협회 회원사 디렉토리)	CNIV (의류협회)	Manuel Tolsá 54, Col. Centro, CP 06040 México, D.F.	(5255) 5588-7822	(5255) 5578-6210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번호	자료원명	홈페이지	참고사항
1	Cosmos	www.cosmos.com.mx	산업전반
2	Thomas Global	www.thomasglobal.com	산업전반
3	Quiminet	www.quiminet.com	화학산업
4	ANIPAC	www.anipac.com	포장산업
5	Seccion amarilla(전화번호부)	www.seccionamarilla.com.mx	산업전반
6	건설 디렉토리	www.construye.com	건설
7	Reportero Industrial	www.reporteroindutrial.com.mx	산업전반
8	신발산업 디렉토리	www.directorionacionaldelcalzado.com.mx	신발 및 원자재
9	Guia NEI en México	www.guane.com.mx	산업전반
10	Conexión Industrial	www.conexionindustrial.com	산업전반
11	Todo en plastico	www.todoenplastico.com	플라스틱산업
12	Sistema de Informacion Empresarial(기업정보시스템)	www.siem.gob.mx	산업전반
13	Concamin(멕시코산업협회연합)	www.concamin.org	산업전반

주: 대부분의 사이트가 스페인어로만 정보가 제공됨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상담 시 유의사항

1) 악수가 첫인상을 결정한다

바이어를 처음 만나 악수할 때 손을 힘있게 꼭 쥐지 않고 살며시 잡았다 놓는다면 멕시코 바이어는 틀림없이 "아, 이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구나" 하고 상대측 세일즈맨에 대해 처음부터 불신감을 가지기도 한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상당한 불쾌감까지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렇게 시작된 상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악수는 너무 세게 손이 아플 정도로 꼭 쥐면 실례가 되지만 전혀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악수하면 신뢰감을 주지 못하므로 반드시 적당한 힘을 실어 악수를 해야 한다.

2) 유머상술

비즈니스를 시작함에 있어 유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놀고 마시며 즐기기를 좋아하는 멕시코인의 특성상 첫 대면에서 상담을 부드럽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한두 마디의 유머가 꼭 필요하다. (유머는 곧 상술).

멕시코 바이어들이 한국의 세일즈맨과 미국의 세일즈맨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지적하는 요소가 한국인들은 매너도 없고 너무 딱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상담 분위기를 연출해 내기 위해서는 상담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멕시코의 훌륭한 기후조건이라든가 문화유적 이랄지 카리브의 아름다운 해변이랄 지 또는 멕시코인의 친절 성이나 떼깰라와 꼬로나 맥주의 한국 내에서의 인기, 멕시코 여성의 아름다움, 마리아치스의 낭만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꾼 뒤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할인 상술

본론으로 들어간 뒤에 처음부터 가격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멕시코 인들은 값을 깎으려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를 전혀 들어주지 않으면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다음부터 상대하려 들지 않게 된다. 이들은 값을 깎는 데서 희열을 맛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깎을 것을 감안해 가격을 제시한 후 가격 인하를 요구받으면 못이기는 척 할인해 주는 상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적당한 가격을 제시해야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매겨놓으면 아예 깎으려 들지도 않고 상담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가격 제시가 필요하다.

4) 신뢰도

멕시코 인들은 약속이행에 대한 책임감이 별로 없어 약속장소에 늦게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에 따라 기분을 상하여 대화가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보편화된 일이므로 화를 내서는 안되며 침착한 태도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인들의 신뢰도는 물론 사람 나름이지만 보편적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약속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상담 시에는 곧 거래를 할 것 같이 말하다가 언제 그랬는가 하는 식으로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다. 또한 멕시코 인들은 NO라는 대답을 별로 안 하는 편이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것이 확실 해서 좋으나 대답을 안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능률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화로 대답해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하지 않고 이쪽에서 전화하면 항상 자리에 없고, 메시지를 남겨 놓아도 연락이 없고 하는 경우는 대답이 NO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아울러 거래시작을 위한 교신에 있어서도 당장 본인이 급하지 않으면, 회신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급한 성격을 보유한 한국인으로서는 다소 답답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을 참고해야 한다.

나. 멕시코 비즈니스 문화

1) 멕시코시티 인은 타산적

멕시코인들의 전반적인 기질은 미국의 영향 때문인지 상당히 타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도시나 시골에 거주하는 멕시코 인들은 아직도 순수하고 정이 많은 전통적인 원주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나 멕시코시티 사람들은 지나치게 셈이 밝고 평소에 친분관계를 잘 유지하다가도 금전적인 문제가 대두되면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참고로 지방사람들은 멕시코시티 사람들을 칠랑고(CHILANGO)라고 부르기도 하는 데 이는 다소 경멸하는 뜻이 있다.

2) LADY FIRST 일반화

멕시코는 남성우월주의인 마치스모(Machismo)가 지배적인 사회이나, 매너에 있어서는 서양식의 여성 존중 예절이 발달하여 LADY FIRST의 관습이 보편화되어 있다.

3) 선물 주고받는 문화 일상화

남의 집을 방문하거나 초대를 받은 경우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임. 통상 크리스마스 및 연말에는 친구, 친지, 거래선들에게 선물을 돌리는 관행이 있으나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에 돈으로 부조하는 관습은 없다. 현지인들이 대개 인삼차의 효능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인삼차도 선물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품위가 있는 조그만 자개함, 전통인형, 토속적인 장식품도 선물할 수 있다. 또한 각 기업에서 통상 사용하는 기업의 로고가 인쇄된 만년필, 골프 공 등의 선물도 좋다. 기타 일을 하다 보면 상대 측 인사의 비서나 안내원 등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를 위해 조그만 지갑이나, 열쇠고리 등 작은 선물을 준비해두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4)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는 에이전트 확보 중요

멕시코 진출 시 전국적인 배급망을 지닌 안정적인 대형 에이전트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멕시코의 에이전트들은 선진국 에이전트처럼 몇 년 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스스로 시장을 관리해가는 능력이 부족하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식의 안이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수출업체의 지원만 요구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5) 시장관리와 제품관리 필요

멕시코는 저소득층이 많아 일반적으로 가격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저가품 선호도가 높다. 따라서 저가품 시장과 고가품시장을 분리하고 제품도 고가품과 저가품을 차별화해야 한다. 한국산은 무조건 싸다는 식이 아니고 이 모델은 무엇 때문에 싸고 저 모델은 무엇 때문에 비싼지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판매활동을 해야 한다.

6) 출장 시기 조절 필요

7-8월 및 12월은 휴가시즌이며, 부활절 기간도 대표적인 휴가기간이므로 현지 출장 시에는 이 시기를 피해야 한다.

7) 스페인어 습득 필수

멕시코는 미국과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예상외로 영어 소통이 원활치 못하다. 물론 중상류층은 하류층에 비해 영어에 능통한 편이나 중상류층이라 하더라도 영어가 능숙하지 못해 상호간 의사소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외국 수출상과 상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스페인어 통역을 대동해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와 거래 시 간단한 회화라도 스페인어를 대화를 나누면 한결 상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므로, 스페인어를 습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8)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멕시코 인들은 여간 해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습관이 있음.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기며,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 신상에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식민지 시절부터의 뿌리깊은 문화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멕시코 바이어와의 거래관계 시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도록 심히 추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9) 불분명한 시간 개념

멕시코 바이어와 접촉하다 보면 "아오리따(AHORITA)"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되는데, 이는 "지금 즉시", "지금 바로"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말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측 수출 상의 오퍼에 대해 회신을 달라고 하면 '아오리따'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회신이 오지 않아 다시 연락을 하면 또 아오리따라는 말을 되풀이 한다. 따라서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다간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5분내 인지, 1시간 내인지, 오늘 중인지, 또는 몇 월 며칠까지 인지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시점을 명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10) 기타 일반적 에티켓

멕시코인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어 주는 인사치레의 말을 매우 즐겨 한다. 하찮은 도움에도 Muchas gracias. (Thank you very much.)를 연발한다. 이는 어려서부터 몸에 밴 습관이며,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을 극히 꺼리는 문화에서 나온 산물이다. 따라서 이들의 눈에는 여간 해선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는 동양인들이 무례한 사람들로 비쳐지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비단 멕시코인뿐만 아니라 서양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지 않는다.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것은 교양없는 행위로 여긴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 대체로 소리내어 그것도 재빨리 먹어 치우는 경우가 많아 바이어들을 당혹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멕시코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는 하나 식사 시간만큼은 매우 느긋하다. 음식을 찬찬히 맛보며 즐기는 멕시코 문화와 서둘러 한끼 때우는 한국의 문화간 차이로 볼수도 있겠지만 상담을 성사시키거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호칭관련 에티켓

1) 학위 호칭

멕시코에 첫 출장 오는 우리 세일즈맨들이 바이어와 명함을 교환한 뒤 이름 앞에 붙은 릭(Lic.) 또는 잉(Ing.)에 대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는 호칭을 중시하는 사회로 호칭은 곧 사회적 신분이며 자존심의 표상이다. 우리의 경우 박사가 아닌 이상 이름 앞에 또는 뒤에 석사나 학사나 하는 호칭을 붙이는 경우가 전혀 없는데 반해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국가나 스페인 등에서는 이름 앞에 반드시 학위를 붙여서 명함을 파며, 이름을 부를 때에도 학위만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인문사회계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이름 앞에 LIC. 라는 표시를 하며, 이공계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ING. 라는 표기를 한다. LIC.이란 LICENCIADO의 약자이며, ING. 은 NGENIERO의 약자인데, 바이어와 명함을 교환할 때 명함에 LIC.가 있으면 상대방을 "리쎄씨아도" (여성인 경우에는 리쎄씨아다)라고 호칭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ING.이 찍혀 있으면 "잉헤니에로" (여성인 경우에도 동일)라고 불러주는 것이 바람직함. 물론 석사의 경우 MAESTRO라는 호칭이 있긴 하나 일반적이 아니며 보통 LIC. 나 ING.를 쓰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런데 이름 앞에 아무런 표기가 없을 경우 또는 상대방의 호칭을 잊어버렸거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담이 진행될 경우에는 SEÑOR (세뇨르/SIR 또는 MR.의 의미) 또는 CABALLERO(까바예로/GENTLEMAN의 의미)라고 칭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상대가 여성일 경우에는 SEÑORITA(세뇨리따)라고 칭하는 것이 좋다. 원래 세뇨리따는 영어의 MISS에 해당하는 말이지만 MISS보다 광범위하게 쓰이며,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경우라도 영어의 MRS.에 해당하는 SEÑORA(세뇨라)라고 칭하는 것보다는 세뇨리따라고 불러주는 것이 무난하다. 기혼자라 할지라도 세뇨라로 부르면 불쾌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과 같이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세뇨라로 불러야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2) MIDDLE NAME과 LAST NAME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인들과 스페인 사람들은 이름은 하나만을 쓰거나 두 개를 쓰는 경우도 있으나 성은 반드시 두 개를 쓴다. (물론 기혼여성인 경우에는 남편 성까지 세 개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종종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는 미국식 관점에서 흔히들 LAST NAME이 곧 성이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많으나 스페인어권에서는 LAST NAME은 모계 성을 의미하며 LAST NAME 직전의 것 곧 MIDDLE NAME이 부계 성, 즉 진짜 성이다.

이들의 성명은 보통 3단어 또는 4단어로 구성되는데 이름은 하나인 경우도 있고 두 개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뒤에서 두 번째가 성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다. (물론 예외도 있다. 전 멕시코 대통령 이름인 ERNESTO ZEDILLO PONCE DE LEON에서 에르네스또는 이름, 세디요가 부계 성, 쎄세델레온이 모계 성임. 그런데 모계 성이 세단어로 떨어져 있어 어느 것이 진짜 성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이렇게 이름 사이에 DE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것이 성인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함)

이를 뒤집어보면 이해가 한결 쉬워짐. 예컨대 홍길동의 경우 영문 표기 시 '길동 홍'으로 표기하게 되는데, 이들은 MR. 동 또는 MR. 동 홍으로 부르는 경우를 왕왕 접하게 됨. 이는 결국 뒤에서 두 번째를 성으로 파악하는 이들의 관습 때문이다. (모계 성만으로 호칭하는 것은 실례가 된다).

라. 계약체결 시 유의할 점

1) 소량 주문 위주

멕시코 시장이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큰 수입시장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는 소량주문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거래까지 성사되는데 상당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일이 많으므로 끈기를 가지고 거래에 임하여야 한다.

2) T/T 송금 방식으로 유도 바람직

멕시코는 높은 금융비용으로 L/C방식보다 D/A, D/P거래 방식을 선호하며, 통상 60~90일의 D/A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계약 시 50%, 선적 시 50% 등 T/T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노무관리 어려움

- 노동자 위주의 노동법으로 합법적인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여 노동 유연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고용 계약이나 사회 보험 등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여 이후에 직원의 회사 상대 소송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만연해 있어 멕시코 직원들의 경우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의식은 높은 반면 의무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편이다.
- 전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아 적합한 능력을 지닌 노동자를 찾기가 어렵다. 교육수준이 높다고 해도 한국과는 달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기 보다는 수동적이어서 어떤 문제 발생시 빠른 일 처리 및 대처가 어렵다.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주어야 하고 만약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시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구체적 상황 별 대처 방안을 일일이 알려주어야 한다.
- 공장 노동자의 경우 무단 결근 등 근무가 태만하여 생산성이 낮는데 비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므로 출근 및 조퇴, 결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남겨 두어야 추후 문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다.
- 1인당 임금이 미국의 1/4수준이라고 하나 낮은 이직 및 인력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싸다고는 할 수 없다.
- 한국의 경우 상사와 직원 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퇴근 후 회식을 한다거나 하며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지만, 멕시코에선 회사 내 상사와 직원 사이에서 친밀한 관계는 업무상 부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즉, 친절하게 대해주는 상사를 편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업무에 있어 충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멕시코 직원에 대해서는 적당한 선을 두고 철저히 업무적으로만 대하는 것이 좋으며 인간적인 결점이나 약점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나. 비 효율적인 행정처리

- 관공서 및 은행 등의 업무 처리가 매우 느려 시간 낭비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장 설립 시 공장용 전력을 끌어오는데만 6개월 이상 걸리는 식으로 일반적인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고 업무의 정확도도 떨어지므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처리 기한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마냥 기다리면 더욱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연말(주로 12월 10일 이후)에는 많은 관공서가 익년 초까지 업무를 중단하기 때문에 연말 중 행정 업무는 거의 불가능하다.
- 업무의 전산화 미비로 인해 단순 행정 업무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즉, 관공서 또는 은행 등 공공 기관에서 동일한 일을 다른 기관에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업무 처리 시 규정에 의한 처리보다는 담당자 임의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 내부 의사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가능한 한 결정권자인 사장과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교신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것이 관련 실무자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결정권자와 실무자에게 함께 필요한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 교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화 또는 메일로 자주 연락하고, 메일을 보냈어도 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언제까지 답변을 줄 수 있는지도 정확히 물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 언어 장벽

- 미국과 인접해 있지만 유명 호텔을 제외하곤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
- 통관 서류 등 주요 서류 또한 원칙적으로는 영어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잘 통용되지 않아 스페인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 영어를 조금 익힌 사람들은 서투르더라도 영어를 사용하고 싶어하므로 그런 사람에겐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라. 금융 서비스

- 기업에 있어서 금융 서비스는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핵심적 요소인데 멕시코에선 한국 정도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비스의 질에 비해 수수료가 높은 편이며, 담당자에 따라 지점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도 한다.
- 고객이 은행의 업무 처리 미숙 및 실수로 금융 사고를 당해도 빠른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각 지점별로 책임 회피하여 실질적인 일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고 되고 있다.
- 멕시코 바이어와 거래시, 멕시코 은행의 L/C관련 규정이 까다롭기도 하는 이유등으로 한국과 달리 L/C를 여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멕시코 수입상들은 L/C보다는 D/A나 D/P를 선호하며, 대개 60-90일짜리 D/A 요구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멕시코 기업들의 신용도가 모두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 거래부터 D/A나 D/P로 거래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높다. 그러므로, T/T 분할 납부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마. 통관 서비스

- 통관에 있어서도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통관 공무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멕시코 정부 차원에서 세관 공무원들의 부패 내지는 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도리어 비리 가담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가능한 한 확실한 통관사를 통해 통관업무를 진행하고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통관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성공 사례

1) 사례 제목: 뛰어난 품질과 끈기있는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 열세 극복

□ 회사 개요

- T사는 배낭, 여행 등 각종 가방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임 2002년 멕시코 한국 상품전에 참가하면서 처음 멕시코와 인연을 맺었다. 전시회 참가 이후 멕시코의 시장 성을 파악하고 곧바로 무역관에 지사화 사업을 신청, 시장공략에 나섰다.. 무역관은 초기 에는 스포츠용품 바이어를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을 시작하였으나 동사 제품이 비록 국제적인 브랜드 인지도는 없으나 디자인, 가격 등 품질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 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멕시코 대형유통망시장 진출을 시도하게 되었다.

□ 멕시코의 한국상품 인지도

- 멕시코 대형 유통체인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미국, 중국 수입산과 국내산 이었다. 한국산 제품이라고는 삼성, LG, 대우 등 세계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고 멕시코 에 투자 진출 기반을 둔 한국 기업들의 가전뿐이었다. 이러한 시장에 한국 중소기업이 진출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T사는 장기적으로 펼친 꾸준한 마케팅 활동으로 멕시코 대형 유통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 성약 과정

- 처음으로 진출한 대형 유통체인은 Sam's Club이었다. 첫 주문까지의 준비 과정은 무려 1년이나 걸렸다. 무역관은 수많은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공과 전화, 이메일 교신을 통해 구매 담당자와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면서 밀착 지원을 했으며, T사는 샘플 제공과 가격 조정으로 바이어의 요구 사항에 적극 대응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03년 말에 Sam's Club로부터 첫 주문을 받으면서 T사는 멕시코 대형 유통시장에 첫 발을 디게 되었다.
- 한 유통업체에 공급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넘어야 했지만, 무역관과 T사의 꾸준한 마케팅 활동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었다. 그 동안 상담을 진행해 왔던 Walmart, Sears, Marti 등 5개 대형 유통체인과도 거래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한참 시장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 성공요인

-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뛰어난 품질과 시장진출을 위한 끈기임. T의 제품인 가방은 EASTPAK, JANSPORT 등 국제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뛰어난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뿐더러 더 뛰어난 품질을 가지고 있었기에 Sam's Club 등 대규모 유통체인에 진출할 수 있었다.
- 거래가 성사되기 1년 까지 T사는 한 건의 주문 성사에 목매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마케팅을 한 끝에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멕시코는 한국처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사례 제목: 면밀한 시장조사,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성공의 지름길

□ 회사 개요

- 서울의 D사는 화구를 취급하는 업체로 지난 2005년 9월 멕시코 한국 상품전을 통해 멕시코 시장과 인연을 맺었음. 동사는 그림물감, 붓, 마커, 전문가용 화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제 전시회에서 일본, 독일산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을 인정받은 국내에서도 손꼽 히는 화구 업체이다

□ 성약 과정

- 동 사는 유럽시장 진출 이후 남미시장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2005년 멕시코 한국 상품전 참가 이전부터 공사 사업인 조사대행, 시개단 참가를 통해 관련시장 트렌드를 파악 하고 상당한 바이어 중 유력바이어를 염선하여 집중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또한 2006 년 무역관 지사화 업체로 가입, 무역관의 집중적인 바이어 관리로 신뢰를 얻어 멕시 코시장 진출에 성공하였다.
- 성약 이후에도 동 사는 제품판매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 에이전트와 함께 전문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양사 공동부담으로 전문지 광고를 게재하는 등 다각적인 세일즈를 지원하고 있다.

□ 시사점

- 동 사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 철저한 시장연구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관심시장이 중남미 화구시장 조사를 위해 현지 전시회에 참가, 시장 트렌드를 직접 파악 하였으며 철저한 유력바이어 염선으로 구매력있는 에이전트를 선정, 시장 개척에 성공하였다.

나. 실패 사례

1) 사례 제목: 자기 제품에 대한 과신 및 현지 트렌드 파악 미숙으로 인한 협상 실패사례

□ 멕시코 시장 트렌드

- 품질보다는 가격 우선시장
 - 멕시코는 1억명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43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등 내수

및 수출기지로써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쟁 또한 치열하여 값싼 중국산 섬유 및 소비재등이 많이 진출해 있어 거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현지 바이어 또한 구매협상 시 가장 무게를 두는 것은 가격임. 제품의 품질이 뛰어나다 해도 가격이 적당하지 않으면 거래는 성사되기 힘들다.

□ 회사 개요 및 바이어 발굴 경로

- 서울의 S사는 지붕 방수를 위한 지붕방수보강재를 취급하는 업체로서 동 제품은 건물 건축시 방수액 보다 나은 방수효과를 지녀 가옥, 아파트, 연립주택 건축시 필수 원부자재로 꼽힌다. 동 사는 기존 제품보다 방수효과 및 수명이 긴 신제품을 개발, 해외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였다.
- 동사는 오래전부터 멕시코 건축자재 시장을 계속 두드려 온 업체로, 일전에는 멕시코 몬테레이에 있는 한 멕시코 업체와 1차례 거래를 추진한 바 있었으나 중단된 바 있어 진출 타겟을 멕시코시티로 옮기고 바이어 발굴을 지속, 해외시장 조사대행 서비스를 통해 멕시코 시티 무역관이 소개한 6개 바이어와 접촉을 하였다.

□ 협상 진행 과정

- 건축자재 취급 업체와 방수용 부자재 취급 전문업체들을 물색하고 멕시코 건축자재 전시회를 통해 발굴한 디스트리뷰터들을 대상으로 직접 세일즈하여 제품 성능을 집중 홍보하였다. P사 라는 회사가 가장 큰 관심을 보였으나 경쟁제품 대비 30%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S사(신양)에서는 결국 가격을 20% 정도 더 낮추었으나 그 이상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바이어가 제시한 가격을 맞추지 못했다. 5개월 동안 집요하게 기존 바이어를 설득하고 새로운 바이어를 물색 하였으나 결국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좌절하였다.
- 멕시코 시장에서는 건축단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초저가 방수용 부직포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방수 효과가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큰 하자가 없으면 1센트라도 더 싼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업계의 생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수용 부직포라는 제품의 특성상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품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수는 가격이었다.

□ 협상 실패 요인

- 동사의 제품은 방수용 부직포로서 멕시코 바이어의 제품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격경쟁력이다. 어떤 제품들은 경쟁제품 대비 브랜드 가치가 높거나 특수기능을 포함시켜 좋은 품질로 높은 가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방수용 부직포 제품의 경우 아무리 품질이 좋다 하더라도 멕시코 바이어의 구매의사결정에 가격만큼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제품의 특성과 시장의 특성을 간과한 점이 실패요인으로 작용한다.

□ 시사점

- 세계 각 시장별로 특색이 있으며 바이어가 요구하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 하고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장을 개척하려 하면 심중팔구는 실패한다.
- 먼저 현지시장의 제품 및 가격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 협상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주거 환경 및 주요 거주 지역

1) 멕시코시티

멕시코시티의 주거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다. 우선 해발 2,235m의 고지이며 공해가 심한데다 지진 지대이기 때문에 주거지 선정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최근 공해 사정은 호전되었지만 건기에는 여전히 좋지 않다.

멕시코의 부유층이나 외국인들은 TECAMACHALCO, HERRADURA, POLANCO 등과 신혼 주택 지역인 BOSQUE, INTERLOMAS 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데 각 지역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 TECAMACHALCO & HERRADURA: LOMAS에 인접한 신혼 주택 지역. LOMAS와 환경이 비슷하며, 고급 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단점으로는 출근 시간 일정 구역이 병목 현상으로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것이다.
- POLANCO: DOWN TOWN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1985년 멕시코 대지진 시 피해를 입지 않아 거주 지역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DOWNTOWN에 위치해 편리하기는 하나 공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심한 편이다.
- LOMAS & TECAMACHALCO 지역: 대부분 거주 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하기는 하나 교통이 불편하여, 가족용 승용차가 없으면 외출 시 콜택시를 불러서 타야 한다.
- BOSQUE: 시내 중심에서 약간 외곽으로 떨어진 곳으로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보다 공해가 덜하며 시티 중심지까지 약 30분이면 연결된다. 지반이 암반으로 지진 안전지대이다.
- INTERLOMAS: BOSQUE 이후에 개발된 신혼 주택 지역으로 상권이 완비되어 있어 최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나, 도심으로의 도로망이 제한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상기 지역 이외에도 교외로 나가면 좋은 거주 지역이 있으나 멕시코시티가 인구 2,000만의 대도시이고 시내에만 차량이 350만대가 넘어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불편하다. 그러나 서울보다는 소통이 원활한 편이다.

2) 몬테레이

몬테레이는 멕시코시티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정되어 있으며, 고도도 해발 600m로 높지 않으므로 생활여건이 우수하다. 흔히 몬테레이시와 아쁘다까, 산빠드로가르사르시아, 산니콜라스, 과달루페, 산따까따리나, 에스꼬베도 등 7개시를 통틀어서 몬테레이라고 총칭하며, 몬테레이의 인구는 418만 명이다.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은 몬테레이 시의 CUMBRES, CONTRY LAS AMERICAS, LAS TORRES, LAS BRISAS 등이며, 산빠드로가르시아는 멕시코 전국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부유층 지역으로 외국기업들의 간부급 이상 직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나. 주택 임차

멕시코시티는 치안이 극도로 불안하여, 치안이 좋은 부유층지역의 임차료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상기 가항에서 언급된 지역의 월 임차료는 월 US\$ 2,000~4,000불 정도이다.

아파트 크기는 보통 150~300 M2이며, 우리나라 평수로 약 50평 이상이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로 생각할 수 있으나 멕시코의 경우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정부, 침실 및 화장실, 세탁실, 창고를 제하면 실제로는 침실 2~3개, 작은 거실 겸 DINING ROOM 1개, 부엌 1개, 화장실 2개의 규모이다.

멕시코에는 치안이 불안한 서민 거주지 지역을 빼면 대부분 주택 규모가 커서 500 SM 규모의 주택도 많다.

주택 임차 시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구하는 경우 소개비는 전액 임대 주가 부담하는 것이 통례이며 소개비로 보통 1개월 분 임차료를 지급한다.

주택 임차료의 인상은 통상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갱신하는데 인플레이션에 따라 주로 인상되며, 미화 계약인 경우에는 보통 미국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여 양자간 합의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 임차 시 임차 보증금은 보통 1개 월치의 임차료를 내며 (2개월 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계약 해지 시에는 반환토록 되어있으나 각종 수리비 명목으로 반환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되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구가 없는 주택이 대부분이며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10~20% 이상 임차료가 올라가고 계약 해지 시 가구 손상을 이유로 임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항상 시비가 일어난다.

주택을 물색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계절 평균의 기온 차보다 일교차가 더 심하고, 별도의 난방 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밤의 추위를 염두에 두고, 낮 동안 태양열을 받을 수 있도록 침실이 남이나 서로 향한 집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절벽에 접하는 면에서 느끼는 냉기를 피하고 계곡 지역에 주로 서식한다는 전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상 층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 교육 환경

정식 한인학교는 없으나 한국어 교육 양성차원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료는 1인당 월 U\$ 28(300 페소)수준이며, 등록비가 200 페소이다.

외국인 학교로는 미국계인 AMERICAN SCHOOL, 영국계인 GREEN GATE와 기타 WEST HILL, HAMILTON, ETON SCHOOL 등이 있다.

AMERICAN SCHOOL FOUNDATION과 GREENGATES SCHOOL은 각각 미국계와 영국계를 대표하는 학교로 역사가 깊으며, 입학도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외국인 유입 증가로 입학이 더욱 어려워졌다. 입학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를 발급, 영어로 번역하여 주한 멕시코 대사관이나 주 멕시코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한 후 면접을 요청하면 된다.

또한 과거 외국인 학교에 재학을 한 경우 동 학교에서의 생활 기록부 각종 포상 경력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입학에 많은 도움이 된다. GREEN GATES SCHOOL이나 AMERICAN SCHOOL 의 경우 일단 서류심사를 한 후 WAITING LIST에 올려놓고 결원이 생기면 이들을 대상으로 필기 및 면접 시험을 치며 합격자에게만 입학을 허용한다. 영어 내지 스페인어 중 최소한 하나를 구사할 수 있다면 학교측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단 입학하면 교실 내에서는 영어만을 쓰도록 한다.

한편, WEST HILL, HAMILTON 및 ETON SCHOOL은 최근에 생긴 학교로 정원에 여유가 있어 입학에 큰 어려움은 없다.

AMERICAN SCHOOL FOUNDATION은 12학년제이고 GREEN GATE는 11학년제이기 때문에 저학년은 GREEN GATE SCHOOL이 엄격한 시스템 등으로 괜찮으나 고학년(중, 고)의 경우 한국과의 학제 차이 때문에 귀국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AMERICAN SCHOOL 이 바람직하다. 또한 GREEN GATE스쿨의 경우 성적 관리가 매우 엄격해 "수" 득점이 힘든 반면 아메리칸 스쿨의 경우 성적 관리가 관대해 비교적 "수" 득점이 용이한 점도 고려 필요하다.

라. 한인 사회

멕시코의 한인 사회는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 보통 에니깽(HENEQUEN)이라고 불리는, 1900년경 메리다(Merida)를 중심으로 선인장 농장에 취업한 한인들의 후손으로 현재 약 5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1 세대들은 거의 다 사망하고 2, 3세대가 살고 있다. 대부분 멕시코인화되어 한국어도 모르나 해외 한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 최근에 이주해온 교민들로 대부분이 상업 및 무역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교민으로는 분류하지 않으나 주재 상사, 투자 업체 직원 및 가족, 유학생들까지 합해, 전체 한인이 약 10,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2년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로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에서 많은 교민들이 멕시코로 이주해왔다가 2003년 중반부터 아르헨티나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자 아르헨티나로 대거 재 이주하였다.

마. 한국식품 조달여건

최근 교민 수가 증가하면서 한국 식품점이 많이 개점하고 있으나 가격은 여전히 한국보다 2~3배로 비싼 편이다.

□ 멕시코 시티 기준 주요 한국 식품점

- 식품점 명: 코리아 타운
- 전화: 5514-6062

- 주소: HAMBURGO No. 232, COL. JUAREZ, MEXICO, D.F. (ZONA ROSA)
- 미장원 및 비디오 대여점도 같이 있다.

○ 식품점 명: 서울슈퍼

- 전화: 5525-0849
- 주소: FLORENCIA No. 12, COL. JUAREZ (ZONA ROSA)

일본 식품점이 멕시코시티에 4곳 있어 일본 식품 가운데 배추, 무 같은 채소류와 간장 등 우리에게 필요한 식품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싼 편이다.

일부 미국 출장 시 한국식품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제품이 멕시코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로 미국에서 수입된 식품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식품류의 통관은 세관에서 문제가 되며, 검역 규정에 의해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다수가 세관 검사가 면제되는 녹색등이 켜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바. 생필품 구입 용이성

생필품 구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물자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공산품은 한국보다 상당히 비싼 편이나 과일, 육류, 채소류 등은 한국보다 싼 편이다. 특히, 소꼬리, 사골 등은 현지인들이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값이 싸며, 고기류가 한국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다.

좀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시장인 CENTRAL DE ABASTO에서 대량으로 구입하여 여러 가구가 나눠 사용하기도 하며, 공산품은 회원제 스토어인 COST COLA SAM'S CLUB 및 월마트 등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사. 의료보험, 병원, 약국

1) 의료보험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이 IMSS 라는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병원 진료비가 무료이다. 그러나 사회보장보험에 의한 의료기관은 의료 시설 면이나 의료 기술수준 면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유층들은 별도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외국인도 현지법인 직원으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의료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적십자 병원과 같이 외국인도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나 시설 면에서 떨어지고 인턴, 레지던트 등의 수련의가 근무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의약품 등은 직접 구입해서 가져가야 한다.

일반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공제가 낮은 상품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연간 약 4600불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2) 병 원

일류 종합병원의 경우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수준급이다. 이러한 병원으로는 HOSPITAL ABC, HOSPITAL ESPANOL, HOSPITAL DE MEXICO 등이 있다.

진료비는 매우 비싸 일반 진찰의 경우 1회에 U\$80-100 수준이다. 예컨대 위에 장애가 있어 병원에 가는 경우 최초 진찰에 U\$100, 위 X-RAY 촬영에 U\$150, X-RAY 결과를 가지고 의사 면담하는데 U\$100, 계 U\$350이 소요된다. 입원의 경우 1일 입원하면 주사액 등 포함 1일 U\$1,000 정도 소요되며, 치과의 경우도 충치 1개 치료에 100\$ 정도이다.

일반 병원은 사전 예약제이며 급한 경우와 야간에는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구급차는 병원 응급실에 전화하여 부를 수 있으며 왕진을 가는 경우는 드물다.

3) 약 국

약품 구입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가능하나, 통상 감기와 같이 가벼운 병의 경우, 증세를 말하면 약국에서 약품을 판매한다. 약품에는 복용 방법 이외에는 어떠한 증상에 복용한다든지 하는 문구나 설명서가 전혀 없으므로 복용 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약국(FARMACIA)은 시내 곳곳에 있고 호텔, 백화점, 슈퍼마켓에도 위치하고 있다.

아. 레저여건

멕시코시티에서 2-3시간 정도 나가면 온천 등 휴양시설이 많이 있다. 멕시코시티가 고지이고 공해가 심해 가능하면 주말마다 야외로 나가는 것이 좋고 월 1회 정도는 저지에 내려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숙면하는 것이 좋다.

1박 2일 정도면 2시간 거리에 있고 해발 1,500M 정도인 CUERNAVACA나 COCOYOC에서 휴양을 하며 3박 4일 정도면 4시간 거리인 ACAPULCO로 휴가를 많이 간다.

그러나 휴가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 우리 나라 장급 정도의 호텔도 1박에 U\$80-100 정도이며, ACAPULCO 휴가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가 왕복 U\$100으로 대단히 비싼 편이다. (편도 430KM거리)

골프장은 멕시코시티 주위에 10 여개가 있으나 다수가 PRIVATE CLUB이며 1년 회비도 가장 저렴한 것이 U\$2,500-3,000 수준이다. GREEN FEE도 비싸 보통 휴일에 US\$150 수준이다.

음악회는 국립극장인 BELLAS ARTES나 Auditorio Nacional에서 수시로 열리며 세계 유명 음악인이나 오페라공연 등도 자주 열리는 편이다.

자. 치안 상태

멕시코시티의 치안상태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교적 좋은 편이었으나 '95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의 증가로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말에는 치안 불안이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간에 도심지를 혼자 다니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며, 주택의 경우 강도가 침입하는 경우가 있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지방에는 치안이 허술한 곳이 많아 시외 버스를 무장 강도가 터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며 야간에 한적한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차를 습격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있어 야간에 한적한 길을 운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일반 시내 택시에는 택시 강도가 운전사로 위장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시내 택시보다는 콜택시(SITIO/씨띠오)나 호텔 택시, 공항에서는 공항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이발소

이발소는 시내 곳곳에 있으며,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장원 (ZONA ROSA에 5개소 정도)도 이용 가능하다. 이발료는 한국 미용실의 경우 커트만 하는 경우 100페소 내외가 보통이다. 멕시코에 한국과 같은 공중목욕탕은 없으며, 구두닦이는 시내 곳곳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요금은 20페소 선이다.

카. 쇼핑

1) 물가

멕시코 물가는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나 품목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과일이나 육류의 경우 서울의 50-70% 선이며, 의류 및 가전 제품의 경우 서울의 130-300%선, 한국 식품은 서울의 2-3배 가격으로 비싼 편이다. 즉, 과일, 야채 등 일차상품은 싸지만 공산품이나, 외식비 등은 매우 비싼 편이다.

2) 쇼핑 장소

멕시코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곳은 ①백화점, ②전문점, ③슈퍼 체인, ④재래 시장, ⑤노점상, ⑥약국 슈퍼점, ⑦도깨비 시장(일명 TEPITO시장으로 멕시코시티에만 존재)으로 대별해 볼 수 있음. 백화점은 Palacio de Hierro, Liverpool, Sears, Sanborns 등이 있으며, 주로 고급품을 취급하며 상품 가격이 비교적 높다. 전문점은 명품 브랜드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청담동과 같은 POLANCO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고, 고급품을 취급하며 가격이 비싸다.

멕시코에는 슈퍼 체인이 매우 발달해 있는데, 대표적인 체인으로는 Gigante, Comercial Mexicana, Wal-Mart, Soriana, COSTCO 등을 들 수 있다.

재래시장은 각 개별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도매상과 소매상이 혼재해 있는데, 멕시코시티의 경우 구시가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는 시장은 직물 거리, 액세서리 거리, 문구류 거리, 의류, 신발류 거리 하는 식으로 같은 업종의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 곳은 주로 저가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멕시코에는 노점상들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데 이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와 범죄 방지를 위해서 노점상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노점상들은 주로 시장 거리를 따라 발달해 있는데 값싼 제품을 더욱 싸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국 슈퍼점은 일반적으로 FARMACIA라는 점포로 의약품과 일반 식품, 완구 등 잡화류로 품목이 한정되어 있으나 점포수 면에서는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도깨비 시장은 멕시코 내에서도 멕시코시티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TEPITO 시장을 지칭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재래 시장과 성격이 유사하나 판매물품이 밀수품 또는 도난물품인 경우가 많아 가격이 원가 이하로 판매되거나 정상가의 2/3 또는 1/2수준에 불과하며 모두 100% 현금 거래이고 A/S는 보장되지 않으며 치안이 매우 불안한 지역이다.

3) 특산품

멕시코의 특산품은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떼킬라와 은 세공품 등인데, 떼킬라는 일반 슈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기타 특산품은 다음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 MERCADO ARTESANAL BUENAVISTA Aldama Frente Ferrocarriles: 은, 오닉스, 가죽 제품
- MERCADO INSURGENTE Calle Londres en Zona Rosa: 화산석 조각품, 가죽 제품, 토속 그림

8. 출장가이드

1. 기후

가. 기후 특성

저지대는 고온 다습한 반면 고지대는 온난건조하며 전국도의 93%가 평균 최저 10도 최고 26 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5월-9월 기간 중 많은 비가 내린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티후아나 등 북부지방에 홍수사태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멕시코 남부지역의 경우 최근 태풍 및 홍수가 빈발하고 있다.

나. 주요 도시의 기후

1) 수도: 멕시코 시티

멕시코시티는 해발 2,308M의 고지이기 때문에 고산기후를 보이고 있어 연중기후가 비슷하나, 겨울(11월-1월)에는 밤에 기온이 낮아지며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복장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11월말부터 시작되는 멕시코의 겨울엔 심각한 대기오염에 급격한 온도 변화로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멕시코 시티의 계절은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눌 수 있는데 건기는 11월-5월 정도이며 6월-10월은 우기인데 우기에는 보통 오후에 한 차례씩 소나기가 오지만 우리나라의 장마철과 같은 기후는 아니며 봄, 가을 같은 서늘한 날씨이다.

최근 들어 이상기온 때문에 우기에는 오후부터 밤까지 많은 비가 내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 오염은 최근 신규차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오래된 자동차가 폐차되어 예전보다는 상당부분 향상되긴 하였지만 건기에는 아직까지 심각한 상황이다.

주요 도시의 기후표

(단위: 섭씨)

Mexico D.F.(2308m)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기온	13.7	15.7	18.2	20.3	19.6	20.7	18.5	17.7	17.5	16.5	14.9	14.4
최고 기온	21.5	23.3	25.7	27.9	26.9	27.1	24.6	23.1	22.7	22.7	22.3	21.5
최저 기온	5.9	8.3	10.6	12.7	12.7	15	14	13.6	11.7	11.7	7.8	6.6
강수량(mm)	33.2	63.75	0	123.19	67.31	403.8	217.17	217.17	381	381	1.27	0

Monterrey (512m)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17.1	16	20.7	24	25.7	30	29.3	28.6	28.2	22.6	19	15
최고기온	23.4	21.5	28.5	31.5	31.5	36.4	35.5	34.7	34.9	28.1	25.9	20.2
최저기온	12.6	12.3	15	17.8	21.1	24.2	24.2	24	23.2	19.3	14.2	9.9
강수량(mm)	233.94	197.1	20.32	0	195.58	2.54	133.35	153.92	30.48	257.81	24.13	0
Guadalajara (1551m)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기온	15	18	17	20	22	24	22	20	20	20	16	15
최고 기온	22	25	28	31	32	32	25	26	25	25	24	24
최저 기온	11	11	8	15	15	19	19	18	17	17	9	7
강수량(mm)	0	0	0	15.0	59.4	578.1	672.9	541.9	453.1	178.6	12.6	0

Acapulco (28m)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기온	26.4	26.6	24.9	27.4	28.0	28.2	28.7	28.4	28.5	27.2	27.3	26.0
최고 기온	31.0	30.8	29.9	31.2	31.8	31.8	31.6	32.0	32.4	31.2	32.0	30.4
최저 기온	22.4	22.3	20.1	23.2	23.9	25.0	26.1	25.5	25.2	24.0	23.3	22.2
강수량(mm)	0	0	0	0	0	594.51	395.2	310.63	633.72	164.59	0	0

자료원: Tu Tiempo, 2006. 6

다. 출장 시 추천복장

멕시코시티의 경우 연교차는 그리 크지 않으나 일교차는 큰 편이므로 복장에 주의가 필요함. 맑은 날은 낮에 우리나라의 늦봄 내지 초여름 날씨로 약간 덥고 조석으로 우리나라의 늦가을 날씨와 유사, 제법 쌀쌀하기 때문에 반소매 셔츠와 함께 스웨터가 항상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봄·가을 옷을 준비하면 되지만, 12~1월 사이는 조석으로 초겨울 날씨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따뜻한 옷이 필요하다.

2. 시차/근무시간

가. 시 차

멕시코와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15시간으로 멕시코가 우리나라보다 15시간이 느리다. 동계 기준 시 한국시간 자정은 멕시코시간으로 전일 오전 9시, 한국시간 아침 9시면 멕시코 시간으로 전일 오후 6시가 된다.

그러나 4월-10월(하계)에는 서머타임 실시로 KST-14시간의 차가 발생함. 즉, 하계에는 한국시간 자정이면 멕시코는 전일 오전 10시, 한국시간 아침 9시면 멕시코는 전일 오후 7시가 된다.

멕시코의 서머타임 제도는 4월 첫째 주 일요일 새벽 02:00가 03:00로 조정되면서 1시간 빨라지며, 서머타임 해제는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새벽 02:00가 01:00로 조정되면서 1시간 늦춰지게 되는 시스템으로 운용된다.

나. 회계 년도

정부 회계 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다. 근무 시간

관공서의 근무 시간은 보통 09:00-14:00시까지 오전근무, 14:00-16:00까지 중식시간, 16:00-18:00까지 오후 근무로 되어있는데 중식시간이 우리나라와 크게 상이하므로 주의를 요함. 참고로 우체국이나 세관, 전력청 등 일부 관청은 오전 중에만 대민 업무를 보는 곳이 많고 일부 기관은 오전 8시나 8시 30분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한편, 멕시코 진출 우리기업들의 경우 1시 또는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중식시간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금요일 오후는 중식시간 없이 3시까지 근무한 다음, 퇴근하여 주말 파티문화를 즐기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일을 오후 2시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일반 직장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4:00시까지 오전근무를 하고, 16:00부터 18:00시까지 오후근무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중식시간은 보통 14:00-16:00인 점에 주의해야 하며, 회사에 따라서 중식시간이 1-2시간으로 차이가 있다. 은행의 경우 09:00 에 문을 열며 중식 휴무 없이 16:00까지 업무를 보는데, HSBC은행은 유일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9:00 시까지 대민업무를 보며, 일부 특정부서만 16:00까지 근무한다. 토요일 휴무제로 토요일에는 대부분 근무를 하지 않으나, HSBC은행만 1시까지 오전 영업을 한다.

끝으로 연말에는 12월 중순부터 1월 첫째 주까지 공무원은 물론, 대부분의 업체들 특히, 책임자급은 연말휴가 기간이므로 출장 시 이점에 참고해야 한다.

3. 도량형

종류	단위
거리	m, km
무게	g, kg
온도	섭씨
전기규격	110v, 60hz

4. 출입국/비자

가. 비 자

한국-멕시코간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94.3.1일 부로 관광 목적인 경우 멕시코 입국 시 180 일까지 비자가 면제되었으며, 관용 여권의 경우에도 '97년부터 비자가 면제되었다. 공항 이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30일, 90일의 비자를 내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지역 이민국에서 총 180 일까지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상용 비자인 경우 비자 신청 시 멕시코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요청하고 있으며, 아직 거래가 없는 경우 멕시코 기업의 초청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상용 비자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상용 목적이더라도 3개월 이내에 업무를 마치고 출국할 수 있을 경우에는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멕시코 도착 후 입국 카드에 방문 목적을 "관광"이라고 적고 입국해도 별로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공항에서 상용 비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가능하면 상용 비자를 준비해 오는 것이 안전하다.

2006년 현재 중국인의 위조 한국여권을 이용한 입국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비자 단속이 심해지고 있어, 공항에서 갑작스러운 검문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 비자 발급처

- 주한 멕시코 대사관
 - 주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33-6
 - 홈페이지: <http://www.sre.gob.mx/corea/co/coreano-index.htm>
 - 전화: 02-798-1694/5
 - 대리인 접수 가능 (우편 접수 불가)
 - 발급 시간 14:00 - 15:00
 - 접수 시간 8:00 - 12:00(월 - 금요일), 공휴일 제외 (한국 및 공휴일)
 - 처리 기간 2박 3일 (급행 처리 되는 서류 없음)

1) 멕시코 비자 신청 준비 서류 안내

☐ 관광

- 무(NO) 비자 (15일 에서 90 일 사이, 입국 시 입국 심사 과정에서 결정)

☐ 상용(FM3)

- 사진 2매
- 신청서(대사관 비치)
- 여권(유효 기간 6개월 이상)
- 출장 증명서 (TRAVEL ORDER) 영문: 방문 목적, 방문 회사명 및 주소, TEL, FAX번호, 기간 등 자세히 기재
- 갑근세 OR 소득 금액 증명서(영문 번역 불필요)
- 회사 법인 인감 증명서 OR 개인 사업자 등록 증명 원(영문 번역 불필요)
- 방문 근거 서류: (초청장과 FAX, LC, INVOICE, 등 멕시코의 거래처와 주고 받은 것으로 실제 거래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98.00 DLS (매달 환율에 따라 원화로 계산하여 접수 시 지불)

☐ 기술자 (FMVC)

- 사진 1매, -신청서(대사관 비치)
- 여권(유효 기간 6개월 이상)
- 출장 증명서 (TRAVEL ORDER)영문: 방문 목적, 방문 회사명 및 주소, TEL, FAX번호,

기간 등 자세히 기재

- 갑근세 OR 소득 금액 증명서(영문 번역 불필요)
- 회사법인인감 증명서 OR 개인 사업자 등록증, 방문 근거 서류(멕시코 거래처에서 받은 기술자 초청장)
- 단기 방문자 (기술 지원)용 입국 CARD 이므로 수수료 없으며 30일간 이용 가능

☐ 선원 (경유 VISA)

- 사진 1매
- 신청서(대사관 비치)
- 선원 수첩 OR 여권
- 항해 일정표(멕시코 입국일, 출국일, 입국항 반드시 기재)
- 출장 증명서 (TRAVEL ORDER)영문

☐ 관용

-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90일간 VISA 면제

☐ 기타

- 친지 방문, 경유 시 관광과 동일

☐ 서류 영사 확인

- 건당 \$ 36.00 (매달 환율에 따라 원화로 계산하여 접수 시 지불)

☐ 입국세 안내

- 멕시코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비행기표에 입국세 USD \$20.00 포함되며 육로나 해상으로 입국하는 경우 멕시코 입국 지점에서 입국세 USD \$20.00을 지불하게 되어있으며 입국세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다. 출입국 절차

관광의 경우 입국 비행 기내에서 배부하는 입국 카드를 작성하여 공항 도착 후 입국 심사대에 제출하면 체류 기간을 물어보고 입국 카드에 기간을 적는다(통상 30일). 입국 카드는 두 장으로 구성되며 사본은 도장을 찍어 돌려주는데 동 사본은 잘 보관했다가 출국 시 항공사에서 보딩 패스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2005. 6 월 초부터 입국 심사대 M1과 M2등으로 이원화하여, Gate25 부근의 M1 심사대는 미국이나 구주지역 항공편 승객, Gate19 부근의 M2 심사대는 중남미 지역 항공편 승객만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있어, 입국에 관한 안내 방송 및 표지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멕시코는 출국 시 별도의 출국 심사를 하지 않고 입국 시 받은 입국 카드 사본을 항공사 카운트에 제출하는 것으로 심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동 카드 분실 시 출입국 사무소에서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상용 비자나 관용 여권을 가진 경우 별도의 입국 카드가 필요한데 비행 기내에서 배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착 후 입국 심 사장에 비치된 안내 데스크에서 양식을 받아 기재해야 한다(빨간색 카드임). 동 카드 역시 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는 입국자에게 돌려주는데 사본은 받아두었다가 출국 시 제출해야 한다.

라. 세관 검사 방식

멕시코 공항의 통관 시에는 자발적인 신고와 무작위 검사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발적 신고의 경우 특별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품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무작위 검사는 특별히 신고할만한 물건이 없는 경우 세관 검사대 앞에 놓인 신호등을 본인 이 직접 누르게 되어 있는데 신호를 눌러 녹색 불이 들어온 경우 검사 없이 그대로 통과 하며 적색 불이 들어온 경우에는 반입물을 전부 검사하게 됨. 적색불이 들어오는 확률은 20% 미만이나 검사에서 과세 물품이 나올 경우 물품 가격의 4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멕시코에 도착 전 비행 기내에서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를 작성하게 된다.

마. 출입국 유의 사항

중남미 국가(특히, 콜롬비아 등)에서 도착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공항 세관에서의 화물 검색이 심하므로 마약으로 오인되는 약품 반입을 절대 삼가야 하며, 음식류 반입도 금지 되고 있다.

중남미인 및 중남미 거주 아시아 계인들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중남미를 경유해 오는 경우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다. 또한, 커피를 남미에서 사 올 경우, 세관 통과 시 대부분 짐 검사를 하므로, 당황하지 말고 세관원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

바. 공항- 시내 교통편

멕시코 국제공항 청사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공항 택시 쿠폰 판매소(Taquilla de Taxi: 따끼아 데 딱시)에서 쿠폰을 구입(가격은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공항에서 무역관 인근 호텔 간은 대략 15불선임), 공항 건물 밖 택시 스탠드에 제출하면 순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택시 (등록된 택시로 안전함)를 이용하여 호텔이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멕시코 시티는 택시 강도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길거리 택시를 타지 말고 반드시 공인된 공항 택시나 콜택시를 이용 해야 안전하다.

5. 환율/환전

가. 화폐 단위

멕시코 화폐 단위는 페소(peso)이며, 단위는 미 달러와 표시와 같은 “\$”로 표기되므로 단위에 주의해야 함. 이러한 혼동을 막기 위해 화폐 단위를 M.N.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MONEDA NACIONAL의 약자로 '국민 화폐'라는 의미이다. \$는 숫자 앞에 쓰는데 반해 MN은 숫자 다음에 쓴다.

현재 유통 중인 지폐는 20 페소, 50 페소, 100 페소, 200 페소, 500 페소, 1000 페소 등 6종이 있다. 주화로는 10 페소, 5 페소, 2 페소, 1 페소, 50 센따보, 20 센따보, 10 센따보 등 7종이 있다.

나. 지폐 도안의 내용 및 의미

□ 20 페소

- 가장 널리 쓰이는 지폐로서 멕시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자 유일무이한 인디오 출신 대통령인 BENITO JUAREZ를 담고 있음. 현 멕시코시티 공항도 그의 이름을 따 베니또 후아레스 공항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멕시코시내를 동서로 관통하는 최대의 대로인 REFORMA거리도 후아레스 대통령의 치적인 혁신적 개혁정신을 기리기 위해 개혁이란 의미의 레포르마 거리로 명명되었다. 또한 3월21일은 후아레스 대통령 탄신일(NATALICIO)로서 국경일로 되어있다.
- 20 페소 지폐 중심부에 나타나있는 독수리상은 선인장위에서 뱀을 물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멕시코를 상징하는 국장으로서 사용되고 있음. 뒷면에는 후아레스 대통령의 동상이 새겨져 있다.

□ 50 페소

- 앞면에는 1810년 멕시코 독립운동의 기수이자 공화정 제창자인 JOSE MARIA MORELOS 신부와 독립전쟁 당시의 대포가 인쇄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모렐로스 신부의 고향인 미초아칸의 호수풍경 및 동 지역의 상징물이 담겨있다.

□ 100 페소

- 15세기 신대륙 발견기 아즈텍 시대에 페스꼬꼬 지역을 다스리던 성군 NEZAHUAL COYOTL왕과 동 왕국의 상징인 태양이 형상화되어 있고, 시인으로서는 네싸왈코요틀 왕이 남긴 시구도 인쇄 되어 있다.

□ 200 페소

- 멕시코 문학사에 길이 빛나는 17세기 천재 문학가이자 수녀였던 JUANA DE ASBAJE (세레명 SOR JUANA INES DE LA CRUZ 라는 이름으로 더욱 유명)와 그녀가 집필한 책과 펜, 잉크 등이 나타나 있다. 후면은 소르후아나 수녀가 몸담았던 SAN JERONIMO 교단 수도원임. 고액권으로 위폐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500 페소

- 멕시코의 국경일인 뿌에블라 전투 대불 전승 기념일(1862년 5월 5일/5 DE MAYO)의 영웅 IGNACIO ZARAGOZA장군과 프랑스 군과의 뿌에블라 전투 당시 로레또 격전장 모습이 앞면에 실려있고, 뒷면에는 PUEBLA 대성당과 동 상징물인 천사상이 새겨져 있다(싸라고사 장군은 후아레스 대통령을 도와 개혁전쟁(GUERRA DE REFORMA)을 성공으로 이끈 인물이기도 함). 고액권으로 위폐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1000 페소

- 멕시코 독립의 영웅 미겔 이달고 신부(Miguel Hidalgo y Costilla)가 인쇄되어 있음. 고액권으로 위폐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 환전 방법

멕시코는 1994년 12월 22일에 환율 자유화 조치에 따라 환전이 자유로워졌으며, 은행 및 환전소에 따라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다. 환전 장소는 은행(BANCO), 환전소(CASA DE CAMBIO), 호텔 등이 있는데 호텔보다는 은행이나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은행 중에서는 HSBC 은행이 가장 환율이 좋은 편이다. 또한, 멕시코 공항 도착 시, 공항 환전소에서 일부 필요한 금액을 환전하는 것도 편리한 방법이다. 여행자 수표의 경우는 현금보다 환율이 좋은 것이 보통이며, 환전 시 반드시 여권을 제시 하고 그 자리에서 한쪽에 서명을 해야 한다.

멕시코는 달러 거래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일반 가게나 식당에서는 달러를 잘 받지 않으며, 달러 여행자 수표는 더욱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페소화 현금을 휴대하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칸쿤(CANCUN)이나 아카풀코 (ACAPULCO) 등 유명 휴양지에서는 달러화로 거래가 가능하나, 적용 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환전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토요일에는 오전까지 환전소나 HSBC 은행에서 환전을 할 수 있으며, 일요일에는 공항 환전 소에서만 환전이 가능하다.

6. 교통/통신

가. 우리나라와의 교통

1) 항공편

멕시코시티는 교통의 요지이나 한국과의 직항이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주로 L.A를 경유하여 멕시코에 도착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9월부터 테러 위험 때문에 미국 비자 없는 사람은 미국 경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미국 비자가 없을 경우 밴쿠버, 토론토 등 캐나다를 경유해야 한다. 일반적인 캐나다 경유 노선은 KAL을 이용하여 '인천-밴쿠버-멕시코시티' 또는 JAL을 이용하여 '인천-동경-밴쿠버-멕시코시티'이다.

멕시코 취항 항공편으로는 멕시코 항공사로 AEROMEXICO(AM)와 MEXICANA DE AVIACION (MX) 2개사와 미국의 AMERICAN AIRLINE(AA), UNITED AIRLINE(UA), CONTINENTAL AIRLINE(CA), DELTA AIRLINE(DL) 등이 있고 기타 편수는 많지 않으나 브라질의 VARIG, 콜롬비아의 AVIANCA, 칠레의 LANCHILE, 아르헨티나의 LINEA AEREA ARGENTINA 등이 있다. 또한 일본의 JAL도 주2회 멕시코 시티에 취항하고 있다.

L.A에서의 비행기편은 일일 다수 편수가 운행되고 있으며, 미국 항공사와 멕시코 항공사는 주로 낮 시간에 멕시코에 도착하는 반면 중남미 항공사 비행기는 밤 또는 새벽에 도착하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불편하며 또한 결항의 경우에도 미국, 멕시코 비행기는 멕시코시티에 자주 운항하므로 바로 다음 비행기 연결이 가능하나 중남미 비행기는 주 1-2회가 보통이어서 불편하다.

멕시코까지의 여행 시간은 서울-L.A구간이 약 10~11시간, L.A-멕시코시티간이 약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2) 선편

멕시코 국적 선인 TMM(TRANSPORTACION MARITIMA MEXICANA)이 8일마다 한국을 취항하고 있으며 한진 해운도 98년부터 정기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선적 항구는 부산이며, 멕시코 항구는 태평양 연안의 ENSENADA, MANZANILLO, LAZARO CARDE NAS 및 SALINA CRUZ 항구 등이다.

극동을 운항하는 TMM의 운항 스케줄은 홍콩-대만-부산-오사까-요코하마-롱비치(미국)-엔세나다-만사니요-라사로 까르데나스-살리나꾸르스이다. 부산에서 엔세나다까지는 보통 17일, 만사니요까지는 21일, 라사로 까르데나스까지는 22 일, 살리나 꾸르스까지는 24일이 소요된다.

운송 요금은 한국(부산)-멕시코(Manzanillo) 간 40" 컨테이너 순 운임이 약 미화 3,300불, 멕시코 만사니요(Manzanillo) 항구 - 멕시코시티까지 트럭운임이 1,300불 수준이다. (한진해운, 2007년 8월 기준. 순 운임과 별도로 성수기별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나. 국내 교통

1) 택시

일반 택시는 두가지 차량은 나누어지는데, 기본 요금이 5.80페소(약 0.52불, 적용 환율 US\$1=MX\$11)인 Volkswagen 구형(일명 딱정벌레/Two Door)이 있으며, 최근에 신형으로 등장 한 Four Door 택시는 기본 요금이 6.80페소(약 0.6불)이다.

택시 요금은 시간, 거리 병산제로 미터 요금대로 지불하면 되나 간혹 미터기가 고장 났거나 고장인 것으로 조작해놓고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으니 택시를 타자마자 확인이 필요하다. 주로 붉은색 택시는 '콜택시'로 미터기 없이 사전 요금 결정 하에 이용하며 시내 곳곳에 SITIO(시띠오)라 불리는 CALL 대기소가 있어 전화로 택시를 부르면 됨. 멕시코는 치안이 나쁘고 시내 택시가 위험하므로 콜택시 이용이 바람직하다.

○ 멕시코 시티 내 어디에서나 24시간 운행되는 콜택시 전화 번호: 5660-1122 (스페인어만 통용)

공항 택시는 노란색으로 비행기가 그려져 있는데 입국장에 있는 택시 티켓 판매소에서 택시 티켓을 구입하여 이용해야 한다. 이때 멕시코 시내를 여러 군의 구역으로 나누어놓고 구역에 따라 요금을 책정,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공항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일반 택시를 이용할 경우 터무니 없는 요금을 강요받거나 강도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등록된 공항 택시만 이용해야 한다.

관광 택시는 주로 호텔 앞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데 행선지와 시간별로 요금을 받고 있으며 미터기가 없어 사전에 요금을 정해야 한다. 시간당으로 계약할 경우 통상 시간당 20 달러 정도 받고 있으며, 대형차가 많아 관광이나 비즈니스, 공항 왕래에 주로 이용된다.

요약하면 일반 택시 요금의 두 배가 콜택시(Sitio), 콜택시 요금의 두 배가 관광 택시라 할 수 있다.

2) 시내 대중 교통

□ 버스

- 시내 버스도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시내 곳곳으로 연결됨. 시내 버스 유형은 대형 버스(RTP, Red de Transportes de Pasajeros), 소형버스(Microbus), 전기버스(Trolebus) 등이 있다. 기본 요금은 RTP버스와 전기버스의 경우 거리에 상관 없이 2페소이며, 소형버스는 0~5KM 2.5페소, 5~12KM 3.5페소, 12KM 이상 4페소를 징수한다.

□ 지하철

- 멕시코 내의 지하철 노선은 총 11개선으로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다. 지하철 요금은 거리 구분 없이 2페소임. 일반적으로 시내 버스나 지하철은 관광객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 메트로 버스

- 멕시코시티 남북을 가로지르는 인수르헨테스(Insurgentes)에 운행하는 버스로 요금은 3.5 페소이다.

3) 국내 교통

□ 항공

- 멕시코는 국토 면적이 넓고 철로, 도로 등의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아 항공이 상대 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몬테레이, 띠후아나 등 지방을 여행할 때는 보통 항공 편을 이용한다. 그러나 비행기 요금이 상당히 비싼 편이어서 멕시코시티에서 미국접경 지대인 띠후아나까지의 국내 왕복 항공료가 멕시코시에서 LA까지의 국제선 요금보다 더 비싸다.

□ 도로

- 현재 계속 확장 중에 있으며 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대단히 비싸 멕시코시티에서 430Km거리에 있는 휴양지 아까폴코(ACAPULCO)까지의 왕복 통행료가 미화 100불을 상회한다.

□ 지방 버스

- 지방 버스는 다양한 종류가 운행되고 있으며, 최고급은 우리나라 우등 버스 이상의 수준으로 편리한데다 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 여행 시 이용하고 있다.

□ 철도

- 멕시코시티와 각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가 부설되어 있으나 기차 성능이 노후되고 서비스가 나쁜 편이어서 일반인들이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사실상 현재 치와와주 CHEPE, 메리다주 관광 철도, 데킬라 지역 TEQUILA EXPRESS 등 3개선의 관광선만 운행된다고 볼 수 있다.

다. 국제 통신

장거리 통신의 경우 '90년대 중반까지 "멕시코 전화 회사(TELMEX)"의 독점 상태에 있었으나 '96년 8월부터 미국 등 외국 통신 회사의 시장 진출이 허용되었고 '97년 1월에 시장이 완전 개방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장거리 전화 요금이 상당히 비싼 편이다.

팩시밀리는 거의 모든 회사에 보급되어 있으나 전화 한대로 전화와 팩스를 돌려가며 쓰는 업체들이 많다. 이들 업체들에게 낮에 팩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항상 전화를 건 후 팩스로 전환시켜줄 것을 요구해야 하며 밤인 경우 자동으로 팩스 수신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아 시차 관계로 항상 이곳 밤시간에 팩스를 보내야 하는 한국 업체들이 팩스를 보내지 못하는 일이 많다. 팩스를 전화로 받았을 때에는 TONO, POR FAVOR (또는, 뽀르 파보르)라고 얘기하면 팩스 신호를 넣어준다.

멕시코에서 다른 나라로 국제전화를 걸 경우는 먼저 00을 돌린 후 국가 코드, 지역 번호와 전화번호를 돌리면 된다. 미국 내 지역 번호 213에 전화번호 795-6789인 경우 00-1-213-795-6789를 돌리면 된다.

멕시코는 시외 및 국제전화 요금이 대단히 비싸 호텔에서 한국으로 전화 몇 통화 보내면 호텔 요금 보다 전화 요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호텔에서는 서비스 요금을 가산하기 때문) 따라서 호텔에서는 COLLECT CALL 방식이 바람직하다.

□ 우리나라와의 통화

- 한국까지의 국제전화 요금은 TELMEX의 경우 할인대와 비 할인대 시간이 있는데 할인대의 경우 (월-금 05:00-16:59, 토-일 24시간) 분당 U\$1이며 비 할인대 (월/금 17:00-04:59)는 분당 U\$1.5불이 소요된다.
- 멕시코의 국가코드는 "52"이므로 한국에서 전화 시 국가 코드, 지역 코드, 전화번호를 돌리면 된다.
- 참고로 멕시코의 3대도시인 멕시코 시티(MEXICO D.F.), 과달라하라(GUADALAJARA), 몬테레이 (MONTERREY)의 경우 지역 코드는 2자리, 그리고 전화번호는 8자리임. 그리고 나머지 도시는 지역 코드 3자리, 전화번호 7자리이다.
- 참고로 멕시코 현지의 한국 교포업체인 피닉스 텔레콤에서는 국제전화용 카드를 판매하고 있는데 동 카드를 이용하면 한국 일반전화 통화 시 분당 1페소, 휴대전화 통화 시 1.5페소의 저렴한 가격으로 통화가 가능하다. 카드는 한국 음식점, 슈퍼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 멕시코 일반전화로 거는 경우

- 001(또는 002 등) - 52 - 55 - 5514 - 3173
- (국제전화) (멕시코) (멕시코시티) (무역관)
- 한국에 전화를 거는 경우 국제전화 코드인 001/002와 국가 코드, 지역 코드, 전화번호를 돌리면 된다.

□ 멕시코 핸드폰으로 거는 경우

- 멕시코시티 내 핸드폰 번호가 04455-1234-5678인 경우 한국에서 거는 방법
- 001(또는 002 등) - 52 - 1 - 55 - 1234 - 5678
(국제전화) (멕시코) (핸드폰) (멕시코시티) (구역관)

□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전화 거는 방법

- 서울 3460-7114에 전화하는 경우(00)(82)(2)3460-7114(국제전화)(한국) (서울)
(전화번호)를 돌리면 된다.
- 한국과 멕시코의 시차는 15시간으로 한국의 아침 9시가 멕시코의 전날 오후 6시이므로 통상 한국에서 출근하자마자 멕시코로 전화하면 통화가 가능하다.
- 하계 (4월 첫째 주 일요일 새벽2시 -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새벽2시)에는 성머 타임이 적용되므로 1시간이 빨라져 한국과 14시간의 시차가 발생한다.
- 참고로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국제전화 또는 국제 팩스를 보낼 경우 지역 번호 첫 자리가 0으로 시작하는 경우 통화 또는 송신이 안돼 포기하는 바이어가 부지기수인 바 전화나 팩스 번호 소개를 (82-2, 서울의 경우), (82-51, 부산의 경우) 와 같이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국내 통신

전화 1회선 설치 비용은 회선당 가정 또는 상업용이든 1,330페소(약 121불)이며, 설치 시간은 신청 일로부터 3-7일 정도임. 전화 요금은 상업 지역과 가정 요금이 다른데 상업 지역은 기본 요금이 198페소 (약 U\$18불), 가정 요금은 156.55페소 (약 U\$14.2불) 정도이다. 가정용 기본 요금에는 100통화가 포함되며 추가 통화 시 통화당 1.48페소씩 추가 요금이 부과됨. 상업용의 경우 기본 요금에 무료 통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통화당 1.48페소이다. 단, 1통화의 통화 시간에는 제한이 없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일반 전화로 휴대폰과 통화 시에는 분당 2.5페소가 들며 공중전화를 통해 시내 통화할 경우 분당 2페소이며 핸드폰으로 통화는 4페소이다.

□ 공중전화

- 공중전화의 경우 모두 카드 식으로, 카드는 30, 50, 100 페소짜리 카드가 있는데 호텔이나 공항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카드 식 공중전화 사용시는 시외 전화 및 국제전화 사용 에도 전혀 불편이 없음. 참고로 약 50페소 짜리 카드면 한국까지 3분 정도 통화가 가능하다.

□ 시외 전화 거는 요령

- 먼저 시외 전화 코드인 '01'을 돌리고 다음 걸고자 하는 도시의 지역 번호와 전화 번호를 돌리면 된다. 예를 들어 지역 번호 33인 과달라하라의 3623-6543을 걸고자 할 때는 01-33-3623-6543을 돌리면 된다.

마. 우편

멕시코 우체국은 서비스가 매우 나쁘며 분실이 잦기 때문에 한국으로 소포를 보낼 때 일반 우체국이 아닌 국제 특송 운송(DHL, FEDEX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특송 우편을 취급하는 PAKMAIL 이용도 가능하다.

- FEDEX MEXICO: <http://www.fedex.com/mx>
 - 전화: (52-55) 5228-9904
- DHL MEXICO: <http://www.dhl.com.mx/publish/mx/es.high.html>
- PAKMAIL: <http://www.pakmail.com.mx/>

7. 호텔/식당

가. 호텔

멕시코의 호텔 요금은 상당히 비싼 편이나 패키지 상품이나 여행사를 통하면 10-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래 요금은 2006년 1월 기준 호텔 정상 요금 기준 자료이다.

1) 특급 호텔

☐ 멕시코시티

- 호텔명: HOTEL CAMINO REAL
 - 주소: MARIANO ESCOBEDO NO.700, COL. ANZUREZ
 - 전화: (52-55)5263-8887
 - 요금: US\$190(세금, 조식 미포함)
- 호텔명: HOTEL PRESIDENTE INTERCONTINENTAL
 - 주소: CAMPOS ELISEOS 218 COL. POLANCO C.P.11560
 - 전화: (52-55)5327-7777 FAX:(52-55)5327-7787
 - 요금: 싱글 US\$210, 트윈 US\$ 324(세금, 조식 미포함)
- 호텔명: HOTEL NIKKO
 - 주소: Campos Eliseos No. 204, Col. Polanco, C.P. 11560, Mexico
 - 전화: (52-55) 5280-1111
 - 팩스: (52-55) 5280-9191
 - 요금: US\$ 210(세금 및 조식 미포함) (* 싱글/트윈 동일)
 - 특징: 동 호텔의 아침식사는 한국인 입맛에 비교적 맞는 편임
- 호텔명: HOTEL FOUR SEASONS
 - 주소: PASEO DE LA REFORMA 500 COL. JUAREZ
 - 전화: (52-55)230-1818 FAX:(52-55)230-1817
 - 요금: 싱글 US\$ 320, 트윈 US\$380 (세금 및 조식 미포함)

- 호텔명: HOTEL MARIA ISABEL SHERATON
-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325, COL. CUAUHEMOC
- 전화: (52-55)5207-3933 FAX:(52-55)5207-0684
- 요금: US\$ 299 (세금, 조식 포함 / 트윈 US\$349)

□ 몬테레이

- 호텔명: HOTEL SHERATON AMBASSADOR
- 주소: HIDALGO 310 OTE. CENTRO 64000 MONTERREY, N.L.(시내중심)
- 전화: (52-81)8380-7000 FAX:(52-81)8345-1984
- 요금: 싱글 약 US\$ 130, 트윈 약 US\$ 140 (세금, 조식 포함. 인터넷 예약 시 할인 제공)
- 호텔명: HOTEL SAFI
- 주소: DIEGO RIBERA 555, COL. VALLE ORIENTE, SAN PEDRO, N.L.(무역관에서 도보로 2분)
- 전화: (52-81)8100-7054
- 홈페이지: www.safihotel.com
- 요금: 싱글 약 US\$ 100, 트윈 약 US\$ 106 (세금 포함, 조식 불포함. 신규개장에 따른 임시 할인가임.)

2) 1급 호텔

□ 멕시코시티

- 호텔명: HOTEL GRAN MELIA MEXICO REFORMA
-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 1, COL. TABACALERA DEL CUAUHEMOC
- 전화: (52-55)5128-5000
- 요금: US\$ 130 (싱글/트윈, 세금, 조식 미 포함)
- 호텔명: HOTEL GALERIA PLAZA
- 주소: HAMBURGO 195, COL. JUAREZ, ZONZ ROZA, MEXICO
- 전화: (52-55)5230-1717
- 팩스: (52-55)5207-5867
- 요금: US\$ 130(세금, 조식 미포함)(싱글/트윈 동일)
- 호텔명: HOTEL NH ZONA ROSA
- 주소: LIVERPOOL 155 ZONA ROSA, COL. JUAREZ
- 전화: (52-55)5228-9928 FAX:(52-55)5511-3490
- 요금: US\$ 180(세금, 조식 포함, 싱글/트윈 동일)

□ 몬테레이

- 호텔명: NOVOTEL VALLE
- 주소: AVE. LAZARO CARDENAS 3000, ESQ. DR. ATL. COL. VALLE ORIENTE, SAN PEDRO, N.L. (무역관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
- 전화: (52-81)8133-8133 / 팩 스: 8133-8134
- 요금: US\$ 84 (싱글/트윈, 세금 및 조식 포함)

3) 중급 호텔

- 호텔명: HOTEL BRISTOL
 - 주소: PLAZA NECAXA 17, ESQ. PANUCO Y SENA MEXICO
 - 전화: (52-55) 5208-1717
 - 팩스: (52-55) 5533-0245
 - 요율: 트윈: U\$ 70(세금 포함, 조식 미포함), 싱글:U\$ 60(세금 포함, 조식 미포함)
- 호텔명: HOTEL FONTAN(3급)
 - 주소: COLON 27, ESQ. PASEO DE LA REFORMA
 - 전화:(52-55)5518-5460/9 FAX:(52-55)5521-9240
 - 요금: 73
- 호텔명: HOTAL SUITES ESTOCOLMO 30
 - 주소: ESTOCOLMO NO. 30, COL. JUAREZ
 - 전화: (52-55) 5511-4545
 - 팩스: (52-55) 5208-3609
 - 요율: 방1개 US\$ 135-150(세금 포함, 방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
 - 특징: 간단한 취사가 가능함.

나. 식당

1) 한국식당

□ 멕시코 시티 기준 주요 식당

- 한국정(PABELLON COREANO)
 - 주소: Estocolmo No. 16, Col. Juarez (Zona Rosa)
 - 전화: (52-55) 5525-2509 / 5514-2462
 - 메뉴: 설렁탕, 김치찌개 등 탕·찌개류·불고기·갈비·냉면 등 대부분의 한국 음식이 준비됨.
 - 가격 수준: 탕, 찌개류가 1인분에 U\$ 10 수준이며 4인 가족이 불고기 4인분과 냉면 등으로 식사하는 경우 약 U\$ 100이다.
 - 특징: 멕시코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식당
- 우래옥
 - 주소: Hamburgo No. 232, Col. Juarez (Zona Rosa)
 - 전화: (52-55) 5511-1233
 - 특징: 최근 내부 수리를 하여 깔끔하고 값이 저렴한 편임. 우래옥 옆은 일명 '코리아 타운'으로 한국 미용실, 비디오 대여점, 식품점, 제과점 등이 모여 있다.
- 영빈관
 - 주소: Florencia 15, Col. Juarez (Zona Rosa)
 - 전화: (52-55) 5208-9399
 - 특징: 숯불갈비 전문 식당임. 연중 무휴로 일요일도 영업

○ 청하

- 주소: Londres 177 Piso1 Zona Rosa
- 전화: (52-55) 5208-2734
- 특징: 보쌈, 생선회, 볶요리, 각종 찌개류 및 칼국수 등

○ 송림

- 주소: Liverpool 158 (Zona Rosa)
- 전화: (52-55) 5207-4490
- 특징: 숯불갈비, 한국식 중화요리 등, 회식장소로 적당함.

○ 민속촌

- 주소: Florencia 45 (Zona Rosa)
- 전화: (52-55) 5255-8558
- 특징: 순대국, 해장국, 곰창볶음 등, 회식장소로 적당함.

□ 몬테레이

○ 서울

- 주소: Rio Mississippi 118 Ote. Centrito del Valle, San Pedro, N.L.
- 전화: (52-81) 8478-7517
- 특징: 찌개류부터 면류, 탕류 등 메뉴 다양함.

○ GRAN CHEF (그란체프)

- 주소: Independencia 849, Col. Gueerra, Guadalupe, N.L.
- 전화: (52-81) 8398-2136
- 특징: 중국 음식과 현지 음식을 뷔페식으로 제공하는데, 한국 음식은 메뉴를 별도로 요청하여 주문하면 됨.

2) 일본식당

멕시코시티에서 한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일본 식당을 기준으로 소개.

○ 벤케이(BENKEI)

- 주소: CAMPOS ELISEOS 204 (NIKKO HOTEL 구내)
- 전화: (52-55) 5280-1111
- 특색: 멕시코 내 최고급 일식집으로 가격이 비싼편 임. Hotel Nikko 1층에 있으며, 중요한 손님 접대에 좋은 식당이다. 음식값은 약간의 주류를 포함 1인당 약 50-80불 선이다.

○ 순토리(SUNTORY)

- 주소: TORRES ADLID 14, COL. DEL VALLE
- 전화: (52-55) 5536-9432
- 특색: Benkey와 함께 최고급 일식당으로 바닷 가재 요리와 철판구이 요리로 유명하다. 음식 맛과 분위기가 고급스러워 중요한 손님 접대에 적당함. 가격은 약간의 주류와 함께 1인당 약 50~80 달러선이다. 순토리는 REFORMA 거리에도 분점이 있는데 ADALID 거리의 식당이 규모가 크다.

○ 후 지(FUJI)

- 주소: RIO PANUCO 128, COL. CUAHUTEMOC
- 전화: (52-55) 5514-6814
- 특색: 초밥이나 생선회의 경우 신선도가 떨어지지만 안주에 적합한 구이 또는 꼬치 종류는 괜찮은 편이다(3층). 음식값은 중간 수준.

○ 나가오까 (NAGAOKA)

- 주소: ARKANSAS CO. 38, COL. NAPOLES
- 전화: (52-55) 5548-9530
- 특색: 가정집을 개조한 식당으로 분위기는 그다지 고급스럽지 않지만 깔끔하다. 음식 맛도 괜찮으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위치는 WTC(WORLD TRADE CENTER) 뒷골목 에 있다.

○ 사무라이 (Restaurante El Samurai)

- 주 소: Nueva york No.85, Col. Napoles 03810, Mexico, D.F.
- 전 화: (52-55)5523-1469
- 특 색: 일본식 꼬치 요리 및 대판야끼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으로 규모도 크고 깨끗하다. 음식 맛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 위치는 WTC (World Trade Center) 뒤편.

3) 중국 식당

(멕시코시티 한국인 입맛에 맞는 중국식당 기준)

○ CHEZ WOK

- 주소: Tennyson 117, Polanco, Eqq. Presidente Masaryk
- 전화: (52-55) 5281-3410
- 특징: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중국 식당이며, 가격은 다소 비싼 편이다. 중요한 손님 접대시 무난한 분위기의 식당이다.

○ HUNAN

-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2210, Col. Lomas de Chapultepec
- 전화: (52-55) 5596-0123 / 5011
- 특징: 고급스럽고 모던한 분위기의 중국식당이며, 가격은 다소 비싼편. 국제화된 중국 음식이기 때문에 멕시코인들이 많이 찾고 있다.

○ EXELENIA

- 주소: Prado Sur No.110, Col. Lomas de Chapultepec (Paseo de la Reforma 코너)
- 전화: (52-55) 5520-7446
- 특징: 비교적 고급스런 분위기의 중국식당이며, 가격은 다소 비싼 편. 주방장이 한국의 롯데 호텔 주방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 한국인 입맛에 맞게 요리해주기도 함. 북경오리가 괜찮은 편이다.

○ CHINA GIRL

- 주소: PRADO NORTE NO.370, COL. LOMAS DE CHAPULTEPEC
- 전화:(52-55) 5520-3108
- 특색: 내부는 그리 세련되지 않지만 음식 맛이 괜찮은 편이며, 가격도 부담이 없다.

○ TAI HONG

- 주소: PROLONGACION, BOSQUE DE REFORMA, NO.1316, LOMAS CHAMIZAL, C.P.05129,
- 전화: (52-55) 5208-6771
- 특색: 식당의 규모는 적으나 음식 맛이 홍콩식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맞고 가격도 저렴한 편. 식당 주인은 CHINA GIRL 주인과 친척 관계로 메뉴와 분위기가 동일하다.

○ BLOSSOM

- 주소: SAN FRANCISCO 360, COL. DEL VALLE
- 전화: (52-55) 5523-8516 / 682-3478
- 특색: 멕시코 유명 정치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음식 맛이 한국인 입맛에 맞는 편이다. 북경 오리 요리가 유명함. 최근 Palmas에도 분점이 생겼다.

4) 멕시코 식당

□ 멕시코시티

○ HACIENDA DE LOS MORALES

- 주소: VAZQUEZ DE MELLA NO.525
- 전화: (52-55) 5281-4569 / 5281-4703
- 특색: 멕시코의 전통 식당이라기보다는 국제화된 서양식당으로 부유층이 이용하는 고급 식당이다. 식사비는 통상 1인당 U\$50-80 정도. 큰 저택을 개조한 식당으로 실내와 정원 분위기가 고급스럽다.

○ SAN ANGEL INN

- 주소: DIEGO RIVERA NO.50 ESQ. CON ALTAVISTA, SAN ANGEL INN
- 전화: (52-55) 5616-1402 / 5616-1527
- 특색: 멕시코시티 남쪽 지역에 있는 식당으로 고급스런 분위기에 정원이 인상적이다. 음식 맛도 괜찮은 편이며, 가격은 조금 비싼 편임. 한번 정도 가볼 만한 식당이며, 동 식당 주변에는 주말에 전통 공예품 베품 시장이 열린다.

○ FOCOLARE

- 주소: HAMBURGO NO.87-HI, COL. JUAREZ, DEL. CUAUHTEMOC, C.P.06600, MEXICO, D.F.
- 전화: (52-55) 5207-8503, 8257
- 특색: 식사는 별로 맛이 없지만 식당 중앙에 공연무대가 있어 매일 저녁 8:45분부터 멕시코 민속 무용을 공연하니 식사를 하면서 민속춤도 관람할 수 있음. 단, 1인당 입장료 (COVER FEE)가 있다.

○ EL LAGO DE LOS CISNEROS

- 주소: PRADO NORTE NO. 391, COL. LOMAS DE CHAPULTEPEC
- 전화: (52-55) 5202-4244
- 특색: 멕시코 서민요리이자 가장 대표적인 요리인 따꼬(TACO) 전문 식당으로, 비교적 깔끔한 분위기이며, 다른 TACO 음식점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다. 조식으로 다른 요리와 함께 베라크루스식으로 마시는 커피(CAFÉ CON LECHE)가 권장할만하다.

- ANTIGUA HACIENDA DE TLALPAN
 - 주소: CALZADA DE TLALPAN 4619
 - 전화: (52-55) 5655-7496
- LA VALENTINA
 - 주소: Masaryk 393, Col. Polanco
 - 전화: (52-55) 5282-2297
- Villa Maria
 - 주소: Homero No. 704, Col. Polanco
 - 전화: (52-55)52.03.03.06
 - <http://www.villamaria.com.mx/restaurantes.html>
 - 특색: 멕시코 전통식당으로 저녁에 마리아치 공연이 있다.

□ 몬테레이

- LA VALENTINA
 - 주소: Ave. Iazaro Cardenas 2660-B, Col. Valle Oriente, San Pedro, N.L.
 - 전화: (52-81) 8363-2612
 - 특징: 멕시코시티 LA VALENTINA의 자매식당. 멕시코 전통요리 및 스테이크 전문. 주말 밤에는 마리아치 공연이 있다. 몬테레이 NOVOTEL VALLE 호텔에서 가깝다.
- EL GRANERO GRILL
 - 주소: Calzada del Valle 333 Ote. San Pedro, N.L.
 - 전화: (52-81) 1257-3950 / 8378-4408
 - 특색: INTERNATIONAL MENU에 멕시코풍을 가미한 음식을 제공한다. 몬테레이 비즈니스맨들의 상담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 LUISIANA
 - 주소: Miguel Hidalgo 530 Ote. Centro Monterrey, N.L.
 - 전화: (52-81) 8344-4550
 - 특색: INTERNATIONAL MENU에 멕시코풍을 가미한 음식 제공. 몬테레이에서 가장 오래된 고급 식당중의 하나이다. SHERATON AMBASSADOR HOTEL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다..

5) 프랑스 식당

- Champs Elysees
 - 주소: Paseo de la Reforma 316 (Amberes y Estocolmo), Juarez
 - 전화: (52-55) 5525-7259, 5514-0450
 - 특징: 멕시코 최고의 프랑스 식당 중 하나이며 가격은 비싼 편이다.
- AU PIED DE COCHON
 - 주소: CAMPOS ELISEOS NO. 218, COL. POLANCO (★ HOTEL PRESIDENTE INTER CONTINENTAL 1층에 위치함)
 - 전화: (52-55) 5327-7756
 - 특징: 멕시코 최고의 프랑스 식당 가운데 하나임. 가격은 비싼 편이다.

○ MOUSTACHE

- 주소: RIO SENA NO.88, COL. CUAUHEMOC
- 전화:(52-55) 5533-3390
- 특징: 정통 프랑스 고급 식당. 정장을 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식사 중 상의를 벗을 수 없음. 역사가 가장 오래된 식당 가운데 하나이다.

○ AMBASSADEURS

- 주소: PASEO DE LA REFORMA 12, COL. CENTRO
- 전화:(52-55) 5566-3546

6) 이탈리아 식당

○ ALFREDO

- 주소: CAMPOS ELISEOS NO. 218, COL. POLANCO (* HOTEL PRESIDENTE INTERCONTINENTAL 2층에 위치함)
- 전화:(52-55) 5327-7766
- 특징: 비교적 고급스런 분위기이며, 음식 맛이 깔끔한 편이다.

○ RAFAELLLO

- 주소: LONDRES 165, COL. JUAREZ (ZONA ROSA)
- 전화:(52-55) 5525-1343
- 특징: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7) 스페인 식당

○ TORRE DE CASTILLA Escopo No. 31, Esq. Mazaryk, Col. Polanco,

- Tel: (52-55) 5282-3540
- 특징: 비교적 정통 스페인 음식 맛에 가까운 식당으로 본점은 Hotel Camino Real에 있음. 돼지 뒷다리 오븐구이 요리가 대표적이다. 인테리어가 독특하다.

○ Centro Castellano Mariano Escobedo 700(Hotel Camino Real), Anzures

- Tel: (52-55) 5531 7185
- 특징: 멕시코의 대표적인 스페인 식당으로 빠에야가 추천할만하다

8) 기 타

○ RESTAURANTE DE LAGO DEL CHAPULTEPEC

- 주소: LAGO MAYOR 2DA SECCION, BOSQUE DEL CHAPULTEPEC
- 전화: (52-55) 5515-9588
- 특색: 멕시코 시티의 가장 큰 공원인 차뿔테펙(CHAPULTEPEC) 공원의 호수 옆에 있으며, 저녁식사 시간의 전망이 좋아 분위기가 좋은 식당으로 유명. 식사비용은 비싼편이다.

○ LA MANSION (* 지점 중 유명한 2곳만 소개)

- 주소: MONTANAS CALIZAS NO. 210, COL. LOMAS DE CHAPULTEPEC
- 전화: (52-55) 5520-5156
- 주소: RAINE NO. 332, COL. POLANCO
- 전화: (52-55) 5545-1838
- 특징: 숯불 고기 요리로 유명한 식당.

○ RINCÓN ARGENTINO

- 주소: MASARIK NO.177, COL. POLANCO
- 전화: (52-55) 5254-8775
- 특징: 아르헨티나 고기 요리 전문 식당. 독특한 실내 인테리어로 유명하다.

○ CAMBALACHE

- 주소: COL. POLANCO
- 전화: (52-55) 5280-2080
- 특징: 아르헨티나 고기 요리 전문 식당으로 상기 RINCÓN ARGENTINO보다 약간 고급스런 분위기이다.

○ Fisher's

- 주소: Av. Dovali Jaime 75-L1, Santa Fe
- 전화: 5292-4884
- 특징: 해산물 전문점으로 점심식사 시간에만 영업.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가격은 인당 30-40불 수준이다.

8. 관공서 관행

최근까지도 멕시코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관공서의 부패문제라 할 수 있다. 스페인어로 속칭 CORBATA(꼬르바따, 넥타이)라고 하여 넥타이만 매고 자리에 앉아 하루 종일 신문만 보고 하는 일 없이 월급만 축내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VICENTE FOX 정권 등장 이후 과감한 부정부패 척결 운동으로 이러한 사례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민원 관련하여 관공서에 가면 공무원들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 대비한 신고 전화번호가 벽에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움직임이 일고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관료주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일일이 정식 레터를 요구한다거나 간단한 사안 처리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소모적인 일처리 관행이 문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멕시코 공무원들과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간단한 업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나가야 한다.

9. 공휴일

가. 2008년도 법정 공휴일 일정표

월	일	공휴일명	비고
1	1	신년공휴일	
2	4	제헌절	2월 첫 번째 월요일
3	17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3월 세 번째 월요일
3	20~21	부활절주간 (Semana Santa)	매년 변동
5	1	노동절	
5	5	대불 전승기념일	
9	16	독립기념일	
11	17	혁명기념일	11월 세 번째 월요일
12	25	성탄절	

나. 선택 공휴일

월	일	공휴일명
5	10	어머니의 날
10	12	인종의 날
11	2	만성절
12	12	성모출현 기념일

상기 선택공휴일은 많은 일반 회사들이 휴무이지만, 은행이나 공무원들은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임. 참고로 다른 유럽 및 중남미 국가처럼 공휴일이 주말에 있을 경우 그 다음날 즉, 월요일 휴무하는 경우는 없다.

연말 즉, 12월 20일부터 1월초까지 모든 공무원과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2-3주의 연말휴가를 갖기 때문에 동 기간 동안 대부분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다. 따라서, 동 기간 중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부활절 휴가시작 전날 반일근무가 관행이므로 부활절 기간 출장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10. 여행시 유의사항

가. 여행 준비

간단한 약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으나 가급적 한국에서 쓰던 약들을 휴대하는 것이 좋음 (감기약, 진통제, 지사제 등) 특히 장기 체류인 경우 외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약(청심환, 유아용 기응환, 정로환, 물파스, 기타 한방 의약품)은 가져가는 것이 좋다.

나. 여행 여건

멕시코의 수도물은 식수로 적합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정수된 물을 마셔야 하며 호텔에서도 반드시 생수를 마셔야 한다. 고지증세의 하나로 자다가 갈증이 나는 수가 많으므로 취침 전에 물은 꼭 준비 하는 것이 좋다(특히 건기). 호흡 곤란 등 고지 증세가 있을 경우 즉시 알맞은 장소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인근 병원에 연락, 산소 공급을 받는 것이 좋다.

멕시코는 택시, 시내 버스, 지하철 등 교통 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며, 택시 요금이 그다지 비싸지 않으므로 단기 여행자는 가급적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좋으나 일반 택시는 종종 택시기사가 강도로 돌변하는 수가 있으므로 가급적 약간 비싸더라도 콜택시(스페인어로 "SITIO/시띠오" 또는 라디오택시라고 함)를 타는 것이 안전하다. 멕시코는 치안이 매우 불안하므로 다음과 같은 출장자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이 요망된다.

- 일반 시내택시는 절대 타지 말 것
 -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반드시 공항택시 티켓을 구입, 공항택시 이용
 - 호텔에서는 호텔 택시를 이용하고, 다른 장소에는 콜택시(Sitio/씨띠오)를 요청,
 - 참고로 각 지역마다 콜택시가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나 부를 수 있는 전화 번호는 5660-1122이다.
- 호텔에서 상담 또는 관광에 나설 경우 귀중품은 프런트나 금고에 보관하고 최소한의 현금만 소지하고 약간의 비상금을 별도 소지하고 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야간 중 시내 배회 절대 금지
- 안전지대 호텔 투숙
 - 시내 골목길 근처 호텔 투숙 자제, 안전지대 대로변 호텔 투숙
- 거리에서는 절대로 지갑을 내보이지 말 것

다. 팁

식후 팁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계산서 금액의 약10% 정도면 무난하다. 그러나 일부 고급식당에서는 저녁식사의 경우 금액의 15%까지 팁을 주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일부 식당에서는 팁이 포함되어 계산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액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호텔 방 청소 및 개별 심부름 등의 경우 1불 정도 지불하며, 포터에게는 큰 짐의 경우 개당 1불-1.5불(고급호텔의 경우) 지불하면 된다. 그리고 VALET PARKING의 경우 주차요금 외에 팁으로 10페소(약 1불)를 잔돈으로 지불한다.

라. 위험 지역

멕시코 중심가인 소칼로(ZOCALO)지역은 밤에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밤에는 소칼로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게 좋다. 또한, 마리아치로 유명한 가리발디 광장도 치안 부재지역 이므로, 동 지역 방문 시 반드시 그룹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 외에 멕시코 내 시티 내 재래시장인 TEPITO 시장은 밀수품, 도난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고, 치안이 매우 불안한 지역이므로, 단기 여행자들이 방문하지 않는 게 좋다.

11. 유용한 연락처

가. 주요 긴급 연락처

- 기동 경찰: 066
- 모든 자문 및 실종신고: 5658-1111
- 긴급사태 구조: 5683-1154
- 소방서: 5768-3700
- 시간 안내: 030
- 전화번호 안내: 040
- 전화고장신고: 050

나. 주요 병원

- ABC 병원 / HOSPITAL ABC
 - ☎ (52-55) 5230-8000 Observatorio 지점
 - (52-55) 1103-1600 Santa Fe 지점
- 스페인 병원 / HOSPITAL ESPANOL
 - ☎ (52-55) 5255-9600

○ ANGEL 병원 / HOSPITAL LOS ANGELES

- ☎ (52-55)5449-5599 Pedregal 지점
- (52-55)5246-5000 Lomas 지점

멕시코 최고의 의료시설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들로 안심할만하지만 그 대신 비용이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1일 입원 시 1000불 이상 소요된다.

다. 주요 한국기관

○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LOPE DE ARMENDARIZ 110, LOMAS DE CHAPULTEPEC, MEXICO, D.F., MEXICO
- TEL: (52-55) 5202-9866, 202-7160
- 주요인사: 대사 원종찬, 상무관 신기택, 영사 신춘성

○ KOTRA 중남미 지역본부 겸 멕시코시티 무역관

-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 265 PISO 2 EDIF. AVANTEL, COL. CUAUHTEMOC, CP 06500, MEXICO, D.F.
- TEL: (52-55) 5514 - 3173
- FAX: (52-55) 5514 - 3170
- 중남미 지역본부 및 무역관 직원 현황(총 7명)
 - 관장 겸 중남미 지역본부장: 박동형
 - 부분부장: 한연희 차장
 - 중남미 지역본부 관원: 강명재 과장
 - 멕시코시티 무역관 관원 - 안영주 차장, 유성준 과장, 김민아 과장, 엄기웅 과장
- * 증권거래소(BOLSA DE VALORES 또는 CENTRO BURSATIL이라 함) 바로 옆 건물이다.

○ 한국수출보험공사

-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 265 PISO 2 EDIF. AVANTEL, COL. CUAUHTEMOC, CP 06500, MEXICO, D.F.
- TEL: (52-55) 5511 - 8781
- FAX: (52-55) 5511 - 9443
- 소장: 김기만 소장
- *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과 같은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 한국수출입은행

-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 350 PISO 8 EDIF. TORRE DEL ANGEL COL. JUAREZ, MEXICO, D.F.
- TEL: (52-55) 5511-8445
- FAX: (52-55) 5511-8472
- 소장: 변영후 지사장
-

○ 교민회

- 주소: AV. CHAPULTEPEC NO. 408, COL ROMA, MEXICO D.F.
- TEL: (52-55) 5533-0456
- FAX: (52-55) 5533-0457
- 회장 : 김영휘

- 한글학교
 - 주소: DURANGO NO. 101, COL. ROMA, MEXICO D.F.
 - TEL: (52-55) 5543-0376
- 몬테레이 한인회 (Asociacion Coreana de Monterrey)
 - 회장: 박헌준
 - 부회장: 임성묵
 - 주소: 15 de Mayo 301, Plaza San Jorge Local 35, Centro 64000 Monterrey, N.L. Mexico
 - TEL: (52-81) 8345-3074
 - 이메일: forestlim63@hotmail.com

라. 주요 항공사

- Mexicana : (52-55) 5448 0909
- Aeromexico : (52-55) 5133 4000
- Delta Airline : (52-55) 5279 0909
- Continental : (52-55) 5283 5500
- American Air : (52-55) 5209 1400
- Air Canada : (52-55) 9138 0280
- United Airline : (52-55) 5627 0222
- Japan Air Line : (52-55) 5242 0130

마. 주요 정부 기관

- 기관명: Secretaria de Funcion Publica (공공 정책부/ 감사원 기능 편입)
 - 주소: Insurgentes Sur No.1735, Col. Guadalupe Inn, CP.01020, Mexico, D.F.
 - TEL : (52-55)1454-3000
 - <http://www.funcionpublica.gob.mx/index1.html>
 - * 국제 입찰정보 WEB SITE: <http://compranet.gob.mx>
- 기관명: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SHCP / 재무부)
 - 주소: Palacio Nacional, Patio Central, Piso 3, Oficina 2010, CP. 06066, Mexico, D.F.
 - TEL : (52-55)9158-1100
 - WEB SITE: <http://www.shcp.gob.mx>
- 기관명: Secretaria de turismo (SECTUR / 관광부)
 - 주소: Presidente Mazarik 172, Col. Polanco, CP. 11587, Mexico, D.F.
 - TEL: (52-55)3003-1600
 - WEB SITE: <http://www.sectur.gob.mx/>
- 기관명: Se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 (SRE / 외무부)
 - 주소: Av. ricardo flores Magon No.1, TlaTEL : olco, CP.06905, Mexico, D.F.
 - TEL: (52-55)5782-4144 /255-0988
 - FAX: (52-55)5782-4109 /327-3003
 - WEB SITE: <http://www.sre.gob.mx>

- 기관명: Secretaria de Economia(SE / 경제부)
 - 주소: Alfonso Reyes No.30 Piso 17, Col. Condesa, CP.06140, Mexico, D.F.
 - TEL: (52-55)5729-9100
 - FAX: (52-55)5729-9313
 - WEB SITE: <http://www.economia.gob.mx>
- 기관명: Banco de Mexico (BANXICO/ 중앙은행)
 - 주소: 5 de Mayo No.2, Col. Centro, CP.06059, Mexico, D.F.
 - TEL: (52-55)5237-2000
 - FAX: (52-55)5237-2380 /237-2370.
 - WEB SITE: <http://banxico.org.mx>

바. 주요 일반시중 은행 (BANCA COMERCIAL)

- 기관명: Banco Nacional de Mexico, S.A.(Banamex)
 - 주소: Venustiano Carranza No.64 Mezzanie, Centro, CP. 06000, Mexico, D.F.
 - TEL: (52-55)5512-2665, 5512-2650
 - WEB SITE: <http://www.banamex.com>
 - 특징: 멕시코 내 최대 규모의 은행/2001년 CITI GROUP에서 인수하였음
- 기관명: BBVA – Bancomer, S.A.
 - 주소: Universidad No.1200, Col. Xoco, CP.03339, Mexico, D.F.
 - TEL: (52-55)5621-3434
 - WEB SITE: <http://www.bancomer.com.mx>
 - 특징: 멕시코 내 제2위 규모 스페인계 은행
- 기관명: HSBC, S.A.
 - 주소: Reforma No.156, Col. Juarez, CP.06600, Mexico, D.F.
 - TEL: (52-55)5721-2222 /721-2719 / FAX : (52-55)5721-2060
 - WEB SITE: <http://www.hsbc.com.mx>
 - 특징: 점포 수가 가장 많고 멕시코에서 토요일도 근무하는 유일한 은행
- 기관명: Banco Inverlat, S.A.
 - 주소: Blvd. Manuel Avila Camacho No.1, Col. Polanco, Del. Miguel Hidalgo CP. 11560, Mexico, D.F.
 - TEL: (52-55)5229-2929
 - WEB SITE: <http://www.inverlat.com.mx>

사. 개발 은행 (BANCA DE DESARROLLO)

- 기관명: Nacional Financiera, S.N.C. (NAFIN / 산업은행)
 - 주소: Insurgentes Sur No.1971, Col. Guadalupe Inn, CP.01020, Mexico, D.F.
 - TEL: (52-55)5325-6000 /325-7367 / FAX: (52-55)5325-7568
 - 사장: Mario Laborin Gomez
 - WEB SITE: <http://www.nafin.gob.mx>
 - 성격: 멕시코 국립 산업은행. 중소기업의 투자 금융 지원, 외국기업의 대 멕시코 합작 또는 직접투자 지원

아. 공공서비스 은행

- 기관명: Banco Nacional de Obras y Servicios Publicos, S.N.C.(BANOBAS/ 공공서비스 은행)
- 주소: Av. Javier Barros Sierra 515, Col. Lomas de Santa Fe, Mexico, D.F.
- TEL: (52-55)5270-1200
- WEB SITE: <http://www.banobras.gob.mx>

자. 대외무역은행

- 기관명: Banco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 S.N.C. (BANCOMEXT / 대외무역은행)
- 주소: Periferico Sur No.4333, Col. Jardines en la Montana, C.P.14210, Mexico, D.F.
- TEL: (52-55)5449-9000 / FAX: (52-55)5449-9070
- WEB SITE: <http://www.bancomext.com.mx>
- 사장: MR. HECTOR FEDERICO REYES R.
- 성격: 무역진흥기관. 한국 KOTRA의 기능 + 수출입 은행 기능 병행 수행

차. 경제 단체

- CONSEJO MEXICANO DE COMERCIO EXTERIO(COMCE / 공세 / 대외무역협회)
- 주소: LANCASTER NO 15, COL.JUAREZ, PISO 2. C.P.06600 MEXICO D.F.
- TEL: (52-55) 5231-7112 / 3 / FAX: (52-55) 5514-4978
- 사장: MA DE LA LUZ MOLINA
- 성격: CEMAI (세마이/대외경제협력위원회) 후신, 한-멕 경제협력 위원회 사무국 운영. 대한 상공회의소를 카운터 파트너로 하여 매년 양국경제협력 위원회 개최.
- CONFEDERACION PATRONAL DE LA REPUBLICA MEXICANA(COPARMEX/ 꼬빠르 맥스 / 멕시코 경영자 총회)
- 주소: INSURGENTES SUR. 950 PISO 1, COL. DEL VALLE, C.P. 03100, MEXICO,D.F.
- TEL: (52-55) 5682-5547 / FAX: (52-55) 5687-2821 / 5536-1698
- 사장: ALBERTO NUÑEZ ESTEBA
-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 LA TRANSFORMACION (CANACINTRA / 까나썬뜨라 / 공업회의소)
- 주소: AV. SAN ANTONIO NO. 256 COL. AMPLIACION, NAPOLES, C.P.03849, MEXICO, D.F.
- TEL : (52-55) 5563-3400 / 5482-3000 / FAX : (52-55) 5598-8044
- 회장: LIC. YSASI MARTINEZ
- 성격: 멕시코시티 공업회의소
- CAMARA NACIONAL DE COMERCIO DE LA CIUDAD DE MEXICO(CANACO/까나꼬/상업회의소)
-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42 PISO 5,COL.CENTRO, C.P.06048 MEXICO D.F.
- TEL : (52-55) 5592-2677 / FAX : (52-55) 5705-4194
- 회장: MR. CARLOS RAUL MARTINEZ BARBA
- 성격: 멕시코시티 상업회의소
- CAMARA DE LA INDUSTRIA DEL CALZADO DEL ESTADO DE JALISCO(할리스코 신발공업 협회)
- 주소: PROLONGACIONAV. ALCALDENO.1918, SECTORHIDALGOC.P. 44270, GUADALAJARA, JAL. MEXICO

- TEL: (52-33) 3824-6040 / 6615 / 9596 / FAX: (52-33) 3853-4983
- 회장: MR. EDUARDO HUBER FLORES
- 성격: 멕시코 신발업체의 80% 이상이 집중되어있는 JALISCO주 신발협회

-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L HIERRO Y DEL ACERO (CANACERO /
까나세로 / 철강공업 협회)
 - 주소: AMORES NO.338 COL. DEL VALLE DELEG. BENITO JUAREZ C.P. 03100 ,
MEXICO D.F.
 - TEL: (52-55) 5543-4443 / FAX: (52-55) 5687-0517
 - 회장: C.P.JULIO CESAR WILLAREAL GUAJARDO
 - 성격: 멕시코 철강협회

- ASOCIACION NACIONAL DE INDUSTRIA DEL PLASTICO (ANIPAC /플라스틱 공업협회)
 - 주소: AV. PARQUE CHAPULTEPEC 66-301, COL. EL PARQUE, C.P. 53390, NAUCA
LPAN EDO. DE MEXICO, MEXICO
 - TEL : (52-55) 5576-5547/ 358 1488 / FAX : (52-55) 5576 5548
 - 회장: ING. EDUARDO DE LA TIGERA COETO
 - 성격: 멕시코 플라스틱 산업 협회

-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L VESTIDO (CNIV / 의류공업협회)
 - 주소: TOLSA NO.54, COL. CENTRO DELEG.CUAUHTEMOC C.P.06040,MEXICO D.F.
 - TEL: (52-55) 5588-7822,588-3934 / FAX: (52-55) 5578-6346
 - 회장: LIC. JOSE MANUEL MARTINEZ CABRERA
 - 성격: 멕시코 의류협회

- ASOCIACION MEXICANA DE LA INDUSTRIA DE TECNOLOGIA DE INFORMACION /
AMITI (IT협회)
 - 주소: PASEO DE LA REFORMA 295, PISO 6, COL.CUAUHTEMOC, MEXICO D.F.
 - TEL: (52-55) 5207-0409 / FAX: (52-55) 5207-6016
 - 회장: MR. JAVIER ALLARD TOBOADA / GENERAL DIRECTOR (상근부회장)
 - IT협회 회장은 멕시코 HP 사장임. (MR. CARLOS GUZMAN)
 - 성격: 멕시코 최대의 IT협회로서 회원사 160여개사로 구성되어 있음.

- CAMARA DE LA INDUSTRIA DE LA CONSTRUCCION (CNIC / 건설협회)
 - 주소: PERIFERICO SUR. NO.4839, COL. PARQUES DEL PEDREGAL C.P. 14010
,MEXICO D.F.
 - TEL: (52-55) 5424-7400 / FAX: (52-55) 5424-7468
 - 회장: ING. NEZAHUALCOYOT SALUATIERRA
 - 성격: 멕시코 건설협회

- ASOCIACION MEXICANA DE LA INDUSTRIA AUTOMOTRIZ, A. C. (AMIA/ 아미아
/자동차공업협회)
 - 주소: ENSENADA NO.90 COL. CONDESA, C.P.06100,MEXICO D.F.
 - TEL: (52-55) 5272-1144 / FAX: (52-55) 5272-7139
 - 회장: LIC. CESAR FLORES ESQUIVEL
 - 성격: 멕시코 자동차공업협회

- ASOCIACION NACIONAL DE IMPORTADORES Y EXPORTADORES DE LA REPUBLICA MEXICANA (ANIERM / 아니에름 / 수출입 협회)
 - 주소: MONTERREY NO.130 1ER PISO COL. ROMA, C.P.06700,MEXICO D.F.
 - TEL: (52-55) 5584-9668 / 5584-9522 / 5564-8618
 - FAX: (52-55) 5584-5317
 - 회장: ING. ENRIQUE HERNANDEZ DE TEJADA ALDANA
 - 성격: 멕시코 수출입 업자 협회
- ASOCIACION MEXICANA DE DISTRIBUIDORES DE MAQUINARIA, A.C. (AMDM/ 기계류 유통업체 협회)
 - 주소: FRANCISCO PETRARCA NO. 232, COL. CHAPULTEPEC MORALES(PONLANCO) , C.P. 11570, MEXICO D.F.
 - TEL: (52-55) 5531-6976 / FAX: (52-55) 5531-6858
 - 회장: LIC. PEDRO FRIAS
 - HOMEPAGE : www.amdm.org.mx
 - 성격: 멕시코 기계류 수입상 협회
-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TEXTIL(CANAINTEX/까나인텍스/섬유공업협회)
 - 주소: PLINIO 220 COL. POLANCO C.P.11510, MEXICO, D.F.
 - TEL: (52-55) 5280-8637 / FAX: (52-55) 5280-3973
 - 회장: LIC. RAFAEL ZAGA
 - 성격: 멕시코 섬유산업협회
- CAMARA MINERA DE MEXICO (CAMIME / 까미메 / 광물협회)
 - 주소: SIERRA VERTIENTES 369, LOMAS DE CHAPULTEPEC, C.P.11000, MEXICO D.F.
 - TEL: (52-55) 5540-6788/9 / FAX: (52-55) 5540-6061
 - 회장: MR. JOSE CERRILO C.
 - 성격: 멕시코 광물협회
- CONFEDERACION DE CAMARAS NACIONALES DE COMERCIO(CONCANACO/ 콩까나꼬/상업협회 총 연합회)
 - 주소: BALDERAS 144 3er. PISO COL. CENTRO . C.P. 06079, MEXICO, D.F.
 - TEL: (52-55) 5722-9300 / FAX: (52-55) 5722-9300 (EXT. 9401)
 - 회장: ING. LUIS ANTONIO MAHBUB SARQUIS
 - 성격: 멕시코 상업협회 총연합회로 상인 및 수입업자 이익 대변
- CONFEDERACION DE CAMARAS INDUSTRIALES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CONCAMIN / 콩까민 / 공업협회 총연합회)
 - 주소: MANUEL MARIA CONTRERAS 133-PB COL. CUAUHTEMOC C.P. 06500 MEXICO, D.F.
 - TEL: (52-55) 5140-7800/-19 / FAX: (52-55) 5140-7831
 - 회장: MR. LEON HALKIN BIDER
 - 성격: 멕시코 산 별 조합 총연합회로 주로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 이익 대변
- ASOCIACION NACIONAL DE TIENDAS DE AUTOSERVICIOSY DEPARTAMENTALES (ANTAD / 안따 / 백화점. 슈퍼마켓 협회)
 - 주소: HORACIO 1855, 6o. PISO, COL. CHAP. MORALES, C.P.11570, MEXICO D.F.

- TEL: (52-55) 5580 1772 / FAX: (52-55) 5395 2610/11
- 회장: MR. VICENTE YAÑEZ
- HOMEPAGE : www.antad.org.mx
- 성격: 슈퍼마켓 및 백화점 협회

- CONSEJO COORDINADOR EMPRESARIAL AC. (CCE / 기업조정회의소)
 - 주소: LANCASTER 15 COL.JUAREZ C.P. 06600, MEXICO D.F.
 - TEL : (52-55) 5229-1100 / FAX : (52-55) 5229-1143
 - 회장: ING. JOSE LUIS BARRAZA GONZALEZ

12. 관광명소

가. 시내 관광

- Zocalo (소칼로): 헌법광장 (Plaza de La Constitucion)
 -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광장이며, 주변에 대통령 궁, 대성당,
 - 아스텍 유적지 Templo Mayor가 있음
 - 대통령 궁에서 멕시코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디에고 리베라의 대표적인 벽화를 감상할 수 있음
 - 아스텍 문명의 Templo Mayor 유적 및 박물관을 통해 도심
 - 한가운데에서 발굴된 고대 유적지를 살펴볼 수 있음
- 인류학 박물관 (Museo Nacional de Antropología)
 - 올멕, 아스텍, 마야 등 멕시코 문명을 한눈에 볼 수 있음
 -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
- 국립 예술극장 (Palacio de Bellas Artes)
 - 멕시코 전통 민속무용 및 음악 감상
 - 시내 중심가에 위치,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일요일 오전 9시 /오후 8시 (2회) 공연
- 투우장 (Plaza de Toros Mexico)
 - 객석 5만석의 세계 최대 투우장
 - 시내에 위치, 건기(11-2월경)중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경기
 - 멕시코시티 남쪽에 위치 (Augusto Rodin 241, Col. Ciudad de los deportes, Delg. Benito Juarez, Mexico D.F./Tel. 5611-9306)
- 가리발디 광장 (Plaza de Garibaldi)
 - 멕시코 특유의 악단, 마리아치의 연주 및 노래 감상 가능
 - 가리발디 광장은 치안이 매우 위험한 지역이므로 개인 방문은 삼가고 단체로 행동해야 함
- Basilica de Guadalupe(La Villa)
 - 멕시코의 가장 유명한 가톨릭 성당으로 원주민 성모 과달루페 성모가 출현해 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멕시코의 종교,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당이며, 과달루페 성모일 12월 12일에 전국 각지에서 신자들이 모이는 곳

나. 멕시코시티 주변(당일 코스)

- Teotihuacan 피라미드(왕복 2시간 소요)
 - "떼오띠와칸"은 신의 도시라는 의미로 기원전 약 2세기에 건립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 관람)
- Taxco와 Las Grutas de Cacahuamilpa(왕복 4-5시간 소요)
 - 은광도시 따스꼬의 은제품이 유명
 - 그루타는 높이와 폭이 30미터가 넘는 천연 동굴로 각종 기암 괴석이 장관. 매 시간마다 가이드 투어가 진행되며, 2시간 관광 코스

다. 기타 주요 관광지(2박 3일 코스)

- 칸쿤(Cancun)
 - 카리브 해안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곳
 - Xcarlet, Xel-Ha 등 각종 천연 물놀이공원은 물론, 치첸이사, 톨룸 등 마야유적지 관광을 겸할 수 있는 곳
 - 멕시코시티에서 비행기로 편도 1시간 반 소요
- 산미겔 데 아옌데(San Miguel de Allende)와 과나후아토(Guanajuato) (왕복 7-8시간)
 - 식민지시대 건물이 많이 남아있는 아름다운 도시들
 - 산 미겔 데 아옌데를 잠시 들렀다가 과나후아토로 향할 수도 있음. 산미겔 데 아옌데는 전통토산품으로 유명
- 아카풀코(Acapulco) (왕복 8시간)
 - 멕시코 시티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 휴양지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다이빙 관광이 유명
 - 멕시코 시티와 근접해 주말 및 연휴에 인파로 가득

라. 멕시코 기념품

주로 구입하는 기념품은 은제품, 떼킬라(Tequila), 토산품(마리아치 모자, 토속 그림 등), 모발 보호 천연 비누, 오닉스 등임

□ 떼킬라(Tequila)

- 선인장으로 만든 떼킬라 술의 경우, Costco, 까르푸 등 대형 마트에서 구입하거나,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
- Don Julio, Herradura, Tres Generaciones, Cazadores, 1800 등이 평이 좋은 제품임

□ 전통 공예품 및 은제품 구입

- Mercado Artesanal Buenavista
 - 위치: Aldama Frente Ferrocarriles
 - 전화번호: 5526-3700
 - 판매품: 은, 가죽제품 등 각종 멕시코 전통 기념품을 판매하는 최대 규모의 토산품 시장.

- Talleres de Ballesteros
 - 위치: Zona Rosa
 - 전화번호: 5511-8281
 - 판매품: 은제품

□ 모발보호 천연 비누

- Nutrisa
 - 위치: Zona Rosa
 - 판매품: 노뽕 선인장 액기스, 알약 등 각종 건강식품 및 모발 보호 천연 비누(Verde Natural), 샴푸(Crece) 등 판매.
 - 참고로 동 비누 및 샴푸가 한국에서 인기리에 고가로 판매 중임 (멕시코 구입 가격은 비누 2볼, 샴푸 5볼 수준임)